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12** Vol.228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66회 정기연주회

음악으로 하나되는 부산-후쿠오카

2011

신년음악회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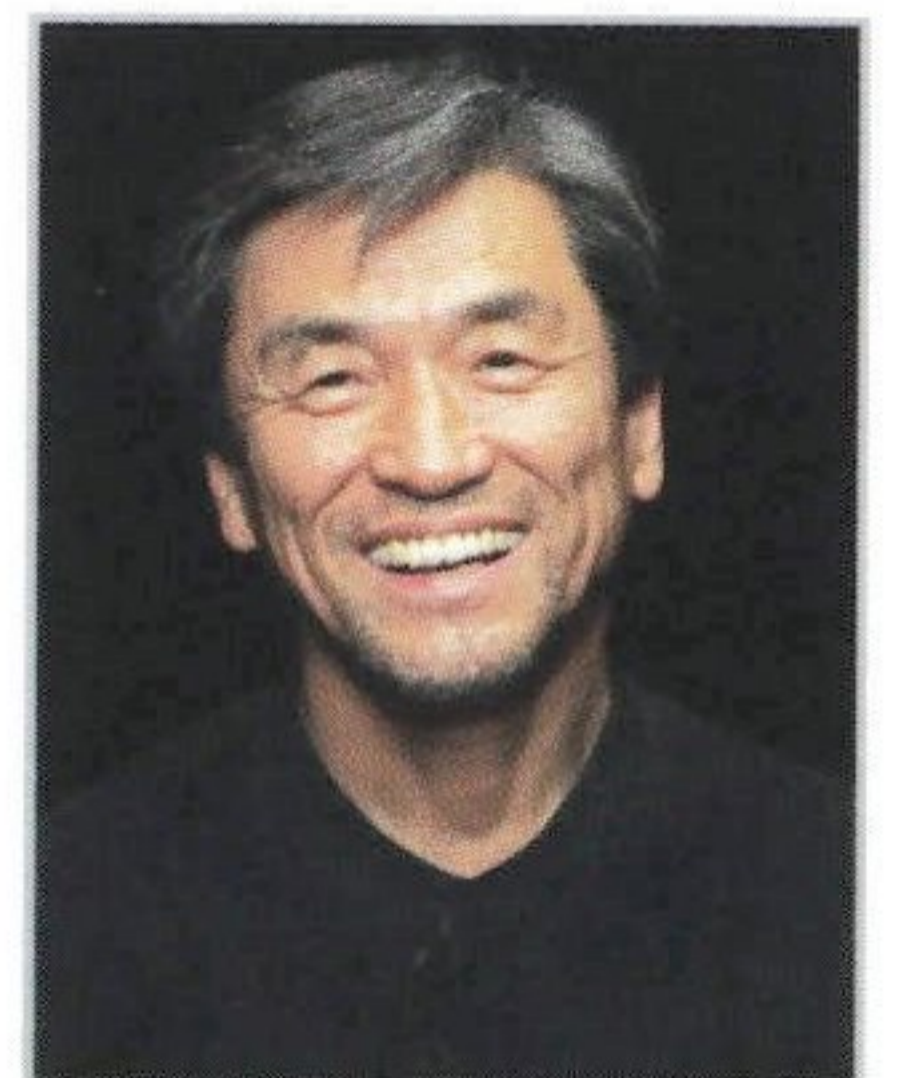
번스타인 _ '캔디드' 서곡
멘델스존 _ 바이올린 협주곡
야오 사람들의 춤
아버지 - 찔레꽃 - 대전 블루스
R.슈트라우스 _ 장미의 기사 모음곡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세이지 카게야마



소리꾼 장사익



2011. **1.18**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051)607-3111~4 (부산시향) / 051)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자점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4주년 기념 유럽 최정상급 오페라 주역가수 초청

OPERA GALA

La Traviata

라 트라비아타 갈라

New, Young and Talented
Opera Rising Stars in Europe!

이태리 '라 스칼라'의 최고 신예 Fabrizio Mercurio
유럽 오페라계의 차세대 프리마돈나 Sophie Gardeladze

그 젊고 윤기있는 음색으로 만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서정과 매혹!

2010.12.15(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안내| (051) 853-2341 www.grandopera.or.kr



지휘 Diego Croveti



소프라노 Sophie Gardeladze



테너 Fabrizio Mercurio



바리톤 송기창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오페라합창단

|주최| 그랜드오페라단

|후원| DAESUNG (주)대성건설

BSOF 부산문화재단

부산경상대학교

대동병원

|협찬| KYOBO 교보생명

DaehanSteel 대한제강

부산광역시

|입장권| VIP석 100,000 · R석 70,000 · S석 50,000 · A석 30,000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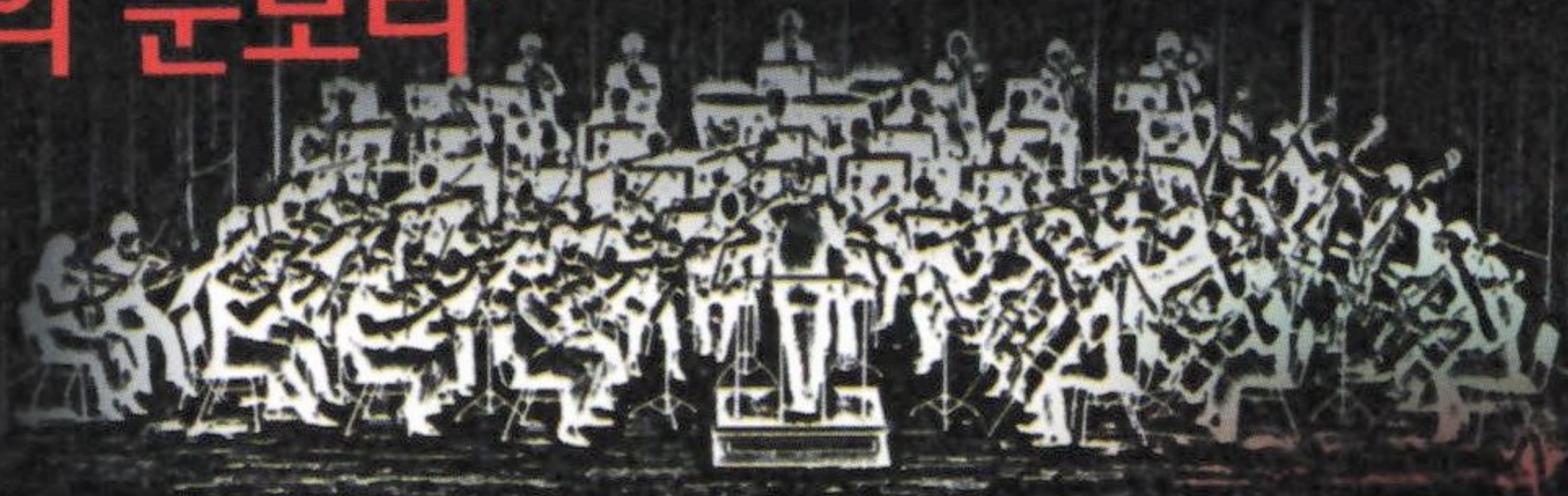
티켓링크 (1588-7890)

AUCTION 티켓 (1566-1369)

BS 광부산 (051-741-3255) /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영도의 겨울 그리고 러시아의 눈보라



지휘 : 오충근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협연 : 구민영(소프라노), 강학윤(테너), 정승찬(플룻)

2010. 12. 7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관람료 전석초대(선착순 입장) 문의 051) 419-5561~5

◆ 본 공연은 2010년 BSOF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II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2010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지휘 : 오충근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 임병원 (바이올린) 박진희 (피아노) 김판수 (첼로)
노영훈 (오보에) 윤태준 (바순) 주현 (트럼펫)

Program

1부 사랑의 천일야화(千一夜話)
림스키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작품35 (Violin Solo 임병원)

2부 지나간 시간의 사랑이야기
폰키엘리 / 오페라 <라조콘다> 중 "시간의 춤"
오펜바흐 / 자클린의 눈물
엔니오 모리꼬네 / 가브리엘의 오보에
엘가 / 사랑의 인사 작품12
도니제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엔니오 모리꼬네 / 사랑의 테마 (영화 시네마천국 OST) 외 수 곡.

2010. 12. 14 (화) pm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람료 10,000원 (정기회원, 학생 50%할인)
문의 051) 419-5561~5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본 공연은 2010년 BSOF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Program

VERDI Overture from Opera <Nabucco>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서곡

BARBER Violin Concerto, Op.14
바버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14

ELGAR The Enigma Variations, Op.36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36


28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지휘 : 이현세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임병원)

협연 : 김은정 (경성대 외래교수)

2010. 12. 28. Tue.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티켓  www.popbusan.com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전석 학생 50%할인)

문의 051) 405-4577 www.bso21.com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1세기를 함께 할 참신하고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원서접수

- 일 시 : 2011년 1월 3일(월) 오전10시부터 2011년 1월 21일(금) 오후5시까지
- 접 수 : 010-8508-8310으로 본인의 메일주소를 보내주시면, 입회원서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작성 후 메일 bso4577@naver.com으로 신청합니다.
- 문 의 : 051)405-4577

오디션 및 면접

- 일 시 : 2011년 1월 22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영도문화예술회관 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습실

모집인원

- 정회원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
시립교향악단 등 우수 관현악단 단원은 겸임 가능(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
현악기 약간 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수운, 호오른, 트럼펫 각 1명
타악기 2명
- 연구단원 : 대학교 재학생 (약간 명)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 www.bso21.com 참고바랍니다.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심장병어린이 수술비로 지원됩니다”

국제로타리 3660지구와 함께 하는 제2회 심장병 어린이돕기

희망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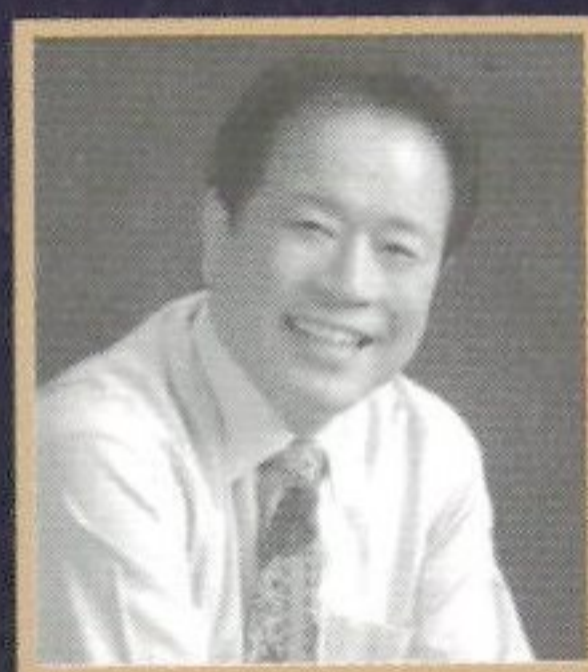
지휘 박우진



악장 조현미



사회 손지현아나운서




테너 엄정행



뮤지컬배우 최정원



트럼피스트
드미트리로카렌코프

연주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Internationay Rotary Symphony Orchestra



가수 정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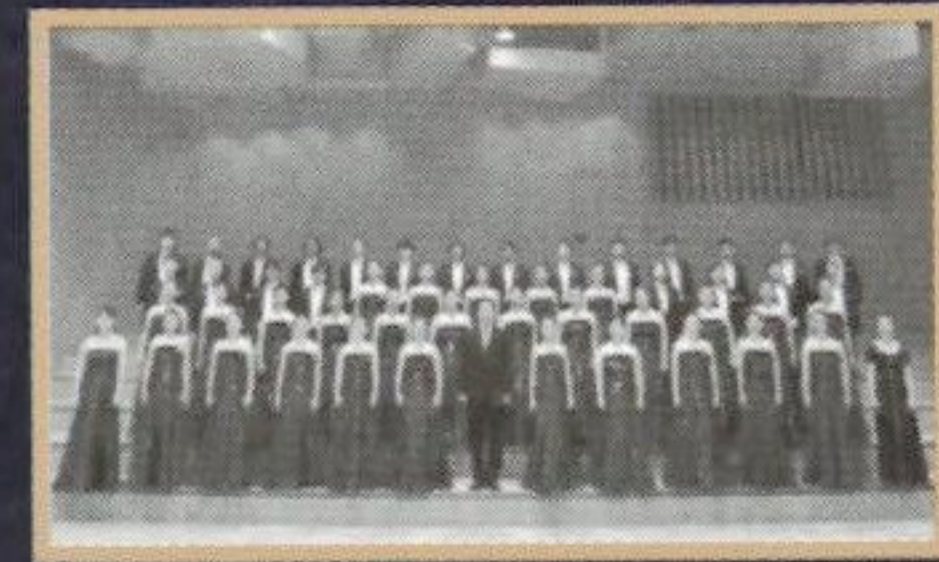
가수 안치환



가수 마야



퓨전타악그룹 공감21





부산시립합창단

2010. 12. 27 | 월 |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국제로타리3660지구 / 부산 MBC

주관  국제로타리부산화명로타리클럽

후원  국제로타리3660지구제7지역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 공연문의  국제로타리3660지구 TEL.051) 637-3660

Contents



10 커버스토리

소프라노 조수미 독일가곡 콘서트 MORGEN

12 프리뷰

19 문화가 화제

심장병어린이 돕기 희망 음악회

20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매지션 이은결

22 은현리 풍경 속에서 詩를 읽다 ⑫

발이 따뜻해야 온몸이 따뜻해지는 즐거움이 있어 | 정일근

2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세계를 바꾼 독일의 발명품들 Made in Germany | 김지혜

28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⑫

영화 '엑스칼리버' | 이동신

30 불멸의 거장, 치바이스 ④

베이징 살이 | 김남희

32 나의 애청음반

기쁨에로의 거부할 수 없는 초청장 '합창교향곡' | 김의호

33 헬로우 부산, 원더풀 코리아

자연의 축제 가을 | 안나 기르소바

34 그곳에 가면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36 리뷰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리스트 지안왕 초청연주회 | 박진홍

문화분권과 문화전문 미디어 :인터넷 방송과 잡지 | 남인용

38 우리는 문화가족

아이와 함께 행복을 빛는 연제 두레마당

40 프로그램 가이드

59 100자 토크

60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예술의 초대 2010 + 12 Vol. 228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0년 11월 25일

인쇄처 | 신우정판사 Tel.051-469-2661~2 Fax.051-469-0710

SUN

MON

TUE

5

대 | 옴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 초청연주회 19:30
15만원·10만원·5만원·3만원·2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

중 | 부산색소폰콰이어 제 5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이천우(010-2767-2141)

6

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0:3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중 | 제 16회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백진현(011-503-9541)

7

대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0:3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독일가곡 콘서트 'MORGEN'
19:30 12만원·8만원·6만원·5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 운아회 초청 정소연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정소연(010-4577-7703)

소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풍류 2기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2

대 | 문화 소외계층과 국군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연주회 15:00
초대/해군작전사령부(679-6063)

중 | 제 15회 땡브르발레연구회 정기공연 18:00
균일 1만원/이상영(011-859-5162)

소 | 향기 오카리나 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8:00
균일 5천원/이장희(010-2546-3995)

13

대 |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20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UKO(731-4470, 010-589-3111)

중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제 32회 합창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동환(010-7470-2547)

14

대 | 부산시립무용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

중 | 강남길 피아노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소 | 음악대륙 가이아 창단연주회 19:00
초대/손한별(010-6645-1564)

19

대 | 2010 3개 무용단체 합동공연 2010 춤으로 갈무리하다 17:00
초대/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 제 11회 김정희 피아노아카데미 연주회 17:30
초대/김정희(628-4106, 010-4552-4106)

20

21

대 |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크리스마스 캐럴 & 베토벤의 '합창만을 위한 합창심포니 No.9'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세종실로이스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19:30
4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26

대 | ●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이은결 'The Illusion' 14:00, 18:30
7만7천원·6만6천원·5만5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 ●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27

대 | 국제로타리 3660지구와 함께하는 심장병 어린이돕기 희망음악회 19:30
5만원·4만원·3만원·2만원
국제로타리3660지구(637-3660)

28

대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8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405-4577)

소 | 차행법 숙우회 '인드라마' 14:00, 19:00
균일 2만원/숙우회(010-3589-5199)

전시실

- ▶ 제 43회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와 졸업 작품전
11월 29일(월)~12월 2일(목) - 대, 중전시실
문의 : 이희연(010-7754-5201)
- ▶ 제 13회 대한서화예술대전
12월 4일(토)~12월 6일(월) - 대, 중전시실
※ 시상식 4일 오후 1:00 국제회의장
문의 : 배효(342-9971, 010-6654-2450)
- ▶ 제 28회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입상작
12월 10일(금)~12월 18일(토) - 대, 중전시실
※ 시상식 18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문의 : (사)한국현대미술협회
(644-0005, 010-5488-3375)
- ▶ 제 6회 부경서도대전
12월 19일(일)~12월 22일(수) - 대, 중전시실
※ 전시오픈 19일 오후 3:00
시상식 19일 오후 3:30 국제회의장
문의 : 한국서도협회 부산경남지회
(516-5678, 011-9501-8181)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WED	THU	FRI	SAT
<p>1 대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부산지역 순회공연 19:30 무료/이채란(999-5301)</p> <p>중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p>	<p>2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p> <p>중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p> <p>소 수영공솔노인대학 졸업발표회 무료/이인우(010-7152-3309)</p>	<p>3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p> <p>중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p> <p>소 수영공솔노인대학 졸업발표회 무료/이인우(010-7152-3309)</p>	<p>4 대 영화음악플러스콘서트 19:00 균일 1만5천원/선진문화포럼(256-7614)</p> <p>중 2010 첼리스트 송영훈 부산연주회 17:00 5만원·4만원·3만원/더 스톱프(02-2658-3546)</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p>8 대 부산시립합창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6)</p> <p>중 부산 여운국악관현악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5천원/홍희철(010-2510-0753)</p>	<p>9 대 2010 남성성악가 앙상블 19:30 균일 3만원/부산일보사(461-4433)</p> <p>소 이한순의 춤 '飛天' 19:30 1만원·5천원/이한순(010-2601-7357)</p>	<p>10 대 먼구름 한형석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초대/한형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469-1978, 011-837-2297)</p> <p>중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김옥연(010-2533-7913)</p> <p>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16-디어 클라우드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11 대 정태춘 박은옥 초청 2010 송년음악회 18:00 5만원·4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633-8990)</p> <p>중 부산라이트하우스톱기 제 20회 글로리라이어 정기연주회 17:00 균일 1만원/이정철(010-6579-6306)</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p>15 대 부산시립무용단 장애우를 위한 특별공연 10:30 초대/부산시립무용단(607-3131~2)</p> <p>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4주년 기념 제 30회 정기공연 유럽 최정상급 오페라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갈라 19:30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그랜드오페라단 (853-2341)</p> <p>중 2010 푸른 부산 합창콘서트 19:30 균일 1만원/장은익(010-6567-2231)</p>	<p>16 중 정주연 귀국 플룻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소 강대현 피아노 독주회 19:30 강대현(010-4691-4994)</p>	<p>17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큐슈 심포니 초청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I 부산MBC와 함께 하는 제 465회 정기연주회 및 2010 송년음악회 '부활'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소 강백천류 대금산조보존회 연말기획공연 '선경(仙境)의 소리, 그리고 변태' 19:00 초대/강백천류대금산조보존회(010-9797-0334)</p>	<p>18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31회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악회 'Happy Christmas'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중 풍물굿패 소리결 기획공연 2010 신명난 송년회 '우리시대 풍물명인전' 18:00 3만원·2만원 풍물굿패 소리결(512-6153, 011-9518-5569)</p> <p>소 토요일상설무대-소통하는 심어 송 라이터 박강수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p>22 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3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중 현미밴드 제 3회 정기공연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소 현미밴드 제 3회 정기공연 쇼쇼쇼 나비의 꿈 20:00 균일 2만원 현미밴드(018-519-1683, 010-2335-0515)</p>	<p>24 중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소 현미밴드 제 3회 정기공연 쇼쇼쇼 나비의 꿈 20:00 균일 2만원 현미밴드(018-519-1683, 010-2335-0515)</p>	<p>25 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이은결 'The Illusion' 15:00, 19:30 7만7천원·6만6천원·5만5천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중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15: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소 현미밴드 제 3회 정기공연 쇼쇼쇼 나비의 꿈 15:00, 18:00 균일 2만원 현미밴드(018-519-1683, 010-2335-0515)</p>
<p>29 대 국악전문단체 타로 정기연주회 '문전성시' 19:30 5만원·3만원·2만원 이일록(583-7958, 010-3282-8014)</p> <p>중 극단 세진 다이나믹 뮤지컬 'BUSAN' 17:00 20:00 3만원·2만원/무대공감(623-0678)</p> <p>소 차행법 숙우회 '인드라망' 14:00, 19:00 균일 2만원/숙우회(010-3589-5199)</p>	<p>30 중 극단 세진 다이나믹 뮤지컬 'BUSAN' 17:00 20:00 3만원·2만원/무대공감(623-0678)</p>	<p>31 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기획공연 2010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22:30 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1/1</p>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독일가곡 콘서트 MORGEN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슈베르트/마왕, 송어, 물위에서 노래 함, 그대는 나의 안식, 들장미, 세레나데, 달에게
모차르트/봄을 기다림, 자장가, 클로에에게
아담/모차르트를 위한 테마
슈만/호두나무, 헌정, 달밤
브람스/하찮은 세레나데, 자장가
멘델스존/노래의 날개위에
베토벤/당신을 사랑해요
J.스트라우스 II/아침 등

세계적인 디바 조수미가 12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독일 정통 예술가곡의 향연을 펼친다.

항상 끊임없는 도전으로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조수미의 이번 무대 타이틀은 'MORGEN', 독일어로 아침 혹은 미래, 내일을 뜻하는 'MORGEN'을 통해 2010년을 되돌아보고 2011년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조수미가 이번 무대에서 마련한 성찬은 독일 정통 예술가곡. 지난 3월 발매된 독일가곡집 '이히 리베 디히 (Ich Liebe Dich)'의 수록곡을 중심으로, 예술가곡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독일가곡을 들려준다. 지극히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독일가곡은 노래에 담긴 시(詩)의 내용을 충분히 음미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만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음악성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기교만으로는 부를 수 없는 정서적 완성도가 필요한 곡이기 때문에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세계 정상급 콜로라투라 조수미가 해석하는 이번 독일가곡 무대에 음악애호가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조수미는 슈베르트, 모차르트, 슈만, 브람스, 멘델스존, 베토벤, 스트라우스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프로젝트 앙상블과의 감미로운 연주로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흔, Anna Fedotova, 비올리스트 Maria Nelyubina, 첼리스트 Kondratendo Anton, 베이스리스트 한정호, 피아니스트 이영민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이 조수미와 함께 정통 독일가곡의 매력을 선사한다.

1986년 이태리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조수미는 세계적인 명지휘자 카라얀과 주빈 메타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 '신이 주신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으며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조수미는 라 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오르면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벨 칸토의 진수를 선보이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나폴리 존타(Napoli Zonta) 국제콩쿠르 1위, 시실리 에나(Sicily Enna) 국제콩쿠르 1위, 베르첼리 비오티(Vercelli Viotti) 국제콩쿠르 1위, 바르셀로나 비냐스(Barcelona Vinas) 국제 콩쿠르 1위, 베로나(Verona) 국제콩쿠르 1위를 차지한 조수미는 1993년 이탈리아에서 그 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주는 황금기러기상(La Siola d'Oro)을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훈장(1995년), 프랑스 문화계 비평가들이 선정한 Grand Palmier상(1997년), 성악가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명예인 국제푸치니상(The Puccini Award)을 수상했다. 1993년 게오르그 솔티경의 지휘로 데카에서 발매된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은 그 해 그라미상 클래식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7년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의 전속계약을 통해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조수미는 2008년 세계 각국의 월드뮤직을 재해석한 크로스오버앨범 'Missing You'를 발매, 8개월 만에 5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파이브타임즈 플래티넘 디스크상을 수상했다. 조수미는 앞으로 5년간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사인 독일의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에서 세계의 민요, 러시아 가곡,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디노라'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이루어진 5장의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부산MBC와 함께하는 제 46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부활'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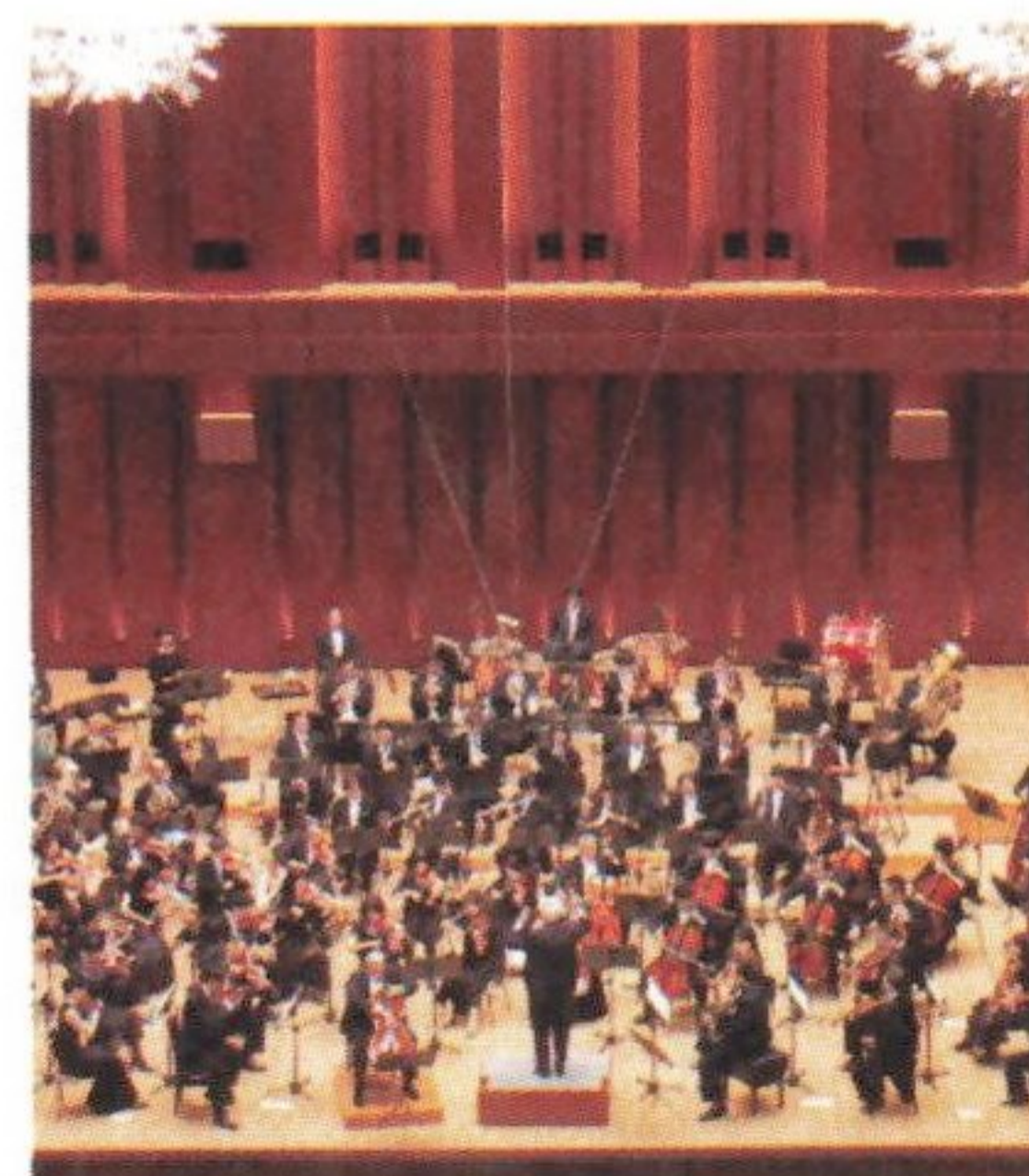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2월 17일 말러 탄생 150주년을 보내는 마지막 무대 '말러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I'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10 송년음악회를 겸하는 이번 무대는 후쿠오카의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구성, 201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송년 무대를 연다.

이번 송년음악회의 화두는 말러 교향곡 제 2번 '부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독창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부르는 장엄한 부활의 노래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의 하모니로 부산초연무대가 펼쳐진다. 말러 교향곡 2번은 교향곡 1번에 비해서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인데 구성적으로도 전통적인 4악장이 아닌 5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말러풍의 거대한 경향을 띠는 최초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말러는 부다페스트 가극장의 지휘자로 있던 1888년부터 교향곡 2번의 스케치를 시작했으나 부모와 여동생의 잇따른 죽음과 교향곡 1번의 초연 실패로 중단하고 1893년부터 슈타인바흐에서 창작에 몰두해 그 첫 여름에 교향곡 1번의 작품 개정과 교향곡 2번의 2악장에서 4악장까지 관현악 총보 초고를 완성했다. 마지막 5악장은 그의 후원자인 벨로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지는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창립자 클롭스 톱(1724~1803)의 '부활'을 듣고 감흥을 받아 초고를 완성했다. 말러는 이 시 제 3절 이하를 많이 수정해 5악장에 사용했는데, 원래의 시에 있는 종교적이고 경건한 진리의 '부활'은 말러의 독특한, 죽음의 힘에 대한 구원의 상자처럼 바뀌어, '부활'이 있기에 죽음은 생의 소멸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인생의 고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부질없이 사는 것도, 쓸데없이 고뇌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상으로 바뀌었다.

벨로 이전에 쓰여진 처음 3개 악장은 1895년 3월 4일, 베를린에서 말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에 의해 초연되었고, 곡 전체의 초연은 1895년 12월 13일 역시 베를린에서, 말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곡은 교향곡 1번에 비해서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으로 특히 금관과 타악기가 증가되었고 소프라노, 알토 독창, 혼성합창도 필요하다. 전체 연주시간은 약 80분.

이번 무대를 위해 연세대학교와 미국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ka Opera Award를 수상한 소프라노 강혜정, 경북대학교와 이탈리아 베스까라 Luisa D'Annuncio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정화가 솔리스트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하는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53년에 창단된 이후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10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뉴질랜드의 오케스트라들을 초청하는 등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후쿠오카를 널리 알리고 있다.

- 관람료 R석 10,000원·S석 7,000원·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0 크리스마스 캐럴 & 베토벤의 합창만을 위한 합창 심포니 No.9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0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합창단이 12월 21일 '2010 크리스마스 캐럴 & 베토벤의 합창만을 위한 합창심포니 No.9'로 2010년 마지막 무대를 펼친다.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김강규 지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반주로 크리스마스 시즌 널리 연주되는 캐럴 모음곡과 송년시즌의 대표곡인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으로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1부에서는 It's a Christmas!(크리스마스다)라는 타이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소나무야' 등의 합창 크리스마스 소품과 11월 특별 연주회 '오픈리허설-합창의 자격'에서 큰 박수를 받은 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으로 구성된 앙상블 에피소드가 들려주는 아카펠라 크리스마스 'I wonder as I wander' 'Let us gather hand in hand', 짐 테일러의 합창을 위한 관현악곡인 크리스마스 캐럴 조곡(Christmas Carol Suite)이 무대에 오른다.

2부 무대는 '합창만을 위한 합창심포니'로 송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를 부산시립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연합합창단을 구성, 특별한 하모니를 들려준다. '합창만을 위한 합창심포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 무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유명 솔리스트와 합창의 조합이 아닌 합창과 합창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로, 객석에서만 즐기던 청중들이 무대위의 합창단으로 대거 참가, 시민합창단으로 감동을 경험한다. 화합의 합창 무대를 위해 특별히 평소 합창에 관심을 가져온 2010년 시민합창교실 수료생들이 11월부터 주 1회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연습을 진행, 200명의 시민합창단 주인공으로 2010 송년음악회 전체 대합창의 대미를 장식한다.



수석지휘자 김강규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앙상블 에피소드/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



- 관람료 R석 10,000원·S석 7,000원·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세계 각지의 음악 비평가들로부터 최고의 앙상블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가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해 부산연주회를 갖는다.

한국인을 주축으로 세계 8개국 출신의 젊은 최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세종솔로이스츠는 1995년 줄리어드 음대 강효 교수의 지도 아래 창단된 이래 카네기홀, 링컨 센터의 앨리스 텔리홀, 케네디센터, 런던 카도간홀, 파리 살 가보, 일본 산토리홀, 중국 베이징 중앙세기극원, 타이완 국립예술극장 그리고 라비니아의 '떠오르는 스타' 시리즈 등 국제적인 무대에서 350여회가 넘는 연주로 청중을 매료시켜 왔다.

세종솔로이스츠는 뛰어난 연주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인 한국인 작곡가 Earl Kim의 작품을 뉴욕 및 아스펜 음악제에서 초연했으며, 미국의 저명한 음악제인 말보로 음악제에 'Earl Kim 장학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 강석희가 작곡한 '평창의 사계'를 파리 살 가보, 런던 카도간 홀, 중국세기극원, 뉴욕 카네기홀 등의 세계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한 세종솔로이스츠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관 개관 기념식',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뉴욕시가 선정한 연주자로 UN에 초청되어 공연한 바 있다.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는 미국 공연 라디오 프로그램인 '오늘의 공연'으로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고 2003년 11월에는 이 프로그램이 선정한 '젊은 상임 예술가'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런던 타임즈> 등 세계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현악 앙상블' '놀랄 만큼 뛰어난 앙상블, 빛나는 명연주'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는 2003년 KBS 해외동포상 예술부문을, 2009년 제 3회 대원음악상 특별공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아스펜 음악제'의 상임 실내악단으로 활동한 세종솔로이스츠는 2004년 이후로는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상임 실내악단으로 매년 여름 참가하고 있다. 음반으로는 PASSION(Universal, 2008), 비발디<사계>(Naxos, 2006), Sejong plays Ewazen(Albany Records, 2003)이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코렐리의 '크리스마스 콘체르토 사단조'를 비롯해 비발디의 '사계' 중 바이올린 콘체르토 바단조 '겨울',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크리스마스 캐롤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음악을 선물한다.

- 관람료 R석 40,000원·S석 30,000원·A석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2010 송년음악회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 7대 수석지휘자 김철호와 함께 2010년을 의욕적으로 출발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제 155회 정기연주회로 2010년 마지막 무대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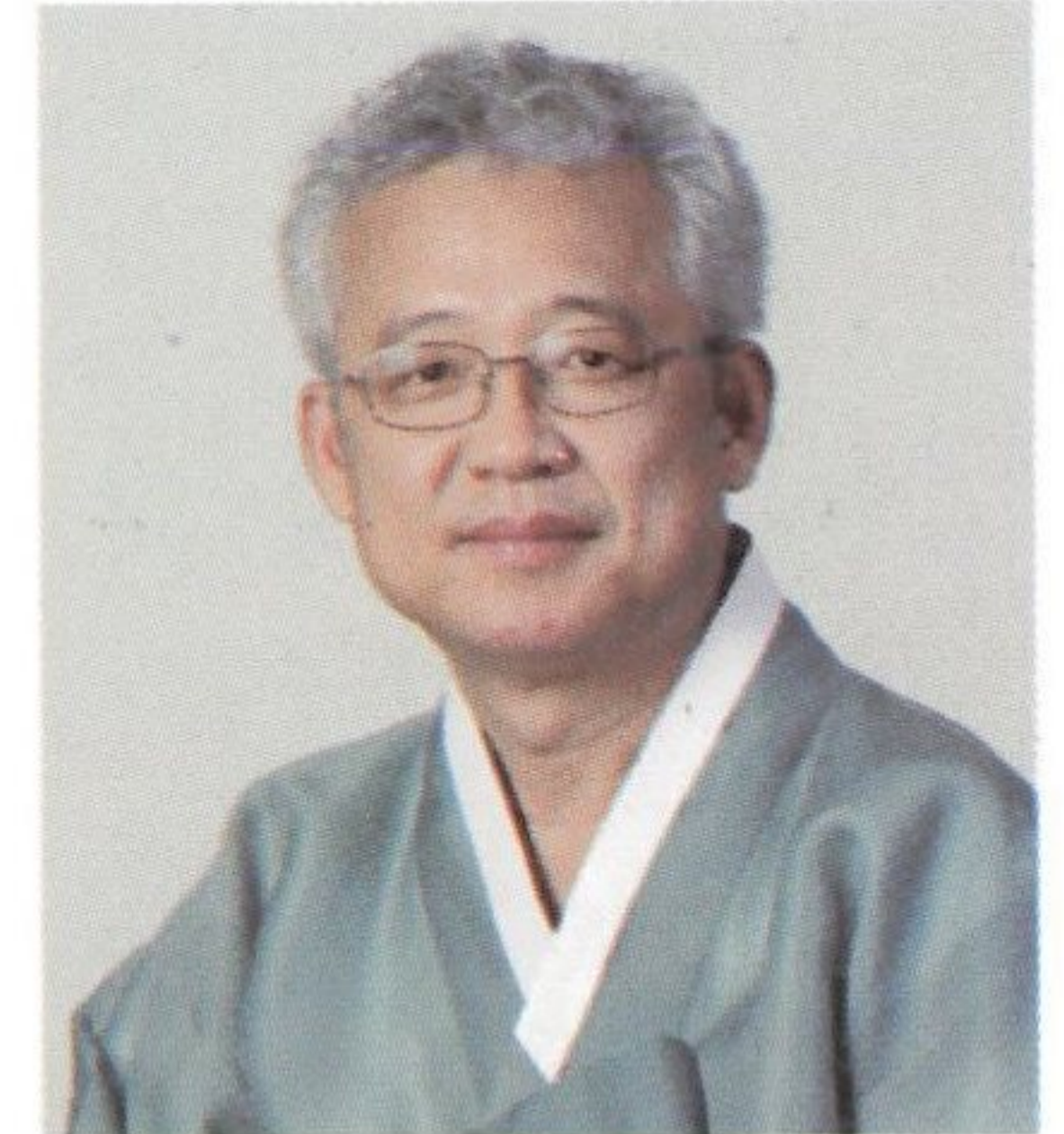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경기민요 명창 이호연, 어름산이 권원태 등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우리음악의 참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열어준다.

1부는 이경섭 작곡 '공놀이'로 연다. '공놀이'는 2006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 위촉곡으로 발표된 곡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찾듯이 전통문화의 발전과 도약을 기원하는 창작곡이다. 공놀이는 특히 힘찬 태평소의 선율과 타악기의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진 경쾌한 선율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공놀이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캐럴, 국악관현악과 함께 하는 오카리나 협주곡 '엘콘도로 파사' '겨울여행' '노스탈지아 오브 차이나'로 우리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오카리나는 중국 상해, 일본 후쿠오카, 북해도에서 독주회를 가지며 오카리나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근이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들려준다.

2부 무대는 민속음악의 깊은 성음을 접할 수 있는 이호연 명창의 경기민요로 시작된다.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이호연 명창은 제 10호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문 장원을 비롯해 제 2회 KBS 서울국악대경연대회 금상, 제 5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KBS 국악대상, 세계문화예술지도자 대상 등을 수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교육조교로 우리소리를 전승하고 있다. 경기민요는 서양의 장조와 비슷한 평조로 된 가락이 많아 깨끗하고, 경쾌하며 음 빛깔이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맑고 깨끗한 창법으로 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줄타기를 연기한 어름산이 권원태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단원들이 출연,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제 1회 세계줄타기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권원태원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단원으로 남사당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름산이 권원태를 비롯해 서종현, 주병언, 윤정민(버나놀이), 김정주, 이주용, 김태훈, 최원민, 윤상연, 진형길(풍물놀이), 한용섭(12발), 천성대(태평소) 등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원들이 높이 2.5m에 길이 15m의 줄을 타는 어름산이의 기예, 재담, 버나잡이의 재주와 풍물놀이로 흥겨운 송년무대를 열어준다.



수석지휘자 김철호



어름산이 권원태



경기민요 이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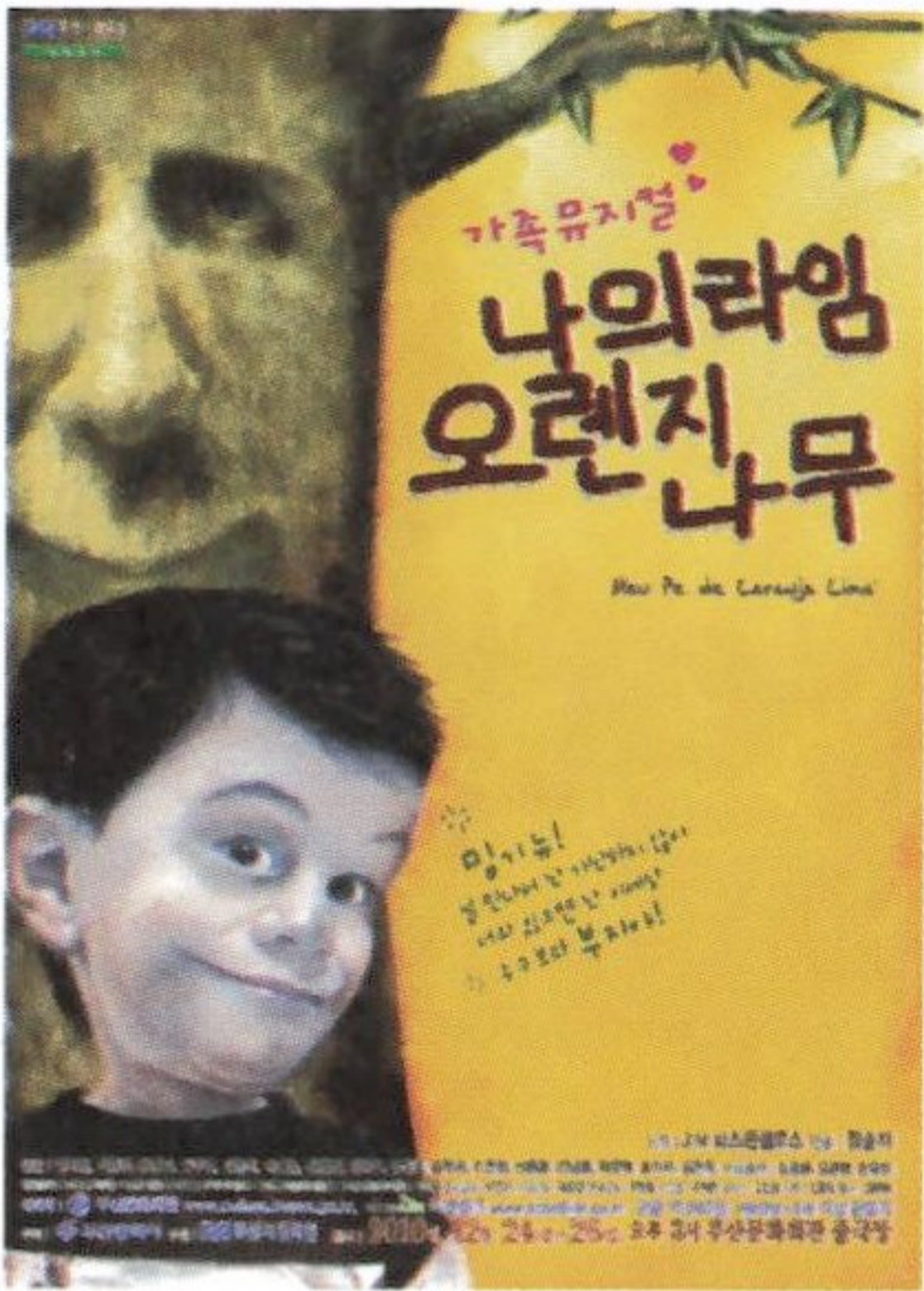


오카리나 박종근

- 관람료 R석 10,000원·S석 7,000원·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2월 24일-26일 금-일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망기뉴!

널 만나서 난 기쁘니까! 널 만나지 않으면 난 이 세상 누구보다 부자야!

부산시립극단이 12월, 2010년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담은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는 브라질의 상파울로 인근 작은 도시 방구에 사는 한 철부지 어린 아이 제제가 가난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간직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다. 각박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개구쟁이 소년 제제는 누나, 라임오렌지나무, 학교 선생님, 뽀르뚜까 등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간다. 가족들에게 말쑥꾸러기 취급을 받는 제제는 라임오렌지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어 새 친구로 삼고 자신의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에 눈을 뜨고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한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는 부산시립극단이 2001년 제 10회 정기공연으로 한 차례 무대에 올려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초연 당시 1968년에 발표된 작품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음악, 춤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현대적 색깔도 덧붙여 호평을 받았다. 공연 10년 만에 다시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연출을 맡은 정순지는 소년의 꿈과 환상이던 사랑의 대상이 현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상처받는 제제의 성장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줄 계획이다.

부산시립극단 창단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연출가 정순지는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부두연극단에 입단, 1992년 첫 연출작 '19 그리고 80'과 1993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히트시켜 부산연극계의 주목을 받았다. '19 그리고 80'은 당시 5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큰 성공을 거두어 큰 화제가 되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는 1993년 부두연극단에서 정순지 연출가 자신의 연출로 무대에 올린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극단 단원 염지선이 제제를, 유성주가 제제의 어른 친구 뽀르뚜까, 이혁우가 거리의 가수 장팔도로, 이현주가 제제의 엄마, 선생, 황창기가 아버지를 맡아 열연한다.

- 원작/J.M 바스콘셀로스 'Meu Pe de Laranja Lima'
- 예술감독/김광보 • 연출/정순지
- 작곡/이민정 • 안무/장래훈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3)

이은결 'The Illusion'

12월 25일-26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매지션 이은결이 부산문화회관 재개관을 기념해 12월 25일과 26일 부산 시민들과 만난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 수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라스베거스에서 공연을 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매지션 이은결은 마술을 Magic으로, 마술쇼를 Magic Concert로 승화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공연 아이콘을 개척하며 강렬한 카리스마와 화려하고 깔끔한 무대 매너로 마술공연을 우리 공연계에 정착시켰다. 이은결이 처음으로 시도한 '매직콘서트'는 기존의 마술쇼와는 차별화된 공연 브랜드로 스토리가 있는 감동적인 마술공연으로 매 공연마다 큰 박수를 받아 왔다.

이번 'The Illusion' 무대는 11월 7일 충무아트홀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제주, 마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투어공연으로 펼쳐진다. 11월 7일 첫 공연 후 이은결은 군 제대 후 3년 만에 돌아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마술사의 면모를 보여주며 관중들을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한 마술 세계로 인도했다.

뮤지컬, 마임, 미디어 아트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접목된 복합적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The Illusion'은 14년간의 탄탄한 구성과 화려하고 기발한 연출, 그동안 쌓아왔던 거대한 스케일 등 이은결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 2010년 연말 공연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The Illusion'은 총제작비 20억, 대형 콘테이너 10개 분량의 마술 도구, 구상기간 10년, 리허설기간 3년이 소요된 무대로 이은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

1부는 눈으로 보는 마술, 2부는 가슴으로 보는 마술로 무대를 구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타클한 마술이 이어지는 1부에는 이은결과 해군홍보단에 동반 입대해 화제를 모은 군필조 앵무새 '가지'가 1부 마술쇼의 대미를 장식한다. 2부에서는 재기발랄 무한상상력의 어린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코너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환상극 '스노우맨' 등 곳곳에 마술이 숨어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데이비드 커퍼필드의 메인 컨설턴트이자 라스베거스 최고의 매직 디렉터인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돈 웨인'이 이번 무대에 함께 참가, 완성도 높은 무대를 펼친다. 돈 웨인은 자유의여신상이 사라지는 마술, 만리장성 통과, 나이가라폭포 탈출, 오리엔트 특급열차가 사라지는 마술, 그랜드캐년 공중부양, 앨커트래즈 탈출 등 마술의 역사에서 가장 멋진 그랜드 일루션을 창조해냈다.



매지션 이은결

- 관람료 R석 77,000원·S석 66,000원·A석 5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2010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이동신



바이올린 임병원



베이스 함석헌



가수 해바라기

2010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11년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은 부산문화회관 '2010 제야음악회'가 12월 31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막이 오른다.

소중한 사람들과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음악으로 새해를 여는 2010 제야음악회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베이스 함석헌,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동래초등학교 성악부, 가수 해바라기가 출연해 2011년을 맞는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1부는 오케스트라 고유의 음색을 살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회상'의 선율을, 2부에서는 2011년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선율을 들려준다.

2010 제야음악회의 첫 무대는 차이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폴로네즈'로 연다. '예브게니 오네긴'은 러시아 문학사상 최초의 리얼리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 대본을 입힌 오페라로 푸쉬킨 특유의 민족적인 풍미와 시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다. '폴로네즈' 외 1부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이 들려주는 비탈리 '샤콘느',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가 들려주는 스비리도프 '눈보라' 중 '로망스'와 감미로운 앙상블의 주인공 해바라기의 특별무대가 마련된다.

1부 무대 후 갖는 로비콘서트에서는 재즈퀸텟 '리브레티'의 작은 음악회와 소망엽서 쓰기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매년 휴식시간에 작성한 소망엽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이듬해 11월 경 작성자에게 우송해준다. 소망엽서는 제야음악회에 쓴 자신의 소망엽서를 다시 받아보며 한해를 되돌아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석별의 정'으로 시작하는 2부 무대는 카운트다운과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2011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는 활기찬 무대를 열어준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시작으로 슈트라우스의 '기차여행' 폴카, '천둥과 번개' 폴카, 베이스 함석헌이 들려주는 오페라 '돈조반니' 중 '삼페인의 노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 '이룰 수 없는 꿈'과 동래초등학교 성악부의 '설날', '복조리'로 신년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베이스 함석헌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성악과 대학원을 수석졸업하고 이탈리아 메라노 국제 성악콩쿠르와 스페인 자코모 아라갈 국제 성악콩쿠르, 독일 쾰른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라벨의 오페라 'Das Kind und die Zauberdinge'에서 Baum, Lehnstuhl로 데뷔한 함석헌은 이탈리아 메라노 극장, 독일 할레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국립오페라단 상근단원을 역임한 함석헌은 지휘자 Giorgio Morandi, 정명훈 등과 독일의 바덴바덴 필하모닉, 쾰른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 코리아안 심포니, 일본 NHK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 관람료 R석 30,000원·S석 20,000원·A석 1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3100)

국제로타리 3660지구와 함께 하는 제 2회 심장병 어린이돕기 희망음악회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박우진



테너 엄정행



뮤지컬배우 최정원



가수 안치환



가수 마야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국제로타리 3660지구에서 12월 27일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두 번째 희망음악회를 연다.

국제로타리 3660지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지구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를 결성,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을 실

천한다.

올해는 심장병어린이 수술비지원을 위해 테너 엄정행, 뮤지컬배우 최정원,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퓨전타악그룹 공감 21, 가수 정수라, 안치환, 마야, 부산시립합창단 등 130여명이 넘는 대형 출연진이 연말 연시 훈훈한 사랑의 무대를 열어준다.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김충석



“국제로타리가 추구하는 정심과 나눔가치를 음악으로 실천하는데 뜻을 모아 준 국제로타리 3660지구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나눔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국제로타리 3660지구 회장 김충석 씨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지구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를 결성한 주인공이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박우진을 비롯해 악장 조현미 등 단원들이 지역사회봉사에 뜻을 함께 하는 국제로타리 회원들이다. 지난해 이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봉

화를 올리는 김충석 씨는 아직은 오케스트라 단장이라는 직책이 낯설지만 전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며 실천한다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매지션

이은결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 수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국내 최초로 라스베거스에서 공연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최고의 매지션 이은결이 12월 25일, 26일 부산 팬들과 만난다. 이은결은 마술을 Magic으로, 마술쇼를 Magic Concert로 승화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공연 아이콘을 개척하며 강렬한 카리스마와 깔끔한 무대 매너로 마술공연을 우리나라 공연계에 정착시킨 주인공이다. 군 제대 후 3년 만에 'The Illusion'으로 돌아온 이은결. 부산공연을 앞두고 이은결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이은결입니다. 투어 때 마다 항상 찾아가는 곳 중에 하나가 부산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Magic과 Art, Story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매직환상곡 'The Illusion'

'The Illusion'은 총제작비 20억, 대형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마술 도구, 구상기간 10년, 리허설기간 3년이 걸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부산공연은 서울공연과 같은 내용으로 찾아뵙지만 12월 25일, 26일은 특별한 날이니 더 특별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술이더라도 항상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점점 공연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아티스트 이은결

15살에 처음 마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와 어려운 형편과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말도 없고 소심해졌죠. 그 모습을 보신 부모님께서 마술 학원에 다니라고 권유하셨어요. 그게 중 3때였고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마술을 Magic으로, 마술쇼를 Magic Concert로 승화

처음에는 마술이 서커스의 일부분이나 공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벤트성이 강한데다 워낙 속임수나 사기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10년간 싸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마술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박혀있는 이미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 가기 위해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만들게 되었고, 이번 컴백무대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명 '유명한 매지션보다는 인정받는 매지션이 되자'

사람들이 저를 알고 저를 좋아해 줄수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제 마술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화려하고 깔끔한 무대 매너

마술사도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다재다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연기, 연출, 방송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방송연예과가 가장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대학은 방송연예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마술의 비밀영역이 더 이상 비밀로만 존재할 수 없는 시대

마술을 이제는 비밀, 트릭 위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연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술이 주는 환상과 꿈을 다른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동료 마술사들도 그런 마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사를 꿈꾸는 후배들은 마술만을 위한 마술사가 아닌 항상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공부도 하고 문화적인 경험도 많이 쌓아서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마술사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프로마술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마술사' 이은결의 도전

그 동안 10년간은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른 형태의 공연 그리고 저만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물과 새로운 퍼포먼스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마술사라는 이미지가 한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마술사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자체를 폭 넓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은결, 마술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술은 거대하고 특별한 것이 아닌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창한 것을 꿈꾸는 것 보다는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에서 호기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마술같은 일은 항상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만나는 'The Illusion'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제가 그 동안 해왔던 마술의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열광하실 수 있고, 2부에서는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연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쇼를 연출한 마술사 이은결이 추천하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이례적으로 승부수는 '마술'이 아닌 '환상극'이다. 12월 25일과 26일 '어떤 마술을 보여줘야 할까'를 고민해 온 14년 차 국가대표 마술사 이은결과의 행복한 만남이 기다려진다.

발이 따뜻해야 은몸이 따뜻해지는 즐거움이 있어

정일근 _ 시인, 경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사진/정일근

12월의 은현리는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제가 은현리에서 겨울나기를 위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은 ‘털신’입니다. 털신이라고 해서 진짜 털신이 아닙니다. 신발가게에서 부르는 제품이름은 방한화입니다. 몸통은 비닐이고 발이 들어가는,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부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털신이라고 부릅니다. 싸구려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고 다니면 편안하고 정감이 가는 신발입니다.

아시겠죠? 시골이나 절집에서 쉽게 구경할 수 있는 그 털신입니다. 도시의 신발점에서는 결코 팔지 않지만 시골이나, 큰 절이 있는 마을의 신발가게에서는 여전히 ‘베스트셀러’ 겨울신발입니다.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저는 10년 전 겨울엔 한 켤레에 3,00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5,000원에 샀습니다. 10년 사이 2배 가까이 값이 올랐지만 겨울을 나는데 그 신발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정갈히 사용하면 2년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털신도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용은 검은색뿐이지만 여자용은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해졌습니다.

눈길이나, 얼음길 위에서도 편안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밤마실'가는데 것처럼 좋은 신발이 없습니다. 가끔 도시에 사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 받고는 다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옵니다. 추운 아파트에서 실내화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털신은 부츠처럼, 진짜 가죽털신처럼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는 겨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죠. 겨울추위엔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이라고요.

제 글방 현관에 털신이 한 켤레 놓여져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은현리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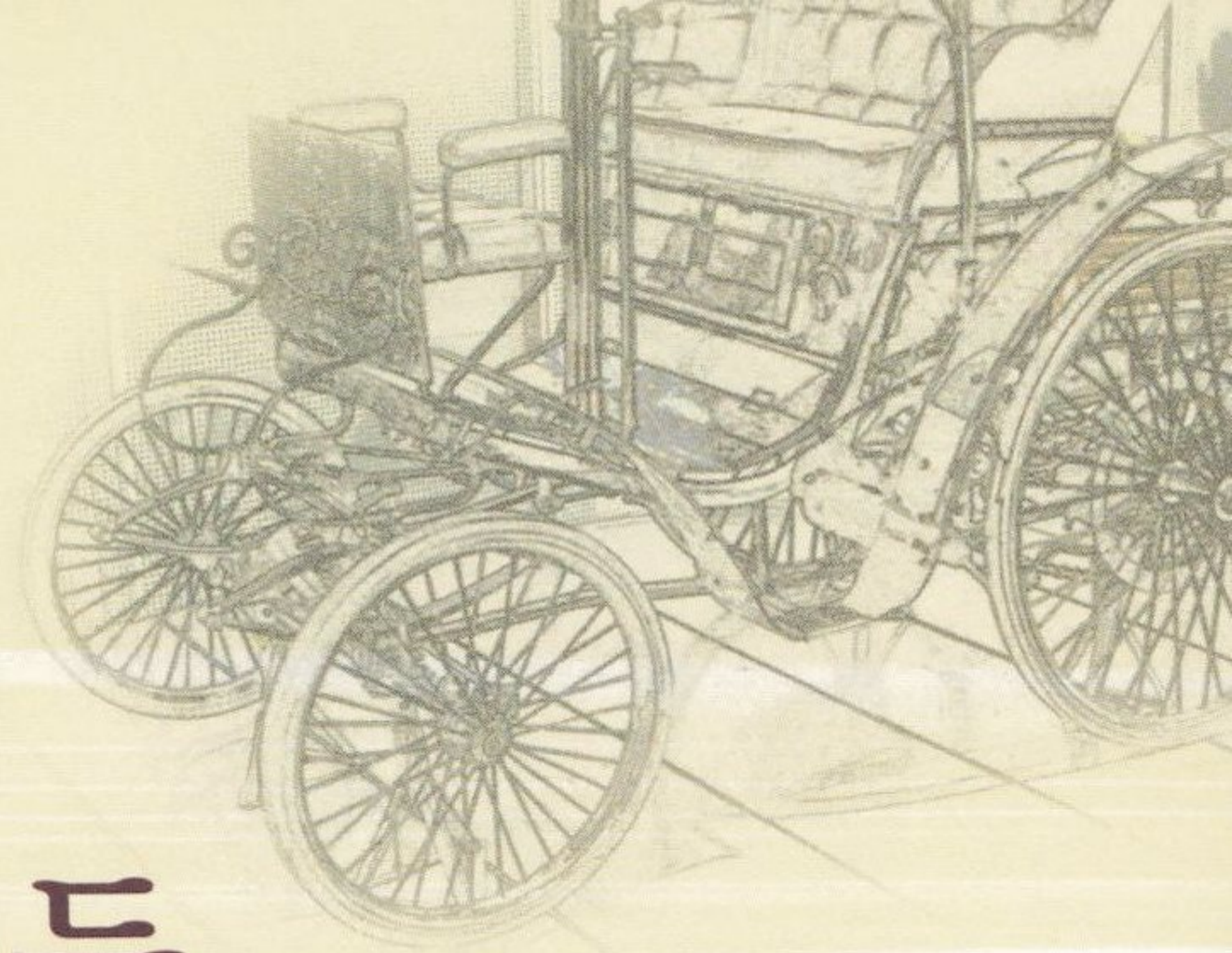
올해는 감농사가 '해결이'를 하는지 감나무가 제일 추워 보입니다. 과실이 한해는 많이 결실되고, 그 다음해에는 결실량이 아주 적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이라 합니다. 지난해 감나무마다 감이 넘쳐 12월에도 감나무가 붉은 꽃처럼 감을 달고 있었는데 올해는 가지마다 빈 손이 참 추운 모습입니다. 감나무에게도 발이 있다면 털신을 신겨드리고 싶습니다.

은현리 들판에 털신을 신고 걸어봅니다. 들판엔 떼까마귀가 돌아온 지도 오래입니다. 나그네새인 떼까마귀는 몽골 북부나 시베리아 동부에서 여름을 나고 은현리로 돌아옵니다.

지난 2월에 그곳으로 날아가 겨울이면 은현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나 되는 떼까마귀들이 왜 그 먼 곳까지 돌아갔다 다시 날아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 몸통으로, 저 날개로 가고 오는 아득한 하늘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올 겨울도 떼까마귀가 은현리 빈 들판을 지킬 것입니다. 텅 빈 들판이 저들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비행으로 하여 은현리가 외로운 겨울풍경으로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은현리에 다시 봄까치꽃이 필 때까지,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떼까마귀는 추운 겨울, 시인의 좋은 친구로 있을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시인은 털신을 신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눈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 올 첫눈입니다. 첫사랑, 첫 만남, 첫 키스란 말처럼 당신도 첫눈이란 말에 가슴이 떨 것입니다. 혹시, 첫눈 오시는 날 당신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당신의 털신도 같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일준*



세계를 바꾼 독일의 발명품들

Made in Germany

김지혜 _ 독일 포스담대학교 음악교육과 박사과정

“모든 창조물은 모험이다 -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 (1742-1799)”

독일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종족들이다. 새 가구를 장만할 때 우리 같으면 배달에서 조립 서비스는 판매자의 기본 서비스 사항인데 그네들은 그렇지 않다. 구매자가 직접 운반해서 집에서 하루종일 설명서를 펴놓고 푹푹거리면서 조립하고 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아이들도 동참을 한다. 장롱, 책상은 물론 부엌 싱크대 조립, 심지어 마루 바닥까지도 구매자가 직접 깎는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여자들은 신발을 사고 남자들은 공구세트를 장만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물론 여자들도 여기 독일에

서는 웬만한 것들은 직접 수리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독일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웬만한 ‘공사’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이유는 물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조립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고품을 사다가 이리저리 직접 수리하거나 개조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문화 때문인지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국이기도 하다.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자동차, 전자카드 등 세상을 진화시키는 물건들을 매일 사용하면서 과연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발명했을까하는 의문을 한번씩은 던져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꾼 큰 발명의 혁명은 작지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작은 아이디어가 하나의 창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땀, 끈질긴 의지와 모험 정신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필요하다.

발명품 제조국 선두국인 독일의 주요 발명품을 꼽아보니 A~Z까지 정말 다양하다. 독자들은 아마도 “아니, 이것들이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Airbag 에어백

1971년 / 메르세데스 벤츠사 발명



Airbag 에어백

안전벨트와 더불어 자동차 사고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인 에어백은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백만분의 1초 안에 완전히 작동을 해야한다. 차량에 에어백 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최초의 아이디어는 이미 1960년대에 있었지만 테스트에 성공한 에어백은 메르세데스 벤츠사에 의해 1971년도에 탄생했다.

전자 센서에 의해서 충돌이 감지되면 초미니 로켓 작동 장치가 순식간에 가스를 분출해서 가방을 부풀리게 된다. 이 때 유출된 엄청난 압력이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에어백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이후 새로운 물질로 대체되고 새로운 압착가스와 발화기술을 이용해서 1981년에야 비로소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특별 에어백을 장착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지금까지 표준화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에어백은 이제 새 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포함될 만큼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Aspirin 아스피린

1897년 / 펠릭스 호프만 발명



Aspirin 아스피린

머리가 지끈 지끈 아프고 으슬으슬 오한이 나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혹은 진통제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약이 바로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의 정식 화학 명칭은 아세틸살리실산으로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을 가공한 것인데 스피리아라는 버드나무에서 처음 살리실산을 얻었기 때문에 성분 이름의 ‘아’와 버드나무 이름 ‘스피리아’를 조합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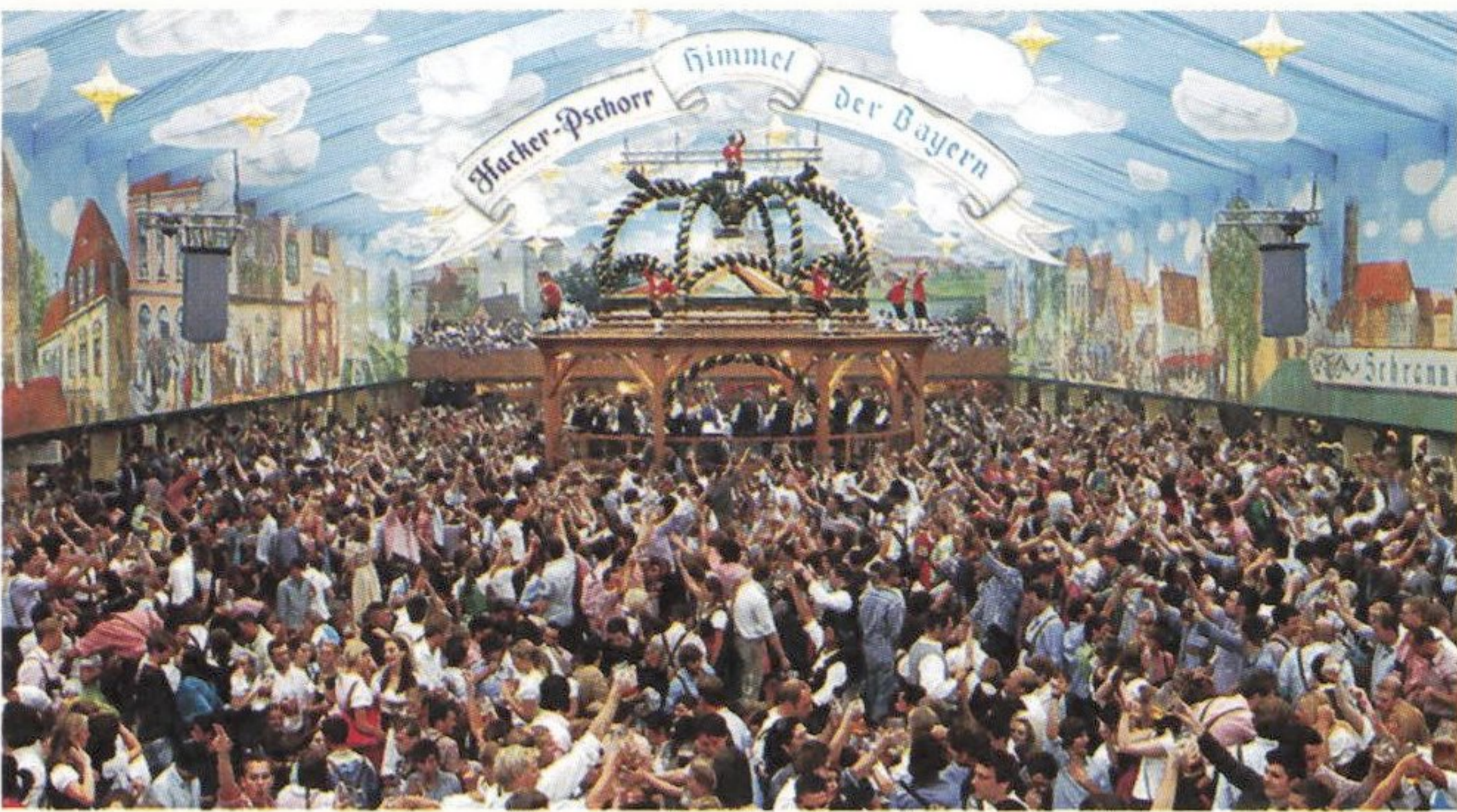
1897년 독일의 바이엘사가 가루로 된 아스피린을 처음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토마스만이나 카루소같은 저명인사들은 ‘기적의 흰색 가루약’ 아스피린의 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스피린은 당시 날개돋힌 듯 팔렸다. 그리고 1915년부터 현재의 알약 형태로 제조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엘사는 미국의 한 회사와의 특허권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5만 톤의 아세틸살리실산 성분 약 중에서 1만 2천 톤이 바이엘사에서 제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스피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2년 영국의 약학자 존 배인은 아스피린 연구로 노벨상을 획득했는데, 이 작은 알약이 품고 있는 효능은 마치 퍼내도 계속 물이 나오는 샘과도 같아서 매년 약 3천 5백건의 의학 보고서가 아스피린의 숨은 효과를 찾아서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롭게 알려진 아스피린의 효과로는 기존의 해열제, 진통제, 항류머티즘제 이외에도 심장 발작과 뇌출혈, 장암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지혈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Bier 맥주

1516년 / 대공 빌헬름 4세, 루드비히 10세 발명



Bier 맥주(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풍성한 거품과 함께 시원하게 한잔 쪽 들이기면 그 날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맥주.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의 역사는 기원 전 약 3천년에서 3천 5백년 전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도 맥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중세 시대에는 맥주에다 다른 곡물은 물론 뱀껍질, 소의 쓸개, 역청 등 정체가 수상하기 짝이 없는 물질들을 마구 넣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취기를 더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주의 대굴욕'은 1516년 4월 23일에 현재 바이에른 주의 대공 형제였던 빌헬름 4세와 루드비히 10세에 의해서 저지된다. 이들 대공은 맥주 법령을 제정해서 보리와 맥주용 홉, 그리고 물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물질도 첨가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금지했고 이를 어길시 극형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법령으로 인해서 주식인 빵의 원료인 밀을 보호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더 이상 맥주의 성분을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이 맥주 법령은 지금까지 유효할 뿐 아니라 세계 맥주 제조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16세기에 성행했던 좋은 맥주 감별법으로는 의자 위에 맥주를 넉넉하게 부은 후에 두 시간 동안 그 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을 때 엉덩이에 의자가 끈적하게 붙어있으면 맥아(엿기름)가 충분히 들어있는 품질 좋은 맥주라고 여겨져서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었다.

Car 자동차

1886년 / 칼 벤츠, 고트립 다임러 발명



벤츠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세발 자동차

마침내 모빌의 시대가 도래했다. 1886년 칼 벤츠와 고트립 다임러는 먼 곳까지 자유롭게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들은 모터로 움직이는 세발 자동차와 마차를 세상에 공개했다. 1888년에 벤츠의 부인 베르타는 세발 자동차를 타고 첫 장거리 운행을 시도했는데 중간에 약국에서 연료를 공급해야 했고 비스록 리그고인에 있는 이 약국은 덕분에 세계 최초의 주유소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인들은 시끄럽게 웅웅거리면서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이 이상한 기계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시끄럽고 지나치게 빠르고 아주 위험하기' 때문이었다.(당시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8킬로미터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뒤엎고 자동차는 1920년대에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C-Leg 인공 지능 의족

1997년 / 오토 북 헬스케어 유한 회사 발명

C-Leg이 정형외과 세계학술회에 소개됨과 동시에 보행 장애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되었다. 인공 지능 마이크로 센서를 통해서 보행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리고, 내리막길은 물론,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자전거 타기와 골프 치기 등의 운동도 아무런 어려움없이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1초에 50회에 걸쳐 센서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실시간으로 보행을 감지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 의족은 최첨단 기능 뿐 아니라 리빙 디자인상까지 수상할 만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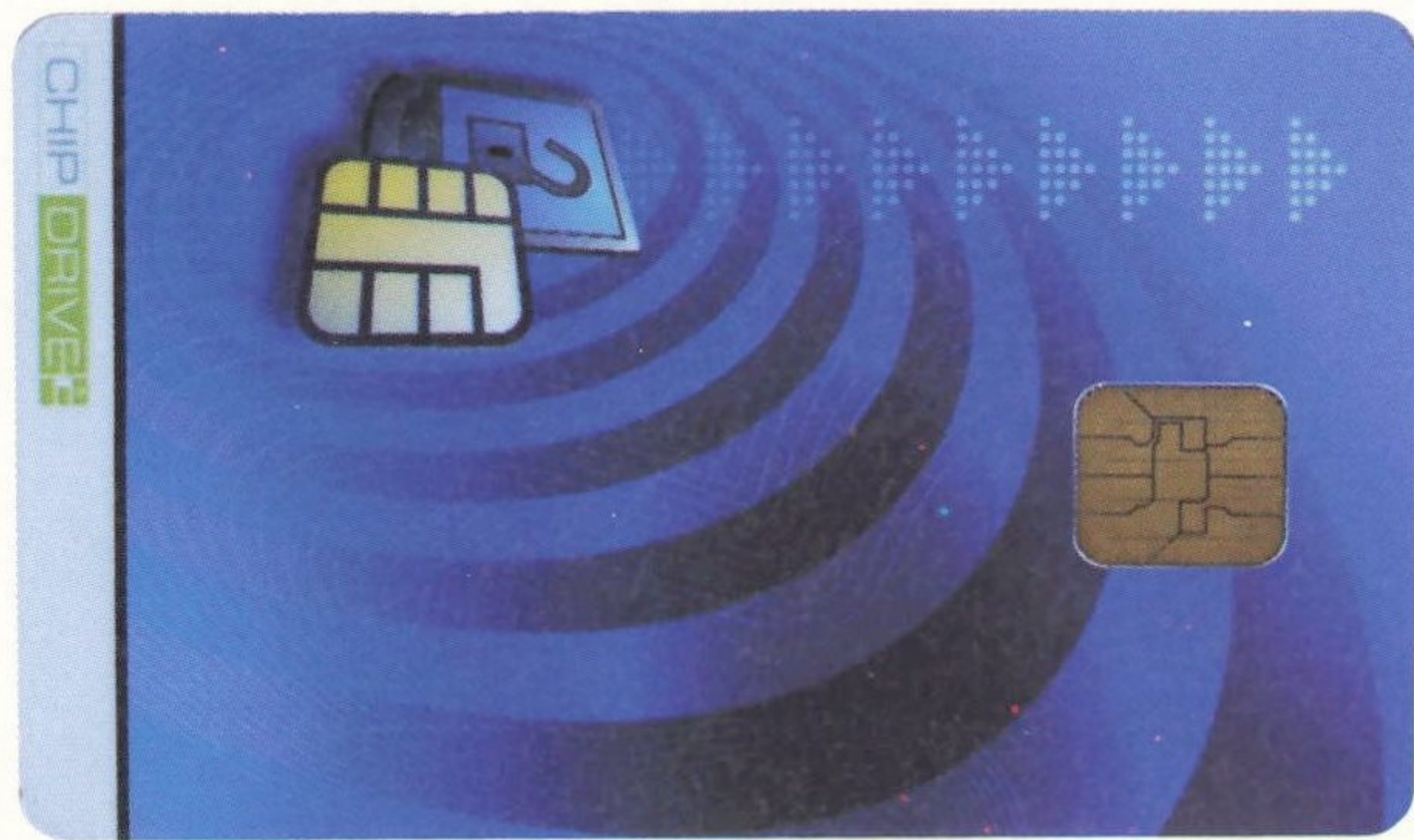


시렉-인공 지능 의족

Chipcard 칩 카드

1969년 / 유어겐 데프로프, 헬무트 그뢰트루프 발명

1960년대에 대형 금융 기관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플라스틱 카드 한장으로 현금을 대체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상상을 했다. 1968년 유어겐 데트로프와 헬무트 그뢰트루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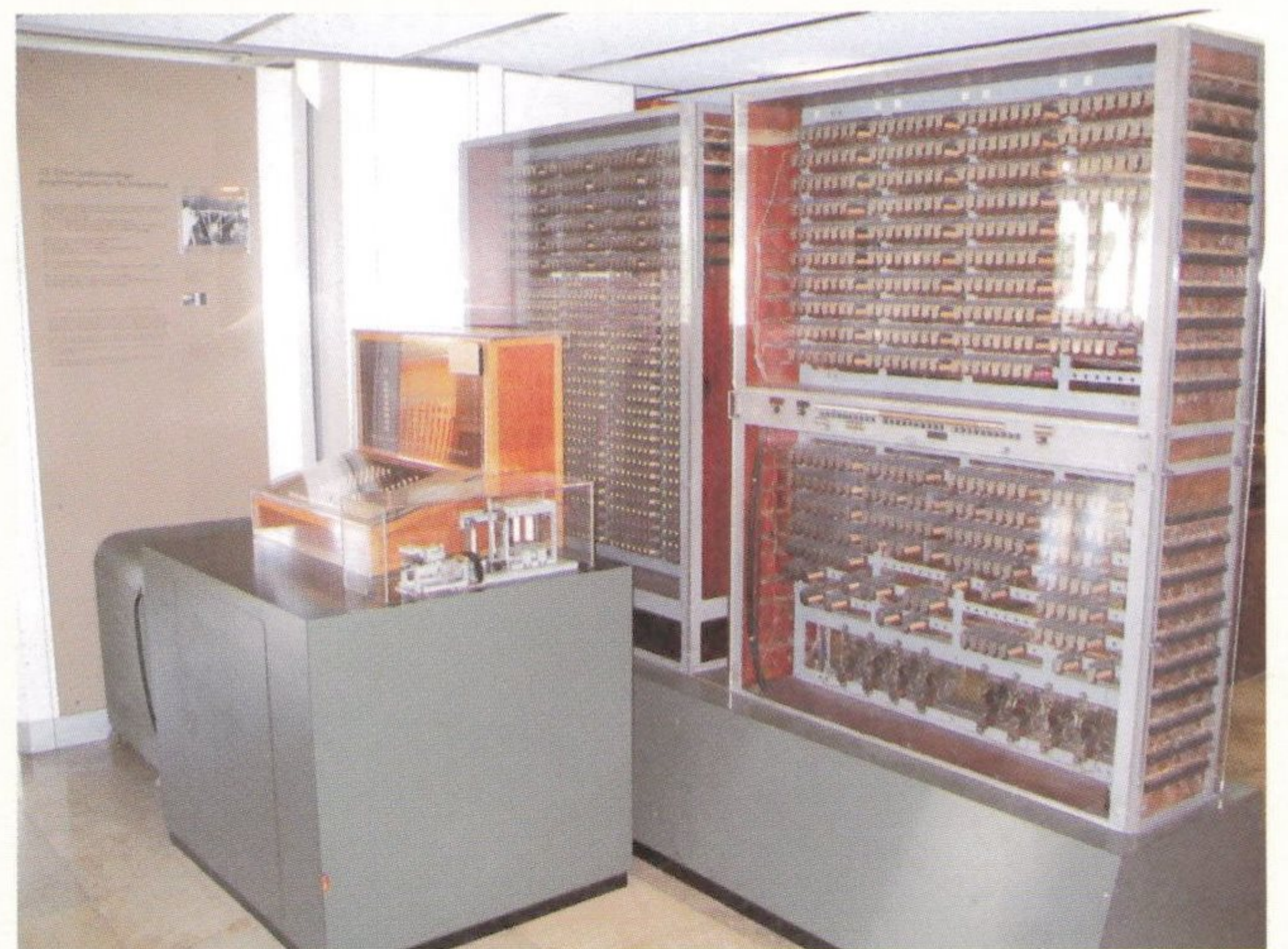
Chipcard 칩 카드

이 상상을 현실화 시켜서 통합 회로가 부착된 카드를 만들어 특허 신청을 냈다.

전화카드, 은행 현금 및 크레딧 카드, 병원 카드, 교통 카드는 물론 최근에는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까지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칩카드는 정보 저장을 담당하는 아주 주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Computer 컴퓨터

1941년 / 콘라드 추제 발명



추제의 컴퓨터 Z3 오리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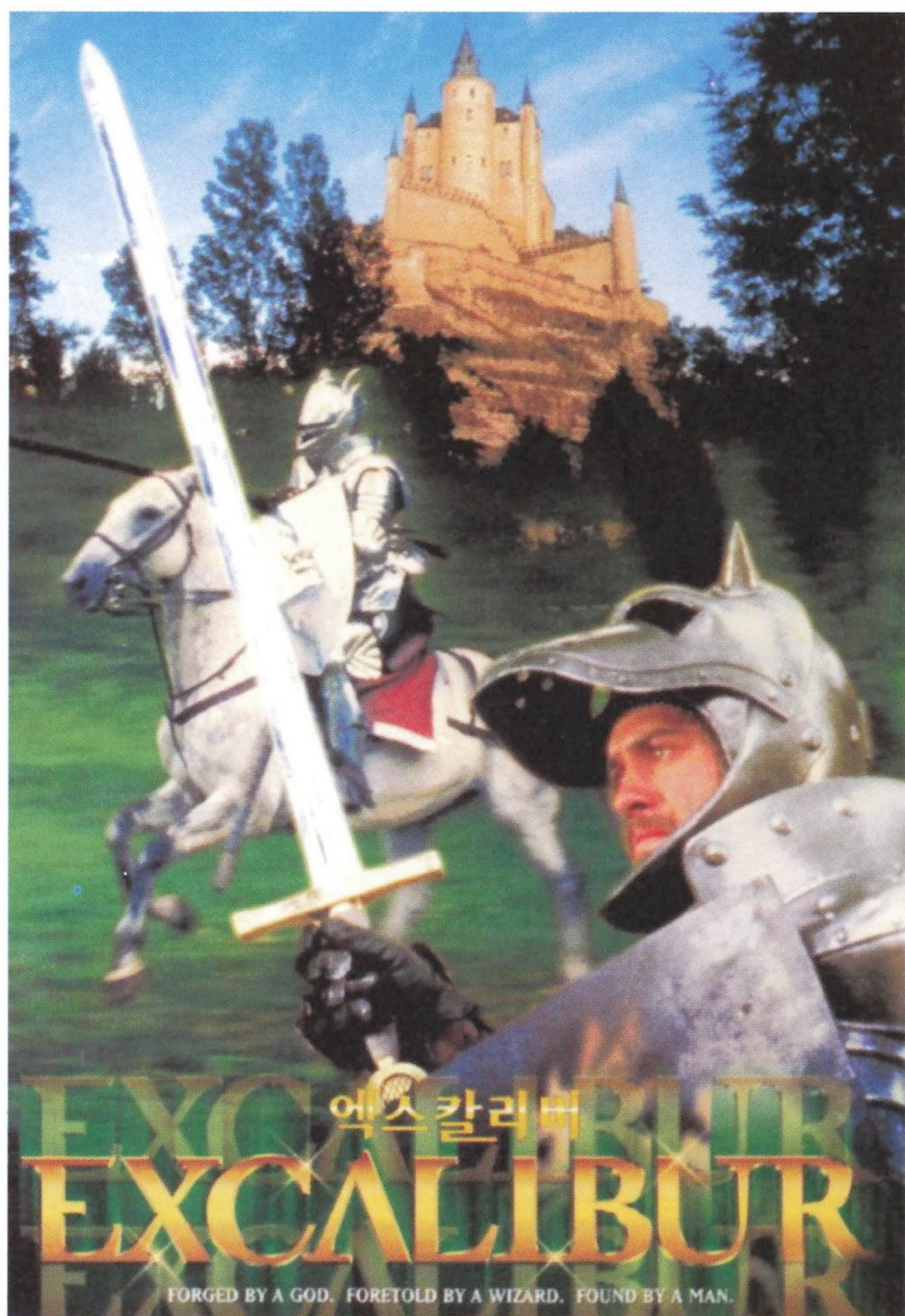
1년에 4천 5백만대가 판매되는 컴퓨터가 만약 사라진다면 현대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마치 공기와도 같이 변해버린 컴퓨터는 누가 최초로 만들었을까? 빌 게이츠? 천만의 말씀.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일 뿐이다.

최초의 컴퓨터는 1941년 베를린의 엔지니어인 콘라드 추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는 현대 컴퓨터의 최초 모델이라 할 수 있는 2진법 '디지털 계산기'를 만들어냈는데 2,600개의 계전기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밍도 가능했다. 추제가 컴퓨터를 고안하게 된 이유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너무나도 진저리나 해서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전자 계산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추제는 그의 기계를 Z3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전의 실험작인 Z1, Z2 시리즈에 이은 것이다) 지금의 컴퓨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웠고 거의 장롱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다. 불행히도 1943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받아서 오리지널은 파괴되었고 이후 복원해서 전시중이다.

한편 1944년 미국의 에니악이 만든 컴퓨터를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간주하는 이들도 있는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2진법 체계에 튜링의 완벽성이 갖춰진 추제의 컴퓨터와는 달리 에니악은 파이프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자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추제의 발명품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인정되고 있다.

영화 EXCALIBUR 엑스칼리버

이동신 _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중세를 배경으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그리고 성배의 전설이 어우러진 존 부어만 감독의 영화 '엑스칼리버'.

중세를 배경으로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그리고 성배의 전설이 어우러진 이야기는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981년 존 부어만 감독의 <엑스칼리버>는 가장 유명하다. 6세기경에 켈트인의 영웅으로 활약했던 아더왕은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격파하고 켈트의 영국지배권을 지킨 역사적인 인물이다. 세상의 모든 전설이 사람들의 입을 거쳐 전해지면서 슬한 이야기들과 혼성 모방되며 골격이 세워지고 살이 붙는 것처럼 영화 <엑스칼리버>의 기본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더왕의 전설 역시 같은 경로를 밟으며 오늘날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 영화에는 두 작곡가의 음악이 나오는데 바로 독일 낭만파의 거장이자 음악극의 창시자인 리하르트 바그너와 현대 작곡가인 칼 오르프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역시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중 제 1곡 <오, 운명의 여신이어>가 흐르는 가운데 말을 타고 질주하는 은빛 갑옷의 기사들일 것이다. 독일작가 루이제 린저의 남편이기도 했던 그의 대표작 <카르미나 부라나>는 마치 이 영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처럼 절묘하게 어울린다.

1803년, 독일 뮌헨의 베네딕트 보이에른 수도원에서 발견된 <카르미나 부라나>는 <보이에른의 시가집>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10세기에서 13세기경 유랑탁발승이나 음유시인들이 노래한 시가집인데 내용은 술, 여자, 사랑, 봄, 축제, 도박 등에 대한 것으로 이 방랑자들은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며 토론과 풍자, 훈계와 논쟁을 즐겨했다.



영화 '엑스칼리버'에서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는 거대하게 펼쳐지는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중세의 역동성은 단순한 리듬의 집요한 반복인 오르프의 음악을 통해 표현된다.

시가집은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1부에는 도덕적 풍자시, 제 2부에는 연애시, 제 3부에는 술잔치의 노래와 유희의 노래, 제 4부에는 종교적 내용이 담겨 있다. 칼 오르프는 이 시가집에서 24곡의 가사를 골라 독창과 합창으로 구성된 극음악 형식의 칸타타를 새롭게 작곡했고 이 곡이 크게 성공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카르미나 부라나〉의 힘은 리듬의 특별함에 있다. 화음이나 선율을 단순화하고 몇 개의 음에 특징적인 리듬을 붙여 반복하는데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놀라운 역동성이 느껴진다. 지금도 현대적이면서 대단히 중세적인 독창적인 곡이다. 이 작품의 첫 곡인 〈오, 운명의 여신이여〉가 이 영화에 나온다. 바위에 박혀져 있던 마법의 칼 엑스칼리버를 뽑아 왕으로 추대된 아더가 기사들을 모아 말을 타고 성을 공격하러 가는 장면이다.

오, 운명의 여신이여,
 그대는 늘 변하는 달과 같이
 떠오르다가 기우는 구나.
 알곳은 운명은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우리를 대한다.
 우리의 욕망을 희롱하고
 얼음과 같이 녹고 마는
 권력과 빈곤을 주기도 한다.

칼 오르프의 음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바그너의 방대한 음악극 〈니벨룽겐의 반지〉 중 제 4부 〈신들의 황혼〉 중에 나오

는 〈지그프리트의 장송행진곡〉도 이 영화의 다른 배경음악으로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한다.

제 1부 〈라인의 황금〉, 제 2부 〈발퀴레〉, 제 3부 〈지그프리트〉, 제 4부 〈신들의 황혼〉 이렇게 4부작으로 구성된 〈니벨룽겐의 반지〉는 하루에 한 편씩 모두 나흘에 걸쳐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다. 서양음악의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음악극을 만든 사람은 바그너가 유일하다.

이 영화에서 바그너의 곡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마법의 칼 엑스칼리버의 권위와 신비로움을 나타내는데 손색이 없다. 바그너의 웅장한 관현악 효과와 금관악기의 찬란한 음색은 압권이다. 〈지그프리트의 장송행진곡〉은 영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곡이며 또한 엑스칼리버의 출현과 퇴장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바그너의 음악세계가 신화와 전설로 가득하여 일상적인 현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더왕과 같은 영웅이나 엑스칼리버와 같은 마법의 칼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 그의 음악이 어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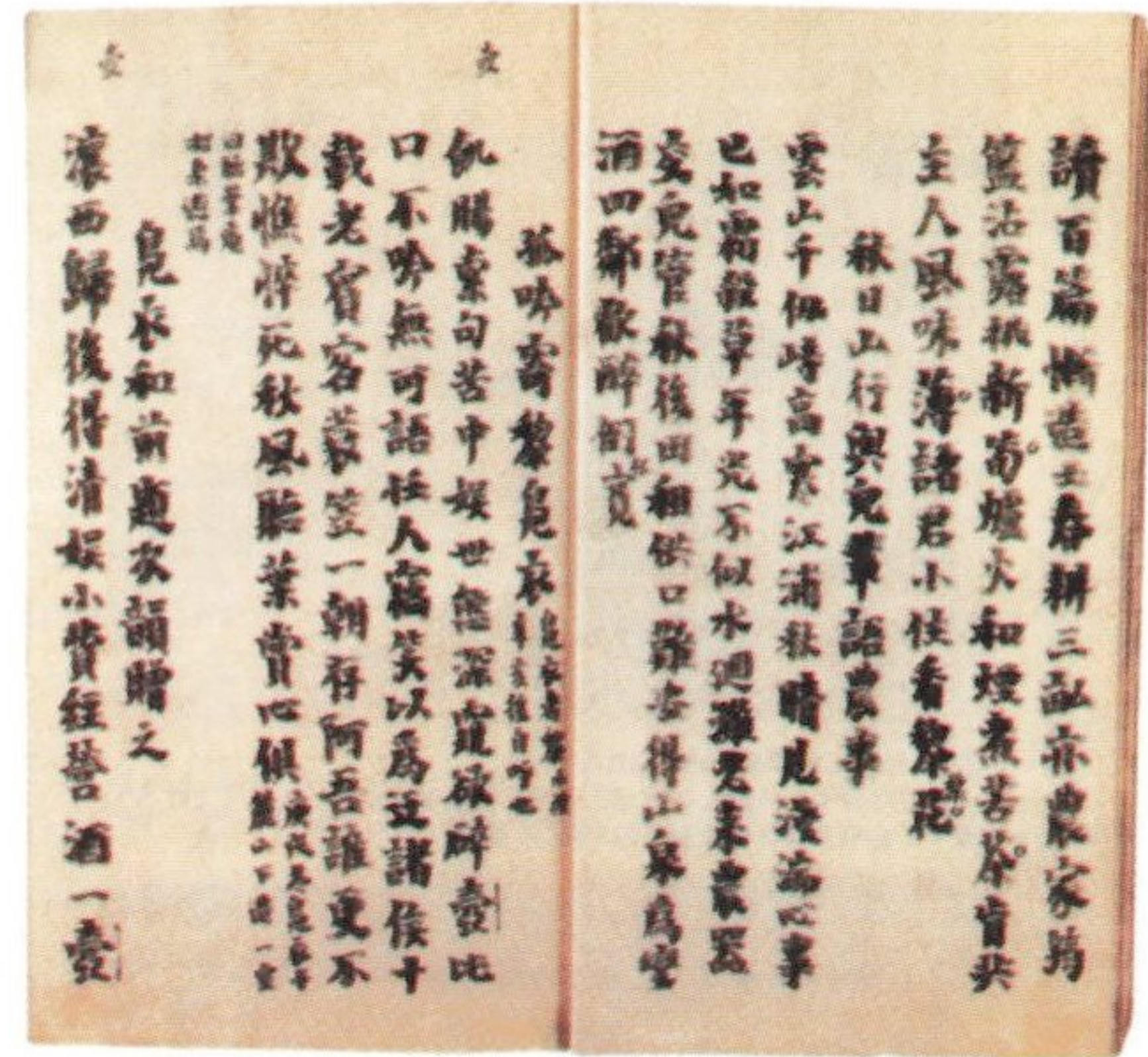
영화 〈엑스칼리버〉에서 사용된 바그너와 오르프의 음악은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는 거대하게 펼쳐지는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나타나고, 중세의 역동성은 단순한 리듬의 집요한 반복인 오르프의 음악을 통해 표현된다. 대조를 이루는 두 작곡가의 음악은 이렇게 한 영화에서 만나 한 세계를 그린다.

베이징 살이

김남희 _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57세 신랑과 먹을 가는 18세의 아내



〈차산음관 시초〉3, 1917년(55세) 이전

바이스가 베이징으로 가서 살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끝이 나지 않는 병란 때문이었다. 55세가 된 바이스는 다섯 차례의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난데없이 병란이 이어지고 군대가 이동하고 교전이 계속되더니 도적 때가 들끓었다. 관리들은 세금을 걷어가고 도적들은 돈을 뜯어가니 나날이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다. 고향에서 살만한 집은 모두 피난을 가고 몇 집 남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베이징에 가면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 판산의 전갈을 받았다. 바이스는 곧 짐을 챙겨 부모님께 하직인사를 올렸다.

베이징에 도착하자 그곳에서도 병란이 일었다. 그는 천진으로 잠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베이징의 법원사(法源寺) 경내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류리창 난즈푸에 그림과 도장의 가격표를 걸어놓았다. 당시의 유명한 화가 첸스정이 그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 때부터 많은 시인, 화가, 서예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장 출신이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니 사람들이 쭈군댔다. 신분이 천하다, 시가 형편없다, 그림에는 서권기(書卷氣)가 없다 등등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그래도 그는 의연하게 이렇게 읊조렸다.

그대 맘껏 벗기게 내버려두니,
바람이 불어오니 온몸이 가볍네.

그럭저럭 북경에 정착하게 된 바이스는 부인 춘진이 새 장가를 들여 준다. 18살의 후바우주를 그의 측실로 들여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돌보게 한 것이다. 그녀 자신은 고향에 남아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 살림 등을 살폈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정녕 이해가 가지 않을 일이다.

바이스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스승을 만나 아직 다 배우지 못한 기법도 배우고, 이전까지 그렸던 화법도 과감히 바꾸는 등 자신만의 색채를 찾기 위한 모색,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이 같은 실험의 흔적들은 그의 작품들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을 네 시기로 나누기도 한다.

그가 북경을 진출하기 전까지를 초기로 보고, 북경에서 자리 잡기까지의 약 10년간을 중기, 그 후 약 20년은 전성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1957년 사망까지를 후기로 보는 것이다. 초기작품들은 습작 단계에서 유람 후의 창작까지 그의 향토색이 짙은 면모를 보여준다. 그 시기에 이미 모든 소재를 다루었으며, 팔대산인, 김동심 등 작품의 모작도 많다.

동향인 중의원 이웨이루의 소개로 유명 학자 린친난, 미술계의 거목 쉬베이홍 등을 알게 되었고, 치루산이 세계적인 경극배우 메이란팡과의 인연을 맺어 주었다. 이들은 바이스에게 있어서 귀인 중의 귀인이었다. 메이란팡의 집에서 그는 백 종류가 넘는 나팔꽃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후에 그림의 주요 소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메이란팡이 이름이 아직 나지 않은 바이스에게 깎듯하게 대하여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고 바이스는 시로 썼다.

이제는 장안에 떠도는 신채,
이름 아는 메이랑이 있어 다행이라오.

메이란팡은 바이스에게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그릴 때 곁에서 경극 <귀비취주>를 불러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 당시 주로 팔대산인 풍의 그림을 즐겨 그렸다. 남들의 절반 값 인데도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자 첸스정이 화풍을 한 번 바꿔 보라고 해서 <홍화묵엽>을 그렸다. 그림을 본 린친난(林琴南)이 '南吳北齊'라며 극찬했다. 그의 그림이 우창스(吳昌碩)를 많이 닮아 있었다.

첸스정의 배려로 일본에서 전시 기회도 얻게 되었고, 쉬베이홍, 메이란팡 등의 도움으로 인화집(印畵集)도 낼 수 있었다. 1927년에는 베이징 예술전문대학에 출강하게 되었다.

그 후 1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세계를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었다. 화집 뿐만 아니라 인보와 시집도 출간하고 사회적으로는 명사의 반열에 올랐다. 문화예술계의 명사로 자존감 회복과 동시에 영향력도 대단했다. 하지만 세상은 평화롭지 못해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인들의 착취가 감행되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그들과 맞서기도 하였다. 문을 닫아걸고 일본인들에게는 그림을 팔지 않았다. 그래도 그려 달라고 조르면 계를 그려 주었다고 한다. 언제까지 옆으로 걸을래? 황행, 즉 너희의 횡포가 어디까지냐며 그림으로 꾸짖었다.

1928년부터 1948년까지의 20년은 그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전성기라고는 하나 세월이 하수상하여 일본이 물러가고 나자 화폐개혁으로 번 돈이 다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의 나이는 이미 팔순이 넘었다. 측실, 후배 우주도 그의 곁을 떠났으나 그의 창작은 하루도 끊어지지 않았다.



바이스와 메이란팡, 1945년 경



<홍화묵엽>, 1940년 경

기쁨에로의 거부할 수 없는 초청장 합창교향곡

김의호 _ 삼성여고 교사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기쁨을 보았다.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의 칸타타 ‘우리의 기쁨을 소리 높여 알리세’에서 그의 이상 ‘기쁨·박애·사랑’을 노래했다. 그것은 과장없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다. 베토벤은 고뇌했다. 세상은 간단하지 않았고, 기쁨은 너무 멀리 있었다. 자유와 평등, 사랑이 가져 올 기쁨. 이 꿈같은 단어는 혁명을 부르고 혼연히 시대정신을 깨웠다. 베토벤은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최초의 음악가였다. 누구도 그의 음악을 구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욕 넘치는 젊은 작곡가에게도 길잡이가 있었으니, 바로 모차르트였다.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할 때부터 드러나는 모차르트의 DNA. 느린 서주를 가진 교향곡 39번을 응용한다. 다장조로 된 1번 교향곡에서 모차르트의 기쁨이 엿보인다. 베토벤의 개성이 뚜렷하다는 3번 교향곡 1악장에도 ‘바스티앵과 바스티엔느’ 서곡이 응용되었다. 여기에는 혁명의 정신은 있지만 기쁨은 아직 멀리 있다. 오랜 고뇌의 시간을 거쳐 그는 자신의 삶을 합창교향곡으로 음악화한다. 이 곡은 교향곡 속에 최초로 성악을 넣어 ‘관현악을 위한 소나타를 교향곡이라 한다’는 사전적 의미와 구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의 예술의 정점이요 못 교향곡의 정상이다.

이 작품의 화두는 ‘무엇으로 기쁨에 이를 수 있는가’이다. 물음은 응답을 요구하고, 결국 응답을 찾는다. 각 악장은 명확한 주제를 가진다. 태초의 혼돈 속에 번득이는 인간의 영감을 승고한 의지로 나타낸 1악장은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는 신비로운 도입부가 인상적이다. 이어서 장엄하고 강렬한 주제가 나온다. 이 주제의 광휘는 마치 성전의 휘장을 찢듯이 의심과 고독, 암흑의 휘장을 찢어버린다. 2악장, 옥타브로 조율된 팀파니의 강력한 리듬은 광란의 무도로 이끈다. 열정의 숨소리가 들린다. 3악장,

아름다운 사랑을 끝없는 변주로 노래한다.

4악장,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다. 긍정의 팡파르에 더블베이스와 첼로의 싸늘한 부정이 들려온다. 다시 팡파르가 울리자 끝도 나기 전에 강한 부정이 고개 든다. 그 뒤 각 악장의 주제들은 하나하나 물음으로 다가온다. 인간의 의지로 기쁨에 이를 수 있느냐고. 열정은? 아니란다. 그럼 사랑은? 여리게 부정한다. 재차 묻는다. 사랑은 그러한가? 강하게 부정한다. 그리고 환희의 주제가 나타난다. 모차르트를 잊지 않았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토리움 KV222, Misericordias Domini(주님의 자비를)부분의 현악기 선율을 응용한다. 환희는? 이 물음에도 싸늘한 응답이 들려오나 서두의 팡파르와 더불어 부정에 단호히 맞선다.

긍정과 부정의 대립은 끝나고 부정으로 일관하던 더블베이스와 첼로가 수줍은 듯 환희의 주제를 노래한다. 이 노래는 악기들의 공명을 이끌어 낸다. 비올라와 바순이 공명하고 바이올린으로, 그리고 전합주로 이어지며 벽찬 환희의 울림이 된다. 이 환희의 빛을 향해 못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듯 음악이 고조될 즈음 팡파르가 승리를 선언한다. 그리고 바리톤의 서창이 나온다. 앞선 부정의 선율이다. 베토벤은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다’라 선언하고 더욱더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고 청유한다.

모차르트는 강요함이 없지만 베토벤은 강권한다. 절망과 고통을 넘어 환희로 나아가자고... 빛이 비치면 그림자는 사라지기보다 내려앉는다. 환희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는다. 부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이 부정보다 더 큰 울림이 된다. 환희여! 설러의 시는 보석보다 찬란한 광휘를 지닌 화성의 옷을 입고 하늘에 사무치는 합창이 된다. 피날레, 합창은 격렬한 템포로 환희의 절정으로 치닫다가 일순 템포가 정지한 듯, ‘낙원의 딸들이여’ 가사 위에 현악기가 별빛처럼 쏟아 내린다. 순간 모차르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입에 담았던 기쁨이 베토벤에게서 완성된다.



자연의 축제 가을

안나 기르소바 _ 부산국제여성회 회원

한국의 가장 좋은 계절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을'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 가을을 매우 싫어했던 나에게 한국의 가을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다.

러시아의 가을은 춥고 긴 겨울을 기다리는 아주 울적한 계절이다.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 살을 에이는 바람, 땅 위에 떨어진 낙엽 냄새 등등. 가을의 아름다운 빛깔들과 어린 시절의 그 상큼한 냄새를 만끽할 수는 있지만, 어김 없이 찾아오는 겨울과 그 혹독한 겨울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러시아에는 가을 축제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축하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겨울이 끝날 무렵에야 아직 상당히 춥고 눈이 내리지만 그 겨울을 보내려 매우 서두르는—우리는 Maslennitsa라고 부르는 특별한 축제를 가진다. 그리고 다시 따뜻한 계절이 오는 것을 고대한다.

여기는 다르다. 한국에서 가을은 연중 가장 낙천적이고 상쾌한 계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물론 날씨이다. 일반적으로 무척 따뜻하고 화창하다. 한국의 가을은 그 자체가 자연의 축제가 되고 아름다움과 관대함의 축제가 된다. 푸른 하늘과 다채로운 빛깔의 멋진 풍경과 풍성함, 모든 자연이 깨어나는 아름다운 봄조차도 한국의 가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전국의 국립공원들은 가을에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러나 혼잡한 교통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무척이나 매력적인 그들의 나라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진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나는 항상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감사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재능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을 타고 난 것처럼 보인다.

작은 나라에서 성장하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그리고 자연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면서 그들 편이 된다. 험준한 산들과 아름다운 곡선의 소나무들, 그리고 반짝거리며 흐르는 냇물,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삶은 고금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영감이다. 하여 한국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몇 달 전 나는 한국에서 또 하나의 감명을 받았다. 300년 된 한 나무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 해운대 센텀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나무는 거대한 나무동치와 거대한 가지로 가진 진정한 자이언트였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부산시는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 나는 그래도 이 나무가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남을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잘 해내었다. 후에 나는 이 강제 이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울계수기까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들 이러한 관심과 배려에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북쪽나라에서 온 나는 처음 부산에 도착해, 겨울에 나무들을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짚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놓은 것을 보고 무척 재미있다고 느꼈다. 지금,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따뜻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나무들이 멀리서 생각을 전하나? 만일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동의한다.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전국 최초로 책문화관이 부산에 문을 연다. 12월 8일 개관하는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이하 책문화관)'이 바로 그 곳. 책문화관은 국내에서 유일한 현책방 골목인 보수동 책방골목을 상징하는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개관 전 부터 벌써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책마을에 빚대어 한국의 '헤이온와이'로 불리는 보수동 책방골목은 그 역사만큼은 원조인 영국의 '헤이온와이(Hay-on-Wye)' 마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보수동 책방골목의 시작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피란왔던 이북 실향민 부부가 보수동 사거리 입구에서 노점을 연 것이 그 시작. 게다가 당시 피란왔던 학교들까지 보수동 뒷산에 몰리면서 보수동 골목길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됐다. 전쟁 직후라 책 구하기가 어려웠던 그 당시, 헌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감지덕지였던 셈. 자연히 헌책방이 늘어나면서 책방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1960~70년대 들어서서는 70여 곳이 넘는 헌책방이 골목에 자리잡으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당시 학창시절을 보낸 부산 시민들치고 보수동 책방골목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산의 명소가 되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한때 침체를 맞았던 보수동 책방골목은 2004년부터 '보수동 책방골목 축제'를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래피티 축제'를 통해 아름다운 벽화골목으로 새롭게 탄생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동 책방골목의 구심점이 될 책문화관이 탄생되면서 보수동 책방골목은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보수동 책방골목이 시작되는 입구에 자리한 책문화관은 7층 규모로 책박물관과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선다. 우선 2, 3층에 자리한 책박물관에서는 유서깊은 보수동 책방골목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설전시관과 함께 기획전시관에서는 보수

사진 이장수

동 책방골목의 역사,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교과서 변천사를 통해 교육의 역사와 학창시절 추억을 향유하는 '교과서 변천사전'을 비롯해 전 세계 다양한 책마을을 소개하는 '세계 책마을전', 전 세계 석학들의 깊은 지성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세계 석학전' 등 '책'을 테마로 한 전시에서부터 보수동 책방골목의 터줏대감인 책방주인의 인생과 책에 대한 철학을 느껴볼 수 있는 '보수동 책방 주인전', 보수동 책방골목을 기록한 사진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을 전시하는 '보수동 거리전' 등 보수동 사람들의 애환과 정서를 담은 전시까지 다채로운 기획전을 준비중이다.

또, 책문화관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4층 문화공간에서는 소규모 연주회에서부터 영화상영, 시민들 누구라도 무대에 설 수 있는 아마추어 오픈마이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고심중이다. 부산 국제어린이영화제 기간동안 열리는 어린이 대상 체험행사인 어린이 영화캠프와 Film & Fun, 어린이 골목극장 등 문화행사가 이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동요배우기와 빛그림동화전, 어린이들이 직접 책방골목을 탐방하는 'Kid's Adventure' 등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관심깊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준비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를 만날 수 있는 '인문학 아카데미'에서부터 동화작가의 책을 소개하고 작가와 이야기 나누는 '동화작가와의 만남', 아마추어 문학인들의 소통의 장 '시, 소설 낭송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책방주인과 고객이 나누는 유쾌한 수다 한판 '책수다'와 라디오 드라마로 듣는 책 한권 '고전 라디오쇼', 언제나 추억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책방골목 음악다방'은 누구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프로그램이다. 북카페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운영된다.

■ 문의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010-4328-0356)



보수동 책방골목 정경



그래피티 축제를 통해 탄생된 골목 벽화

첼리스트 지안 왕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64회 정기연주회

박진홍 _ 음악평론가

토요일 오후는 한 주의 일을 마무리했다는 만족감과 휴일이 있다는 안도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 마음 편한 시간이다. 이런 시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부산문화회관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 스카이라인을 찌르는 해운대의 건물들과 그 위에 걸려 있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곧 있을 좋은 연주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지안 왕은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이며, 요요마, 윤디리, 랑랑과 더불어 클래식계의 중류(中流) 열풍의 주역이다. 최근 엘 시스템아(El Sistema)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베네수엘라의 젊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을 비롯해서 클라우디오 아바도, 샤를 뒤투와, 정명훈 등 수 많은 거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그의 음반과 영상을 여러 번 접했던 터라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이는 그와 리 신차오가 전해줄 연주에 대한 기대는 컸다.

지안 왕은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나단조를 연주했다.

1악장부터 두 중국 거장의 음악적 소통은 마치 연인의 그것과 같았다. 지안 왕은 리 신차오의 눈빛과 움직임에 통해 부산시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리 신차오는 지안 왕의 표정과 몸짓 하나 하나에 집중하여 그의 음악을 읽고 있는 듯 했다.

2악장에서는 지안 왕이 가진 섬세함과 중국 특유의 감수성을 드보르작의 선율에 더해 느낄 수 있었다. 3악장에서는 강건하면

서도 웅장하게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특유의 면모들을 보여 주었다. 특히 마지막 피날레에서 리 신차오는 오케스트라와 첼로의 대조를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솔리스트의 마지막 몸짓이 더욱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감동만큼 큰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안 왕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앙콜곡으로 선사했다. 지안 왕의 바흐는 다른 거장들이 가진 차분함, 안정감, 무게감을 벗어던지고, 가볍고 경쾌한 그렇지만 진지함을 갖춘 연주였다. 곧 이은 관객들의 환호에 지안 왕은 두 번째 앙콜로 중국의 정취가 한껏 풍기는 중국의 소리(Sound of China)를 연주했다. 섬세하면서도 경건하고 감정의 폭이 대단히 큰 연주가 인상적인 연주였다.

후반부,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에서 리 신차오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또 한 번의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작년 리 신차오의 취임 연주 이후, 가장 짜임새 있고 매끄러운 연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객석에서 지휘자의 의도가 단원들에게 잘 수용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을 들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짙은 감성의 바람이 곁들여져 이 가을을 한층 더 느끼게 하는 최고의 연주였다.



문화분권과 문화전문 미디어

: 인터넷 방송과 잡지

남인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화 분권이 화두다. 다른 영역의 분권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문화 분권이 가능하다. 수십억 원이 드는 행사가 아니어도, 수백만 명이 몰려오는 화려한 이벤트가 없어도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들이 합쳐질 때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그에 따라 문화 분권을 위한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서울 또는 외국 흥내 내기’가 아니라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둔 독창성 있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복사판을 보러 올 관객은 없다. 원본을 만들어 외부인들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러 오도록 해야 한다. 작지만 자발적이고 삶의 깊이가 담겨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문화 전문 미디어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역 문화는 중앙 문화와는 달리 소규모 문화다. 상업성을 배제하고 주민들의 만족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지역 문화는 소규모인 만큼 동질적인 취향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개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과 잡지는 특정 수용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담기에 적합한 미디어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미디어로 문화 전문 인터넷 방송과 문화 전문 잡지를 들 수 있다.

대안미술방송인 ‘닷라인TV학교(<http://dot-line.tv>)’는 2007년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 곱TV를 통해서도 미술계 소식과 미술인 인터뷰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재기발랄한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닷라인TV’는 온라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도 ‘통합 대안미술프로젝트 ATU’를 마련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악 공연, 영화 상영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안미술방송 닷라인은 미술계 소식과 미술인 인터뷰를 일반인의 눈높이로 담아내고 있다.

‘Voila(보일라)’는 2002년 6월 창간된 월간 문화잡지이다. 전국의 대안공간 및 갤러리와 서점에 무료로 배부된다. 미술 작품, 작가에 대한 소개, 인터뷰, 외부 칼럼, 문화행사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82호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15년간 역임한 김동호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으며 여행기 등 다양한 문화관련 기사가 담겨있다.

‘B-ART’는 광안동에 있는 ‘대안공간 반디’에서 발간하는 미술문화잡지이다. 미술 문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B-ART’는 세상의 모든 이미지, 담론과 쟁점, 이론과 같은 코너에서 미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Voila’에 비해 좀 더 학구적이다. 현장초점, 전시 읽기, 전시보기에서는 미술 현장을 살펴보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같은 인터넷 방송과 잡지들은 서울의 대형 미디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 출신의 독립큐레이터인 문예진씨가 ‘닷라인TV’의 디렉터와 ‘Voila’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고 ‘Voila’는 광안동에서 발행된다. ‘B-ART’역시 광안동의 공중목욕탕을 개조한 ‘대안공간 반디’의 발간물이다. 문화 전문 미디어의 눈부신 활약이 지역 문화의 자생적인 발전과 활성화로 문화 분권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빛는 연제 두레마당



11월 19일, 어둠이 내린 한적한 주택가 골목, 저녁 7시 주택 2층 모임방에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든다. 10여분이 채 되지 않아 어느새 20평 남짓 공간에 엄마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빛 그림동화'를 준비하고 있다. 각자의 역할을 찾아 익숙하게 준비하는 이들은 연제 두레마당 회원들. 금요일 연제 두레마당에서 마련하는 빛그림 동화가 열리는 날에는 회원과 회원가족들이 동심을 좇아 어김없이 모임방으로 찾아온다.

“오늘은 엄마의 생일날... 다섯 마리 아기 원숭이들은 엄마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아기 원숭이들이 선물을 만드는 동안 케이크가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난 줄 알고 두 소방관 아저씨가 왔어요. 탄 케이크에 설탕을 뿌린 아기원숭이들은 케이크를 부엌에 두고 엄마를 깨우러 갔습니다. 엄마께서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야라고 말씀 하셨어요...”

연제 두레마당 회원 라영숙 씨가 읽어주는 '섯, 엄마 깨우지마!'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느새 다섯 마리 아기원숭이와 친구가 되어간다. 연제 두레마당은 연산 5동과 거제 3동 지역 내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여 공동체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모임이다. 어려울 때 힘을 모은 우리의 품앗이를 교육에 접목시켜 젊은 엄마들이 의욕적으로 모여 '우리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연제 두레마당의 시작은 NGO단체인 부산교육문화센터에서 출발했다. 2005년 부산교육문화센터 내 몇몇 회원들이 좋은 엄마모임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작은 소모임을 결성한 것이 연제 두레마당의 시작이다. 당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해 예비학부모교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시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 이해련, 이미영, 김귀임, 황미경, 강혜영, 이선녀, 조은주, 윤일구 등이 뜻을 모아 '좋은 엄마모임'을 결성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매달 직접 반찬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같은 지역 엄마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임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2008년 부터 연제 두레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50여명. 회원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둔 지역 학부모들이다.

연제 두레마당이 있기까지는 안진경 씨의 역할이 컸다. 부산 교육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것을 인연으로 연제 두레마당을 이끌고 있는 안진경씨는 백일을 갓 넘긴 아이를 둔 초보 엄마다.

“연제 두레마당은 언제든 내 아이가 어울려 놀 수 있고 누나, 언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애착이 갑니다.”

현재 연제 두레마당에는 좋은 책을 읽어주자는 취지로 매주 금요일 빛그림 구연동화와 한 달에 1회 아이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떠나는 '다봄체험단', 반찬봉사모임, 고학년엄마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빛그림 구연동화는 가장 인기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진경 씨와 몇몇 엄마가 진행했지만 지금은 회원엄마와 아이가 매주 돌아가면서 참가하고 있다.

“책을 읽어주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책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줄을 서서 서로 읽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만나게 된 회원



지난 11월 6일 다봄체험단과 함께 가진 가을 체험. 연제 두레마당은 회원들이 1일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생태교육, 놀이교육을 진행한다.

의 소개로 연제 두레마당에 참가하게 된 김민정 씨는 연제두레마당을 통해 아이가 공동체 문화를 익히고 있어 누구보다 열심이다. 김민정 씨의 아들 다빈이는 12월 10일 책 읽어주는 '빛그림 구연동화' 신고식을 치른다. 연제 두레마당은 지난 여름방학에 동네 놀이터에서 빛그림 구연동화를 열기도 했다.

다봄체험단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씨는 체험단 행사 때마다 회원들과 1일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생태교육, 놀이교육을 진행한다. 다봄체험단 어머니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공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회원들의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연제 두레마당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려 특별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 것. 보은엄마 김수정 씨는 미술수업을, 주홍엄마 김소정 씨는 리본공예, 승훈엄마 라영숙 씨는 바느질, 유정엄마 이찬영 씨는 영어동화를, 진경 씨는 직접 경제교육을 맡아 봉사할 계획이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빛는 연제 두레마당은 월 1회 1만원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행사 진행에 부족한 비용은 후원금과 부산시교육청과 연제구청 등의 교육 공모사업에 응모해 그 상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참 이웃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엄마들에게 연제 두레마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 문의 연제 두레마당(cafe.daum.net/duremadang)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영화음악플러스콘서트

12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문정수 오정해 데이드림

부산국제영화제의 산파역할을 한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영화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영화인, 방송인들과 함께 들려주는 영화음악플러스콘서트.

2003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음악으로 추억을 선사한 영화음악플러스콘서트 2010년 무대는 문정수 전 시장을 비롯해 방송인 강석우, 영화배우 오정해, 피아니스트 데이드림 등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Beautiful Dreamer, Nella Fantasia, 꽃밭에서, 여심, 꽃분네야, 배 띄워라, 진도아리랑, 처음부터 지금까지(겨울연가 OST) 등 수곡

· 출연/문정수, 강석우, 오정해, 데이드림, 김병기, 부산시립합창단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선진문화포럼(256-7614~5)

첼리스트 송영훈 부산연주회

12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세계적인 첼리스트 송영훈이 월드프로젝트 클래식 라틴아메리카 무대에 이어 마련하는 브람스 연주회.

브람스 특유의 우수에 찬 서정성과 로맨틱한 환상이 넘쳐나는

첼로소나타 1번, 브람스 원숙미의 절정을 보여주는 만년의 작품 첼로소나타 2번을 통해 로맨틱한 환상과 서정성, 음악에 대한 정열의 정점을 보여준다.

· 피아노/아비람 라이케르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문의 더 스톱프(02-2658-3546)

움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 초청연주회

12월 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세계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관중을 압도하는 움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과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라 스칼라좌의 세계적인 성악가 프란체스코 아닐레 부산연주회.

움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은 평론가들로부터 오리지널하고 정제된 프로그램으로 품위 있고 세련된 최고의 연주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Opera 'Carmen' 중 Overture, Habanera, Air de Fleur, Seguidilla, Chanson du Toreador 등

· 출연/테너 프란체스코 아닐레, 바리톤 조현수 (솔로페라단 상임음악감독), 소프라노 김유섬(창원대 교수),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0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문의 솔로페라단(1544-9373)

부산색소폰콰이어 제5회 정기연주회

12월 5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2005년 전공자와 색소폰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색소폰 선율을 이웃에 전하고 봉사하기 위해 창단된 부산색소폰콰이어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 및 요양 시설 방문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이천우 · 특별출연/장효석(색소폰)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색소폰콰이어(010-2767-2141)

제16회 부산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2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향악단과 대학에 출강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1998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독일 Essen Philharmonic Orchestra 악장 토모켈러와 비올리스트 안네 스투드, 피아니스트 서해경과의 공연, 2004년 뉴욕 Long Island Univ. 교수, 지휘자 수잔 디버 초청음악회 등을 열어왔다.

프로그램

베버/클라리넷 콘체르티노 작품 26

지성민/Decomposition at See(2010 부산창작 관현악 콩쿠르 대상작품)

멘델스존/교향곡 제 5번 '종교개혁' 등 수곡

· 지휘/백진현(동서대학교 교수)
· 협연/윤두현(클라리넷), 여주현(바이올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백진현(011-503-9541)

부산문화회관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MORGEN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8년에 이어 2년 만에 부산을 찾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독창회.

2010년 3월 새로 발매된 독일 가곡 앨범의 주요 곡들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세기의 위대

한 작곡가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등 독일의 낭만파 음악을 한 자리에서 들려준다.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프로그램

슈베르트/마왕, 송어(The Trout), 물위에서 노래
함, 그대는 나의 안식, 들장미, 달에게
모차르트/봄을 기다림, 자장가, 클로에에게
브람스/하찮은 세레나데, 자장가 등 수곡

- **관람료** R석 12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운아회 초청 정소연 피아노 독주회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에센음대 석사과정, 만하임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정소연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10개의

프렐류드 작품 23

쇼팽/스케르쑈 작품 31

슈만/사육제 작품 9

· 특별출연/테너 이은민

- **관람료** 초대
- **문의** 정소연(010-4577-7703)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풍류 2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전통무용에 관심을 보여준 시민무용교실 수강생들과 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특별공연.

올해 7월 선보인 풍류 1기 '도살풀이춤'과 '진도복춤' 무대에 이어 '태평무'와 '산조춤'으로 우리춤의 빛깔 찾기를 시도한다.

프로그램

태평무(춤/감성희, 김강자, 김명숙, 김순남, 김정순, 김진선, 박선희, 박성화, 송정숙, 신금조, 윤정하, 이종남, 이채영, 이청자, 최필선)
산조춤(춤/김숙희, 신영숙, 엄혜선, 조공심, 황미숙)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쾌지나칭칭나네(춤/전혜련, 안주희, 정원미)

설장고춤-장고(춤/김윤호, 장래훈, 장영진, 황동하)

· 예술감독/홍기태(수석안무자)

- **관람료** 균일 3,000원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 여운국악관현악단 제 9회 정기연주회

12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4년 창단 이후, 50여회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국악관현악단 여운은 삼락자연공원 특별공연, 금정문화회관 초청음악회, MBC목요음악회, 국제신문 U콘서트, 김해문화의전당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우리음악을 새롭게 해석하며 널리 알려 왔다.

프로그램

국악으로 듣는 서양음악(편곡/ 김병섭, 최경철)/
라데츠키행진곡, 베토벤바이러스, 캐논
바리톤과 국악관현악/ '넬라 환타지아' '임진강'
소해금과 국악관현악/ '이등병의 편지' '거리에서'
최상화/공후와 생활을 위한 중주곡 '상원사의 아침'
강상구/국악관현악 '광야의 숨결' 등 수곡

- 지휘/홍희철
- 소해금/박성진(MBC드라마 '동이' 주제가 연주)
- 공후/조석연(전북대 외래교수)

- 바리톤/김창돈(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대금/강영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사회/박기홍(부산MBC 아나운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홍희철(010-2510-0753)

2010 남성성악가 앙상블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성악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지역 정상급 남성 솔리스트들이 들려주는 남성성악앙상블.

울산시립합창단 김명엽 지휘자의 지휘로 중후한 남성앙상블의 매력을 전한다.

프로그램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의 합창'
변훈/떠나가는 배

제갈삼/파랑새에 의한 피아노와 남성합창곡 '비가 (悲歌)' 등 수곡

- 지휘/김명엽 · 우정출연/안형일
- 피아노/김인재, 김정은
- 특별출연/한유주, 곽윤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부산일보사(461-4433~8)

이한순의 춤 '飛天'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강미리 홀 무용단 정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한순의 춤 '飛天'.

학무와 연화대무를 합성한 중요무형문화재 40호 학연화대합설무를 창작화한 '飛天'은 하늘문을 여는 1장 여명을 시작으로 그 속에 자유롭고 환희에 찬 행동과 허공에 울려 퍼지는 미묘한 음악 소리를 감지하여, 비행하는 듯한 춤 정경, 비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천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춤 등 하늘과 땅 사이의
연계를 춤으로 형상화한다.

- 안무/이한순
- 출연/권미정, 박혜진, 류현정, 서난이, 이상미,
이하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이한순(010-2601-7357)

먼구름 한형석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40년 한국최초의
항일오페라 '아리랑'을
비롯해 현존하는 대다
수 독립군가와 항일
서정가곡을 작곡한 독
립운동가 한형석 선생
의 탄생 100주년을 기
념하는 기념음악회.

세계 정상의 소프라노 김성은, 중국 최고의 테
너 김영철과 해군본부 군악대, 부산시립합창단,
우다다 밴드 등이 출연, 선생의 작품 세계를 조
명하는 독립군가, 항일서정가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한형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469-1978, 011-837-2297)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녹색행복, 그 가슴을 열다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남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남구 오륙
도여성합창단이 들려주는 제 7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산유화, 도라지꽃, 아름다운 베르네, 가시리, 우
리의 작은 성, 철망 앞에서, 내나라 내겨레 등
- 단장/김옥련
 - 지휘/고영호 · 반주/송혜란
 - 특별출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 특별출연/퓨전국악그룹 희나래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옥련(010-2533-79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디어 클라우드(Dear Cloud)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2005년 가을 기타
리스트 용린과 보컬리
스트 나인, 베이스스트
이랑, 키보디스트 정
아, 드러머 광석으로
결성된 디어클라우드
부산공연.

디어클라우드의 흥
대인근 클럽 공연을 필두로 부천영화제 시네락
나이트, 루시드 폴 등 크고 작은 공연에 참가하
며 음악성 뿐만 아니라 대중성까지 확보하면서
신인답지 않은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2006년 클
럽 씬 최고의 신예로 떠올랐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정태춘 박은옥 초청 2010 송년음악회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노래하는 음유시인 정태춘, 박은옥과 함께 하
는 2010 송년음악회.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며 한국
적인 포크 음악의 전형으로 사랑받아온 정태춘,
박은옥은 지난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30주년
기념 공연을 성황리에 가졌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
한 다섯 개의 소품(편곡/레본 안토노프미안)
정태춘·박은옥/춧불, 떠나가는 배, 시인의 마을,
봉숭아, 사랑하는 이에게, 북한강에서 등
· 특별출연/백재진(바이올린), 조혜운(바이올린),
심어라(첼로), 민수연(소프라노), 김
태형(베이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633-8990)

부산라이트하우스동기 제20회 글로리콰이어 정기연주회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폭넓은 레퍼토리와 파워풀한 합창사운드를 갖
춘 글로리콰이어가 선후천적으로 사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관할하는 부
산라이트하우스를 후원하는 연주회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 Praise! Shout!, 과수원길, 산유화, DUBULA,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등 수곡
- 지휘/이정철 · 반주/이영희, 최여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이정철(010-6579-6306)

문화 소외계층과 국군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연주회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해군 군악대와 국방부 국군교향악단이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들려주는 사랑 나눔 음악회.

군장병과 부산시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을 초청, 아름다운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해군작전사령부(679-6063)

제15회 땡브르발레연구회 정기공연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1989년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발레 전공자들 창단된 땡브르발레연구회는 부산무용제, 부산여름무용축제, 부산무대예술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발레 대중화에 힘써왔다.

프로그램

- December(안무/이화성)
- 게르다의 사랑(안무/이유하)
- 젠자노의 꽃 축제(재구성/김희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이상영(011-859-5162)

향기 오카리나 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2005년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사랑하는 오카리나 연주자들로 결성된 향기 오카리나 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 오카리나 앙상블 페스티벌, 오카리나 캠프 등을 열어왔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이창희(010-2546-3995)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20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금난새 서활란 정능화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United Korean Orchestra(U.K.O)가 들려주는 '사랑 나눔 음악회'.

프로그램

- 푸치니/오페라 '라 보엠' 제1막 하이라이트
- 리스트/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마장조
- 비제/'아들의 여인' 모음곡 중 모음곡 제1번 '전주곡' '미뉴에트', 모음곡 제2번 '파랑돌'
- 지휘/금난새 · 소프라노/서활란
- 테너/정능화 · 피아노/박세준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UKO(731-4470, 011-589-3111)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제 32회 합창정기연주회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재학생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제 32회 합창정기연주회.

브람스(1833~1894)가 어머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 장대한 합창예술음악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진혼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정일(고신대학교 교수)
- 솔리스트/소프라노 김나영, 바리톤 장은익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동환(010-7470-2547)

강남길 피아노독주회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강남길의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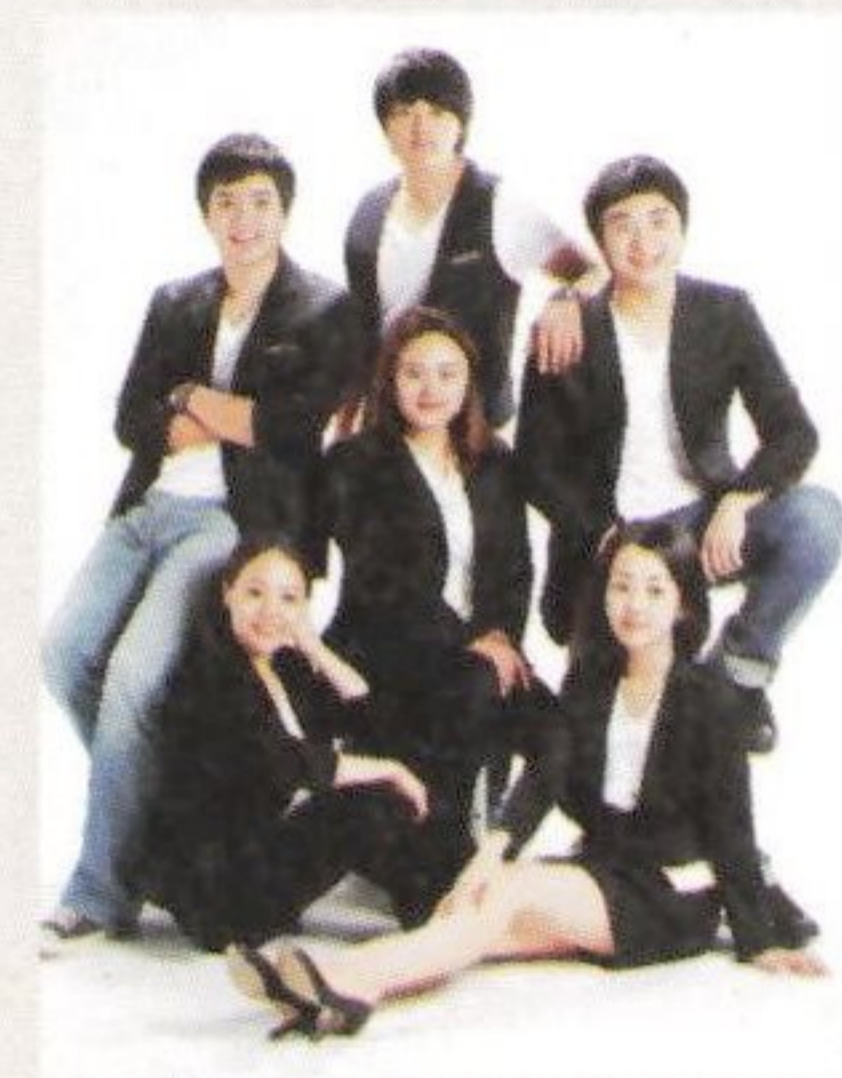
귀국과 동시에 마련된 독주회로 한층 성숙된 연주와 세련된 음악성을 과시하며 언론과 청중의 찬사를 받았던 강남길은 큰 스케일 속에서 안정된 연주와 명확한 곡 해석으로 그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넓혀왔다.

프로그램

- 쇼팽-발라기레프/피아노 협주곡 제1번 중 로망스
- 글린카-발라기레프/중달새
- 라흐마니노프/6개의 음악의 순간 작품 16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음악대륙 가이아 창단연주회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창단된 국악 실내악단 음악대륙 가이아(Ga.I.A) 창단연주회.

'아름답고 맑은 음악으로 세상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의 가이아는 앞으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국악의 새로운 면모와 다양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장르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프로그램

- 평조회상, 경기 대풍류
- 연주/손한별(대금, 소금), 문호근(가야금), 신정현(피리), 김원지(해금), 김민경(타악)
- 관람료 초대
- 문의 손한별(010-6645-1564)

그랜드오페라단 창단 14주년 기념 제 30회 정기공연 유럽 최정상급 오페라 주역가수 초청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갈라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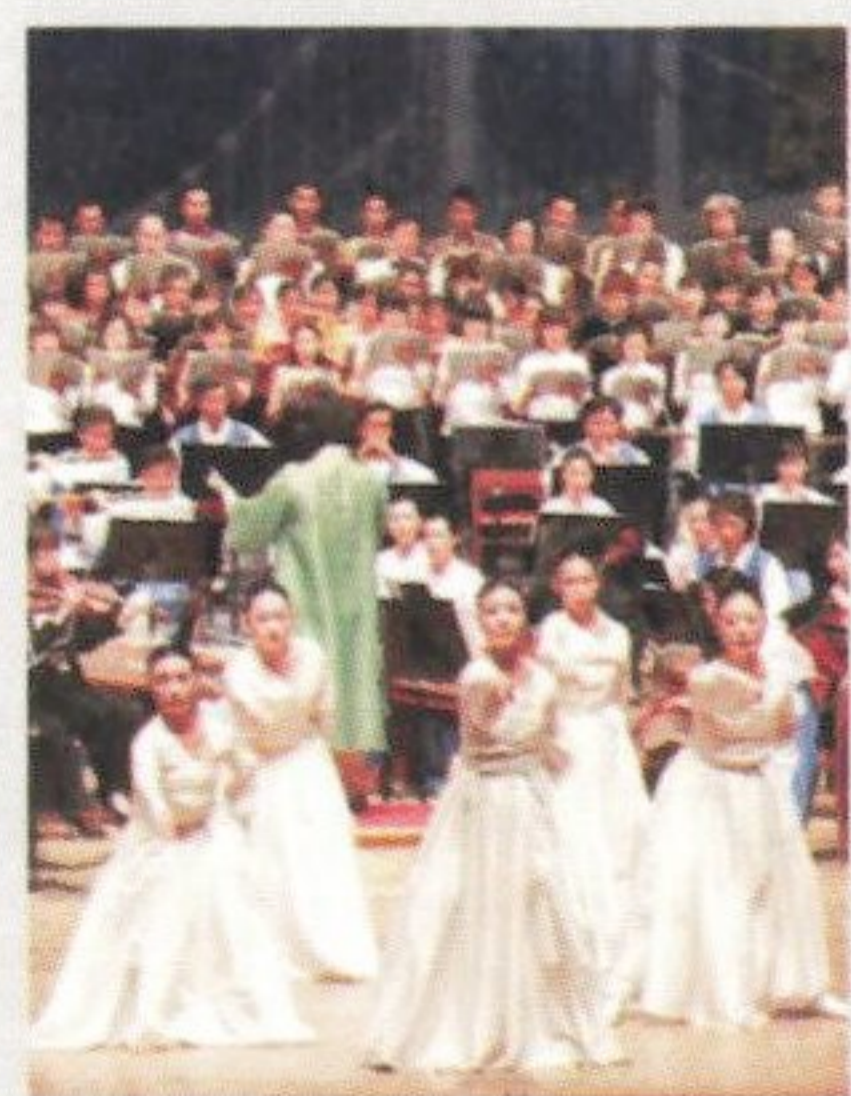
디에고 크로베티 소피 고르델라쎄 파브리시오 메르쿠리오

유럽과 이태리 오페라계의 떠오르는 샛별로 각광받는 이태리 '라 스칼라' 극장의 최고 신예 테너 파브리시오 메르쿠리오, 2010년 오스트리아 Gars Am Kamp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으로 유럽 오페라계의 주목받는 차세대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소피 고르델라쎄, 프랑스 아비뇽국립극장 등에서 활동한 바리톤 송기창이 오스트리아 그라츠국립오페라극장 부지휘자를 역임한 디에고 크로베티가 지휘하는 NEO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 지휘/디에고 크로베티
- 오케스트라/NEO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부산오페라단 합창단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문의** 그랜드오페라단
(853-2341, www.grandopera.or.kr)

2010 푸른 부산 합창 콘서트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지역 합창단이 서로의 교류와 친목을 나누며 부산합창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하는 2010 푸른 부산 합창 콘서트.

프로그램
슈트라우스/오페라 '박쥐' 모음곡

이스라엘 민요/하바나길라
대중가요/내가 만일 등 수곡
· 출연/부산코러스합창단(지휘/장은익), 연제여성합창단(지휘/윤정윤), 푸른아버지합창단(지휘/이성훈)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장은익(010-6567-2231)

정주연 귀국 플룻독주회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 Manhattan School of Music Prep. School, Duquesne University BM Flute Performance Degree, Duquesne University MM Flute Performance Degree

를 졸업하고 귀국한 정주연 귀국 독주회.

- 프로그램**
헨델/소나타 제 3번 가단조
리베르만/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드뷔시/시링스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큐슈 심포니 초청 말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I 부산MBC와 함께 하는 제 46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부활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말려 탄생 150주년을 보내는 마지막 무대로 마련하는 '말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II'.

2010년 송년무대를 겸하는 이번 무대는 후쿠오카의 큐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합창단, 독창자가 어우러져 부르는 장엄한 부활의 노래 교향곡 제 2번 '부활' 부산초연무대를 펼친다.



리 신차오 강혜정 김정화

- 지휘/리신차오
- 소프라노/강혜정 · 메조소프라노/김정화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강백천류 대금산조보존회 연말기획공연 선경(仙境)의 소리, 그리고 변태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강백천류 대금산조보존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특별기획무대.

남도 민요에서 터득한 시나위풍의 새 가락을 중심으로 대금산조를 완성한 강백천 명인은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고, 부산에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 프로그램**
전승자들의 대금산조 선보이기, 사물놀이 한판, 예능보유자 대금산조 한마당
동&정(動&靜), 정&동, 일렉기타 접신(接神)하다, 선경(仙境)의 소리, 대금의 결눈질, 카오스 악단
- 대금/김동표(중요무형문화재 제 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석동호, 장수간, 정용운, 이병영, 문승민, 김덕상, 김형우, 조민혜
 - 장고, 고수/김향옥
 - 톰연주/안완식
 - 일렉트릭기타/이영웅(안동대학 교수)
 - 키보드/임재근(동음실용음악학원장)
 - 타악/공성재(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사물놀이팀(대구시연주단)
 - 연출/조철현(대금,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전수조교)
 - **관람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 **문의** 조철현(010-9797-0334)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악회 Happy Christmas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동심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 동요사랑회의 창작합창, 합창으로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 뮤지컬 '맘마미아'의 하이라이트로 행복한 송년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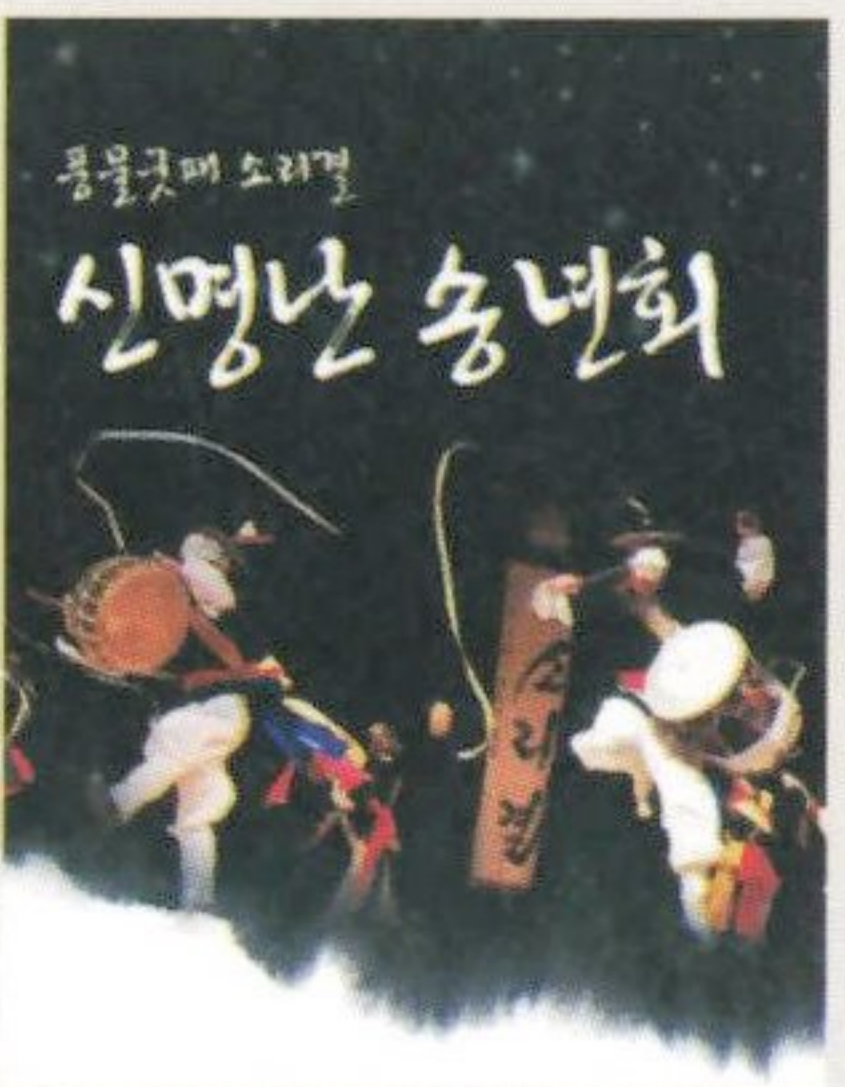
음악여행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 창작 합창/행복을 그리는 노래(안진현 곡), 버들피리(류지원 곡), 벼개애기(우덕상 곡), 백합꽃 지는 날(신진수 곡)
- 신나는 캐롤/실버벨, Feliz navida, 캐럴 메들리(크리스마스 폴카, 루돌프 사슴코, White Christmas, 창밖을 보라, 징글벨) 등 수곡
- 지휘/전상철 · 반주/이영옥
 - 지도/김양자, 김양자
 - 특별출연/피오레리코더앙상블,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최형석), 금성중학교 오카리나합주단
 - 드럼/전상천 · 신디사이저/문지은
 - 오보에/류재환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풍물굿패 소리결 2010 신명난 송년회 우리시대 풍물명인전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풍물굿패 소리결이 세대를 이어가는 풍물꾼들의 멋드러진 공연으로 펼쳐는 '2010 신명난 송년회'. 풍물굿판의 흥과 신명을 이어가는 놀이마당을 펼친다.

프로그램

- 유명철 명인(호남좌도 개꼬리 부포놀이)
조상용 명인(영남 성주지신놀이 소리)
김선옥 명인(영남 소고놀이)
배관호 명인(금회북춤) 등
- **관람료** 일반 30,000원 · 학생 20,000원 (단체 50% 할인)
 - **문의** 풍물굿패 소리결(512-6153)

2010 3개 무용단체 합동공연 2010 춤으로 갈무리하다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2010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부산시립무용단,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부산무용협회 회원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우리 춤 한마당.

프로그램

- 부산시립무용단 '백두대간', 부산무용협회 '태평무' 김진홍 '한량무', 심지영 '기다림' 배혜경, 부산시립무용단 '명월연가' 이도근 '양반춤', 김은경 '산조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꽃나부 풍장'
- **관람료** 초대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김정희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5:30 **중극장**



예음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클럽 정기 연주회, 부산관현악단, 노보시비리스크 오페라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 등을 가져온 김정희의 피아노 아카데미가 들려주는 제 11회 정기연주회.

- 피아노/김정희, 황영인, 최정인, 황보경, 김시현, 안예주, 강령경, 송라예, 송혜민 외
- 첼로/김정현 · 마림바/최성훈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정희(628-4106, 010-4552-4106)

부산시립합창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2010 크리스마스 캐럴 & 베토벤의 합창만을 위한 합창 심포니 No.9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이번 무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 무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의 캐럴 모음곡과 송년시즌의 대표곡인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으로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 It's a Christmas!/Veni, Veni Emmanuel,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베토벤/심포니 제9번 4악장 '합창만을 위한 합창'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앙상블에피소드/남순천, 손미숙, 이재원, 김창돈, 구명금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한국인을 주축으로 세계 8개국 출신의 젊은 최정상급 연주가들로 구성된 세종솔로이스츠는 1995년 줄리어드음대 강호 교수의 지도아래 창단, 국제적인 무대에서 350여회가 넘는 연주로 청중을 매료시켜 왔다.

프로그램

- 코렐리/크리스마스 콘체르토 사단조
비발디/사계 중 바이올린 콘체르토 바단조 '겨울'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동신 임효선 이정림

아카데미한 연주로 매 연주회마다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10 송년음악회.

겨울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품과 장엄하고 웅장한 피아노협주곡에 가슴시리도록 애절한 선율의 바이올린 작품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보는 2010 송년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피츠너/크리스마스 요정 서곡 20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비탈리/사콘느

크록스태드(편곡)/영화 속 크리스마스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이정림(바이올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임효선(피아노,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10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5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국악관현악으로 듣는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의 협연의 무대, 이호연 명창의 무대 흥겨운 경기민요, 어름산이 권원태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단원들이 출연, 풍물놀이로 흥겨운 송년무대를 열어준다.

프로그램

이경섭/공놀이

국악관현악과 함께 하는 오카리나 협주곡/엘콘도로 파사, 겨울여행

이호연 명창과 함께하는 흥겨운 경기민요/노랫가락,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등 수곡

· 지휘/김철호

· 협연/박종근(오카리나), 이호연(경기민요), 권원태(어름산이) 외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 합창/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4)

제 3회 현미밴드 정기공연 쇼쇼쇼 나비의 꿈 胡蝶之夢

12월 23일-25일 목-토요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소극장

밴드와 연극인으로 구성된 현미밴드가 그동안 보여줬던 두 차례의 쇼쇼쇼 시리즈의 완결판 무대 쇼쇼쇼 나비의 꿈 '胡蝶之夢'.

· 작-편곡/전현미 · 작/최은영

· 연출/김지용

· 출연/현미밴드(전현미, 백상호, 서상기, 고성훈, 허은미, 이한위, 엄준필, 임보라), 최은영, 송준승, 장민, 김정원

■ 관람료 균일 2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현미밴드(018-519-1683)

부산시립극단 기획공연 가족뮤지컬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2월 24일-26일 금-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브라질의 상파울로 곁 작은 도시 방구에 사는 한 철부지 어린 아이 제제가 가난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간직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린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의 연출로 무대에 올린다.

· 예술감독/김광보 · 연출/정순지

■ 관람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3)

부산문화회관 재개관기념 기획공연 이은결 THE ILLUSION

12월 25일-26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대극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지션이자 Illusion Artist 이은결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Magic Show & Illusion Performance.

세계대회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진출,

모든 권위 있는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며 마술의 붐을 이끌어온 이은결이 오랜만에 부산무대를 갖는다.

■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A석 5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심장병 어린이 돕기 국제로타리 3660지구 희망음악회

12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국제로타리 3660지구에서 지난해에 이어 마련하는 희망음악회.

· 지휘/박우진 · 악장/조현미

· 사회/손지현 아나운서

· 협연/테너 엄정행, 뮤지컬배우 최정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사물놀이/퓨전타악그룹 공감21

· 가수/정수라, 안치환, 마야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의 부산화명로타리클럽(637-3660)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8회 정기연주회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이현세

김은정

대구시립교향악단과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재직중인 이현세 교수의 객원지휘,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Pacific Music Festival 및 아시아 필하모닉 일본순회 연주를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의 협연으로 2010년 활동을 마무리한다.

프로그램

- 쥬세페/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서곡
- 사무엘 바버/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14
- 에드워드 엘가/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 지휘/이현세(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협연/바이올린 김은정(경성대학교 외래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악장/임병원)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전석 학생 50% 할인)
-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405-4577, www.bso21.com)

차행법 숙우회(茶行法 熟盃會) 인드라망

12월 28일-29일 화-수요일 오후 2:00, 7:00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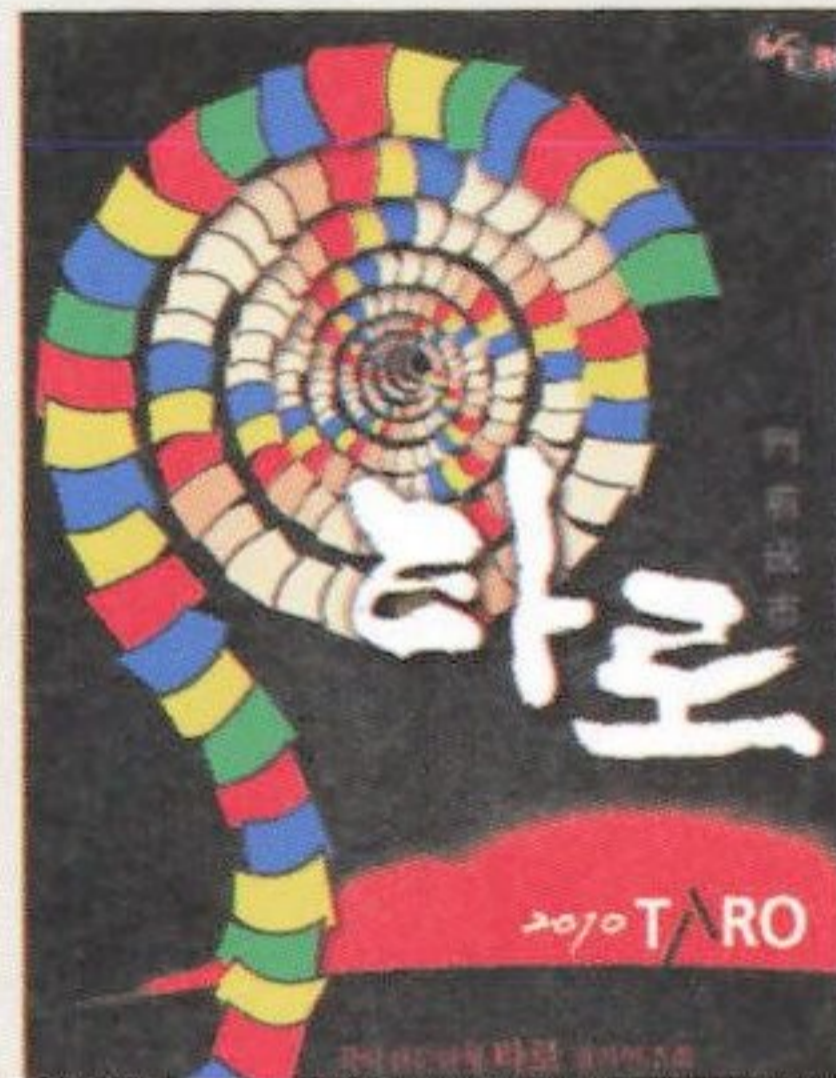
차행법을 전하고 있는 숙우회가 그물코처럼 엮인 인간관계를 명상과 음악, 차를 통해 표현한다.

프로그램

- 인드라망, 향하(香河), 우담바라, 화만, 은하(銀河), 양류, 해조음 헌다, 자하, 채담 외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숙우회(010-3589-5189)

국악전문단체 타로 2010 정기연주회 문전성시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4년 창단 연주회 이후 매년 전석 매회의 놀라운 성과를 올리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열어온 국악전문단체 타로 정기연주회 '문전성시'.

지난해 정기연주회 '은고지신'의 정신을 이어 타로가 지향하고 있는 전통과 퓨전의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 진주검무, 가야금 산조, 경기 경상도 소리, 모듬북합주 '새울림' with 서양 타악기 등
- 구성, 연출/신문범, 강열우 · 판소리/박성희
- 특별출연/김청만(전,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예술감독), 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재즈밴드 Groovy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이일록(583-7958, 010-3282-8014)

극단 세진 Dynamic 뮤지컬 BUSAN

12월 29일-30일 수-목요일 오후 5:00, 8:00 중극장

부산의 역사와 전통, 구수한 사투리, 서민들의 뚝심을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를 배경으로 펼치는 춤과 노래, 타악 퍼포먼스의 어울 한마당 Dynamic 뮤지컬 'BUSAN'.

- 작/홍성모 · 연출/김세진
- 출연/김세진, 최은영, 양기원, 홍충민, 김정원, 이현남, 장종진, 장승현, 이현정 외
- **관람료** 일반 30,000원 · 중고생 20,000원 (20인 이상 단체기획사문의)
- **문의** 무대공감(623-0678, www.mudae.kr)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10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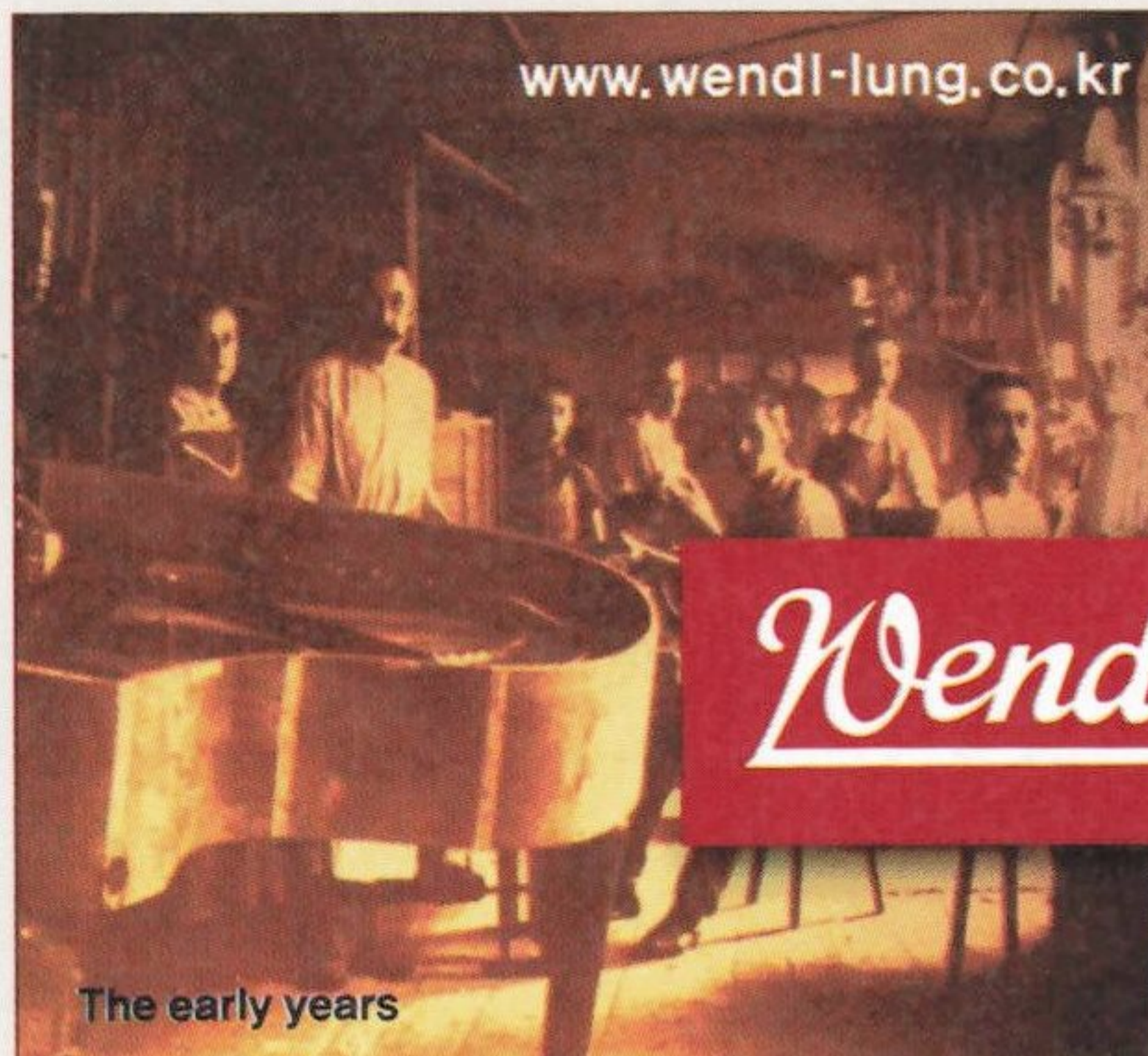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30 대극장

2010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11년 밝아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을 담은 부산문화회관 '2010 제야 음악회'.

1부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회상', 2부는 2011년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
- 가요/모두가 사랑이예요,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 올드랭 사인 & 카운트다운
- J.슈트라우스/천둥과 번개 폴카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바이올린/임병원
- 베이스/함석헌
- 특별출연/동래초등학교 성악부(지도/김희정)
- 가수/해바라기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3100)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MUSIC

부산남성합창단 제 17회 정기연주회

12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8년 창단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마추어 남성합창단 부산남성합창단 정기무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너이자 한국 가곡을 세계에 알려온 테너 엄정행이 함께 한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총무 조순식(011-562-828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 1일 윤정윤 다섯 번째 독창회 'Per La Vita'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 부산연제여성합창단, 부산시구군연합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중인 테너 윤정윤의 무대.
· 특별출연/바이올리니스트 최미경, 조미혜
- ▶ 8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가곡의 밤



강경원

김지호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클라시아 오페라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리톤 강경원과 경성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일가곡연구회, 남성성악앙상블 4+1 회원으로 활동중인 테너 김지호가 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 슈만의 가곡 '케르너 시에 의한 12개의 가곡' '시인의 사랑 작품 48' 전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정금련, 김성숙
- ▶ 15일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

대를 졸업한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 찬조출연/플루티스트 이승호(대구예술대학교 교수)
- 피아노/장효진
- ▶ 22일 임소영·김유진 피아노 듀오연주회
신라대학교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한 임소영과 계명대학교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김유진의 피아노 듀오무대.
- ▶ 29일 아듀! 2010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음악회
국내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차세대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2010 송년무대.
· 출연/이효권(플루트), 양진혁(성악), 김예솔(플루트), 성윤미(바이올린), 강유라(플루트), 권아현(피아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제 1116회 MBC목요일음악회 코람데오합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의 송년, 사랑과 감사의 노래

12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황장수

지난 2007년 작곡가이자 합창 지휘자인 황장수가 성악전공자들과 함께 창단한 코람데오합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 초청 MBC목요일음악회 송년무대.

- 지휘/황장수
- 소프라노/김미리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제 17회 동요사랑 큰잔치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다양한 창작동요 발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동요사랑회의 17번째



창작곡 발표회.

프로그램

류지원/마음을 열어요
우덕상/홍두깨 소리
신진수/수선화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의 류지원(011-864-9889)

사물놀이 청-가무악의 만남

12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부산에서 활동중인 중견 연주자들이 개별 음악성의 한계를 깨고, 예술적인 비약을 도모하고자 만든 프로젝트 그룹 사물놀이 청의 세 번째 정기공연.

우리춤과 소리가 어울어진 신명난 사물놀이 연주를 들려준다.

- 출연/박종환, 최의철, 박순호, 김인수, 김용성, 이향희, 구지연
- 관람료 초대
- 문의 사물놀이 청(634-6183)

2010 리차드 클레이드만 Live Concert in Korea-부산

12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MBC롯데아트홀

'피아노의 시인' '로맨스의 왕자'로 전 세계적으



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더만 부산공연.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로 지금까지 2,500만장의 앨범 판매기록을 세운 리처드 클레이더만은 이번 무대에서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피아노의 로맨티시즘을 선사할 예정이다.

-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문 의 (주)팜코(1688-2026)

여성창극 언약

12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지고지순한 연인간의 사랑을 그린 여성국극 '언약'.

여성국극계의 원로연출가인 김혜리가 직접 연출을 맡고 원로배우 이옥천이 출연, 여성창극의 멋과 진수를 선사한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50% 할인)
- 문 의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 (644-5211, 418-3399)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4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판소리 '춘향가', 동래향제줄풍류 중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산조춤, 대금중주 '뱃놀이', 삼고무 등

▶11일 프로그램

기악합주 '관악영산회상', 승전무 중 '북춤', 시조 '하여가' '단심가', 동래학춤, 경기민요, 실내악 '판놀음'(이준호 곡), 부채춤, 사물놀이

▶18일 프로그램

장구춤,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방아타령', 피리독주 '염양춘', 단소독주 '청성곡', 태평무, 실내악 '거리'(이경섭 곡), 진주교방굿거리춤 등

▶25일 프로그램

정재검무, 가야금산조, 통영교방진춤, 실내악 '축제'(이준호 곡), 실내악 '고구려의 혼'(홍동기 곡), 한반도 아리랑, 풍물놀이

- 관람료 1층 8,000원 · 2층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향상음악회

12월 6일 월요일 오후 3:30 글로벌아트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향상음악회.

- 관람료 초대
- 문 의 한상돈(017-556-1577)

명호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5월 명호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결성된 명호여성합창단 창단무대.

- 지휘/류지원
- 관람료 무료
- 문 의 류지원(011-864-9889)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28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7일 이나연의 영남, 그 흥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으로 있는 이나연의 춤.

▶14일 이필호, 신윤경의 춤판

중요무형문화재 제 68호 밀양백중놀이, 제 27호 승무 이수자로 활동하는 이필호와 전국국악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신윤경무용단 대표로 있는 신윤경이 펼치는 흥겨운 우리춤 무대.

▶21일 젊음으로 그린 풍류 '수리秀麗'



20, 30대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모색하고 있는 민속악회 '수리'의 무대.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38)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8:00 가톨릭센터 소극장

▶7일 마니피카트 피아노앙상블 연주회

성당 반주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전공자 장정현, 김현정, 이안나, 류로사, 손혜정이 함께하는 무대.

▶14일 소프라노 이한나, 테너 장원상

성악듀오의 밤

리셉션·식사·각종모임 예약 80석

MOZART

영빈관 맞은편 1층
모짜르트 레스토랑
예약문의. 051) 622-1456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이한나와 경성대학교 교수, 중국 길림예술대학 객원교수로 있는 테너 장원상이 함께하는 무대.

▶ 21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8
'마술피리'

모차르트 예술의 집대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갈라콘서트.

· 출연/양종근, 장진규, 이민희, 김도형, 안선희, 이수진, 배제선, 최유진, 소미래

▶ 28일 지구가 전하는 두 번째 편지
'별들의 노래'

아인양상블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카리나 연주자 옥준과 2002년 창단된 후 오카리나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퓨전 오카리나 연주팀 '아인양상블'이 함께하는 무대.

· 아코디언/박삼홍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
(441-3788, 010-9426-3939)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영도의 겨울 그리고 러시아의 눈보라

12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합동 무대.

프로그램

모음곡 제 2번

바흐/관현악 모음곡 제 2번 나단조 작품 1067
스비리도프/눈보라' 중 '로망스' '왈츠' 등

· 지휘/오충근

· 협연/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강학윤, 플루티스트 정승찬

▪ 관람료 초대(선착순 입장)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변경숙 오르간 독주회

12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중앙교회



프랑스 파리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과 파리국제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영도중앙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변경숙 오르간 독주회.

· 협연/고충진(클래식기타리스트)

▪ 관람료 무료

▪ 문의 변경숙(010-5549-0117)

2010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영남 삼현육각 복원 및 재현 공연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약당

통영 승전무(통영복춤, 통영검무)의 반주음악으로만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영남 삼현육각(三絃六角)'을 복원, 재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이보형이 조사해 음원으로만 남아있는 거상악, 길군악, 길연주 등을 재현해 들려준다.

· 연구/최현(부산대학교 교수), 오진호

· 자문/이보형

· 음악지도/신재현

· 출연/국악연주단 풍류지음, 신다희, 조수미, 마산오광대복원추진위원회

▪ 관람료 초대

▪ 문의 오진호(010-6575-7968)

Busan Mladi Clarinet Company
해설이 있는 음악회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들로 구성된 Busan Mladi Clarinet Company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Mladi'는 체코어로 '청춘'을 뜻한다.



· 출연/이원기, 오민정, 장은아, 최국화, 이성은, 황경희, 김나예, 김소령, 김지훈, 김슬기, 진민지, 임경희, 차호철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의 이원기(010-9328-9037)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0년 12월 창단연주회 이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정교한 연주실력으로 호평받아온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11번째 정기연주회.

작곡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을 독주와 4중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강희숙(010-3871-0412)

부산정가회 제 9회 정기연주회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인 정가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부산정가회의 9번째 무대.

프로그램

가곡/계면두거, 환계락, 언락, 편수대엽

가사/상사별곡,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시조/부산관광사설시조, 평시조, 지름시조 등

· 출연/김의정, 서월당, 김옥자, 김상선, 박정관, 이종남, 이지원, 박재일, 이승신, 이동영, 한국소년소녀정가단

· 연주/전인근(대금), 최경철(거문고), 김현경(양금), 한지연(해금)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관람료 초대
- 문의 문금자(019-559-6119)

오페라 봄봄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30년대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을 토속적인 언어와 해학적인 문체로 그려낸 김유정 소설 '봄봄'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이건용 교수가 우리 전통의 놀이판 형식과 서양 오페라 어법으로 풀어낸 창작오페라 '봄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영도문화회관 2010 송년음악회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의 희망을 아름다운 클래식에 담아 전해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2010 송년음악회.

프로그램

림스키 코르사코프/세헤라자데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엔리오 모리꼬네/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임병원(바이올린), 박진희(피아노), 김판수(첼로), 노영훈(오보에), 윤태준(바순), 주현(트럼펫)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61~5)

비트타악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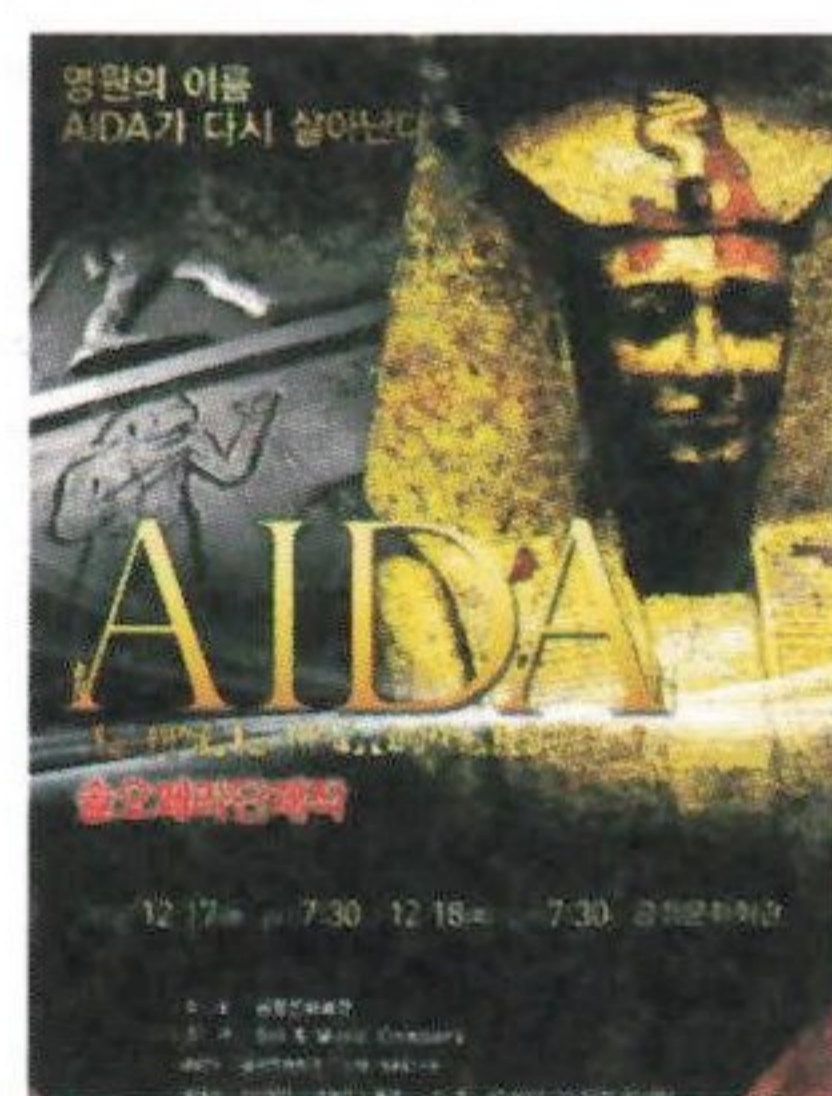
2007년 3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있는 김정우를 주축으로 창단된 비트타악 앙상블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Mourning into Dancing, Valencia, New York New York!, 캐롤메들리, 팝송 메들리 등 다양한 연주곡을 흥겨운 타악앙상블로 들려준다.

- 음악감독, 지휘/김정우
- 관람료 초대
- 문의 강희숙(016-562-6561)

오페라 아이다

12월 17일-18일 금-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극적인 이야기와 화려한 선율, 대규모 합창으로 오페라의 정수를 선사하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 지휘/알폰소 소우라 라세르

- 연출/김정숙 · 무대디자인/임일진
- 출연/Marta Brivio, 김유진, Josef Krpec, 윤지영, Patrizia Scivoletto, 송승민, 유슬기, 성미진, 김미경, 이태영, 이기백 외
- 오케스트라/부산메트로폴리탄오케스트라
- 합창/솔오페라합창단
- 무용/JUNE 댄스컴퍼니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6)

제 16회 조현미 바이올린 독주회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조현미 독주회.

조현미는 1998년부터 열정적인 음악 표현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매년 독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사라사테/타란텔라 작품 43
베토벤/소나타 제 7번 다단조 작품 30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 첼로/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 관람료 무료
- 문의 정매니지먼트(011-589-3111)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p>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 오디션에서 합격 사례)</p> <p>피아노: 송정민(이스트만음대전액장학생), 엄유정 (텍사스 어스틴 음대) 첼로: 김미나(줄리어드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p>	
<p>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p>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한낮의 유; 콘서트 유열과 함께하는 환희의 송가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편안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수 유열과 함께 떠나는 감성 송년콘서트.
· 사회/박선주
· 연주/가마뫼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출연/가수 유열, 테너 전병호
칸토미리내 중창단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제 26회 사진이 있는 작은음악회 Acapella Voiture 연주회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1996년 우리나라 최초 혼성 아카펠라 그룹으로 결성된 후 아카펠라에 재즈와 팝을 접목시켜 보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아카펠라를 선보여온 Acapella Voiture 초청 연주회.

- 관람료 사전예약(주최측 문의)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글로벌아트홀 성탄 축하음악회 제 36회 부산 시민과 지역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12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 개관 5주년을 맞아 부산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아트홀 행복음악회.

- 출연/글로벌라이어, 솔라피데 앙상블, 색소폰리스트 백정희, 바리톤 이기환,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입상자
-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먼구름 한형석 탄생 100주년 기념 70년만의 귀환 한국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 국내초연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 오페라 '아리랑'을 작곡했던 독립운동가 먼구름 한형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오페라 '아리랑' 국내 초연무대.

1940년 중국 서안에서 초연된 오페라 '아리랑'의 당시 악보집을 찾지 못해 유족이 보관중인 친필악보와 제작노트를 바탕으로, 새롭게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대본을 구성해 무대에 올린다.

- 연출/김성경
- 오케스트레이션/백현주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한형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469-1978)

창작오페라 부산갈매기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부산을 배경으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희망을 찾는 주인공들을 통해 부산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그린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부산갈매기'.

- 작, 연출/유상훈
- 작곡/허걸재
- 출연/이신범, 이정현, 이태영, 김재성, 김정현, 손호진, 권신영, 손소연, 박정미, 배숙희, 김엘사, 손남언, 이용란
- 관람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문 의 (사)아지무스 오페라단(070-7522-4649)

PLAY

2010 점프 부산

9월 1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해운대 그랜드호텔 B1)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극.

부산전용극장 공연 1,000회를 돌파하며 그 재미를 이어가고 있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744-4885)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2010년 9월 30일(목)-2011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 혁명 소극장

몸으로 만들어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대사로, 아카펠라와 탭댄스로 음악을 완성한 카툰뮤지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연극 묻지마 육남매

11월 12일(금)-12월 31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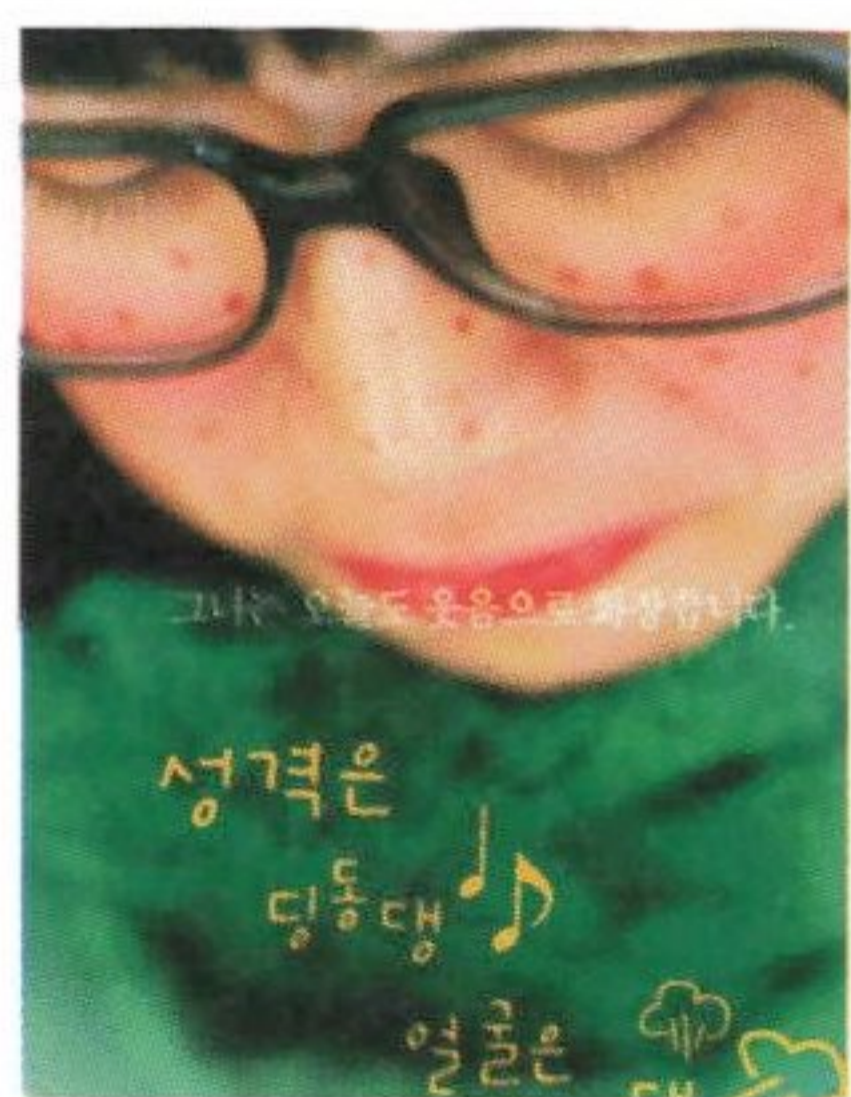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끈끈한 가족애로 가난을 헤쳐나가는 육남매를 통해 가슴 찡한 감동을 전해주는 연극 '묻지마 육남매'.

- 작, 연출/최재민 · 각색/김문홍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11월 18일(토)-12월 1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못생겨서 죄송한 그녀 박정봉의 진정한 사랑찾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현실과 미래를 오가는 빠른 극 전개와 상상력 가득한 무대장치가 재미를 더해준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팻브릿지(626-3703)

감성음악극 존 레논을 위하여

11월 18일(목)-12월 31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사랑과 평화, 혁명을 꿈꾸며 세기를 가로지른 20세기 최고의 뮤지션인 존 레논 사후 30주기를 애도하며 비틀즈의 주옥같은 명곡과 함께 선보이는 감성음악극 '존 레논을 위하여'.

- 작, 연출/김세환
- 출연/최윤희, 조은호, 최영무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용천지랄소극장(625-0767)

비방영 웃찾사

11월 1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7:00, 9:00, 토요일 오후 4:00, 6:00, 8:00, 일공휴일 오후 2:00, 4: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비비씨어터



프로그램 증명으로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는 '웃찾사' 공연을 직접 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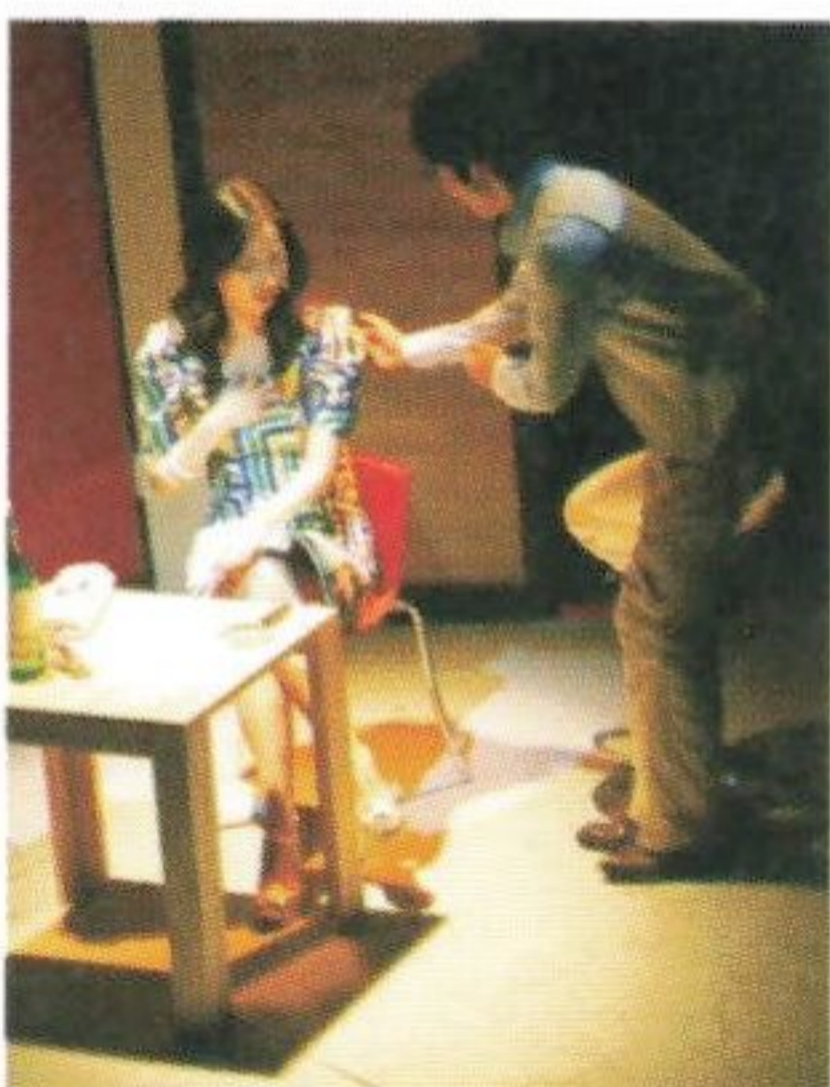
비비씨어터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에 이어 웃찾사 전용

극장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 문 의 비비씨어터(804-2256)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2010년 11월 19(금)-2011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12/24일 오후 7:00, 10:30, 12/25일 오후 3:00, 6:30, 10:30, 12/31일 오후 7:00, 10:3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한 평범한 카페에 찾아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과 희로애락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찾는 콘서트 뮤지컬.

- 작, 연출/함유진
- 작곡, 음악감독/Clay

-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조은사람들(1588 - 2757)

연극 미라클

2010년 11월 20일(토)-2011년 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희동과 신비한 능력을 지닌 또다른 식물인간 길동, 그들의 영혼이 펼쳐는 명랑감동 판타지극 '미라클'.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11월 23일(화)-12월 3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락밴드 연주 속에 펼쳐지는 콘서트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뮤지컬 빨래

11월 26일(금)-12월 5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평일 오전 11:00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
MBC롯데아트홀



서울 달동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을 그린 뮤지컬 '빨래'.

- 작, 연출/추민주 · 작,편곡/민찬홍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2010 젊은 공연 예술축제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12월 1일(수)-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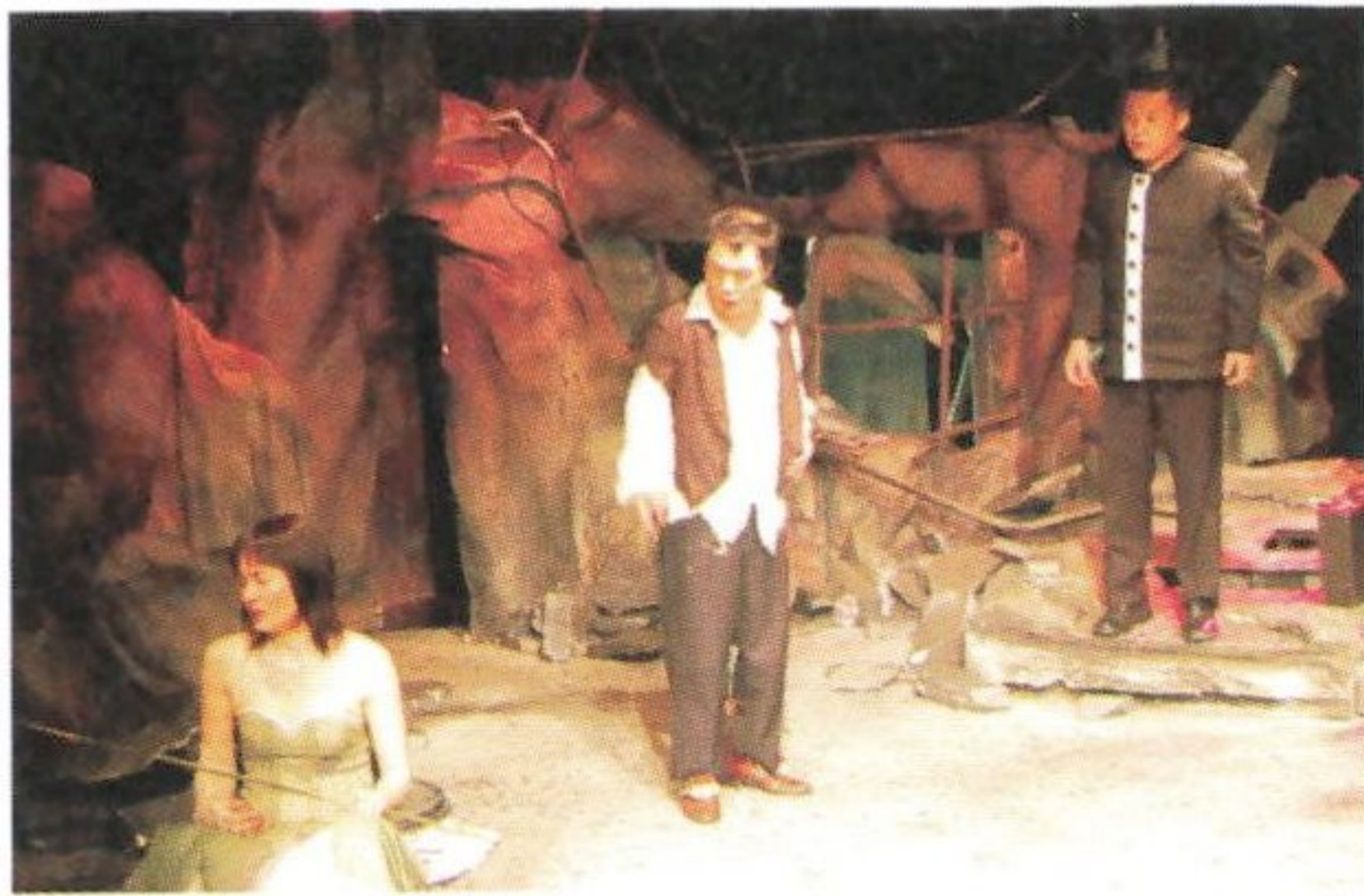
섬의 소유권을 장악하려는 침입자에 맞선 부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유희성 짙은 놀이와 극적 긴장감으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표현한 연극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 작, 연출/김지용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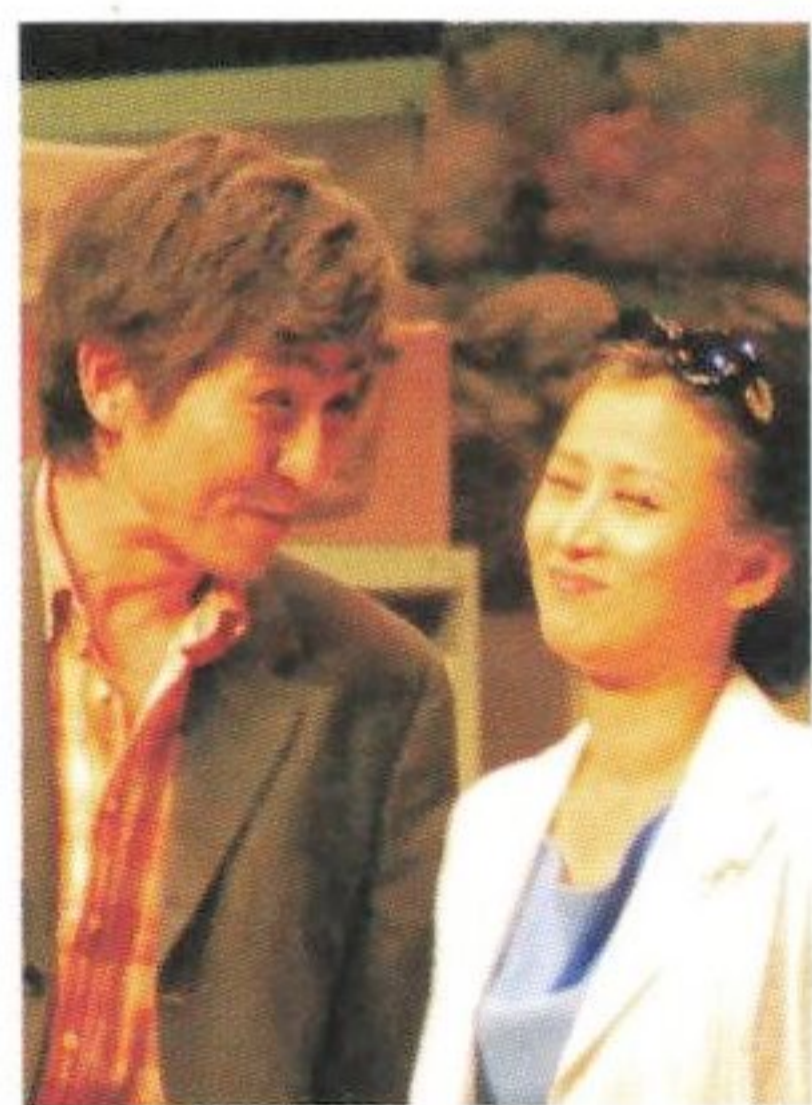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 출연/김아람, 김정훈, 금정원, 도정우, 송준승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연극 용띠 위에 개띠

12월 1일(수)-30일(목)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두드림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내기로 결정짓는 52년 용띠 남편과 57년 개띠 부인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사랑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 연출/전승환
- 출연/김진욱, 이민영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2,000원
- 문의 극단 전위무대(582-2026)

로맨틱 코미디극 잇츄유

2010년 12월 1일(수)-2011년 1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0:50, 12/25일 오후 2:00, 5:00, 9:00, 12/31일 오후 5:00, 9:00, 월요일 휴관)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꿈과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잇츄유'.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극단 아센 더이상 행복하지 않겠다

12월 3일(금)-2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사랑일까 의무일까' 한 부부의 기이한 동거의 진실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속에 펼쳐지는 연극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겠다'.

- 작,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호민, 호준철, 성민규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12월 3일(금)-31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12/24일 오후 4:00, 7:00, 10:30, 12/25일 오후 3:00, 6:30, 10:30, 12/31일 오후 7:00, 10:3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10대에서 60대까지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사랑' 5종 세트 창작뮤지컬.

- 작, 연출/위성신
- 출연/이승원, 유미, 김기정, 김태웅, 서현, 김정숙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조은사람들(1588 - 2757)

가마골소극장 송년 삼색전

12월 3일(금)-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2010년을 마무리하며 가마골소극장 최고 인기레퍼토리 세 작품을 연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가마골소극장 송년 삼색전.

■ 12월 3일(금)-12일(일) 서툰사람들

초보도둑과 어설픈 집주인이 펼치는 황당한 사건 속에 숨겨진 페이스스가 빛나는 작품.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홍선주, 박정무, 김철영, 김호윤

■ 12월 16일(목)-25일(토) 울고있는 저 여자

울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낯선 시선에 출발하는 세미뮤지컬로, '감성을 울리는 밀도 있는 무대'라는 호평을 받은 작품.

- 작/김현영 · 연출/이채경
- 출연/변진호, 김하영, 조승희

■ 12월 29일(수)-1월 2일(일)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해방정국의 혼란 상황속에서 친일, 친미의 기생충적 삶을 살았던 주인공 이중생을 통해 현대인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사회풍자극.

- 작/오영진 · 연출/이윤택
- 출연/이승현, 홍선주, 김철영, 김하영, 홍민수 외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초중고생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극단 가마골(1588-9155)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2:00, 4:00, 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명의 명작동화를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20% 할인)
-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가족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

12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9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신세계 문화홀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대형트리, 화려한 무대장치가 극의 재미를 더하는 성탄맞이 가족 뮤지컬.

· 작, 연출/조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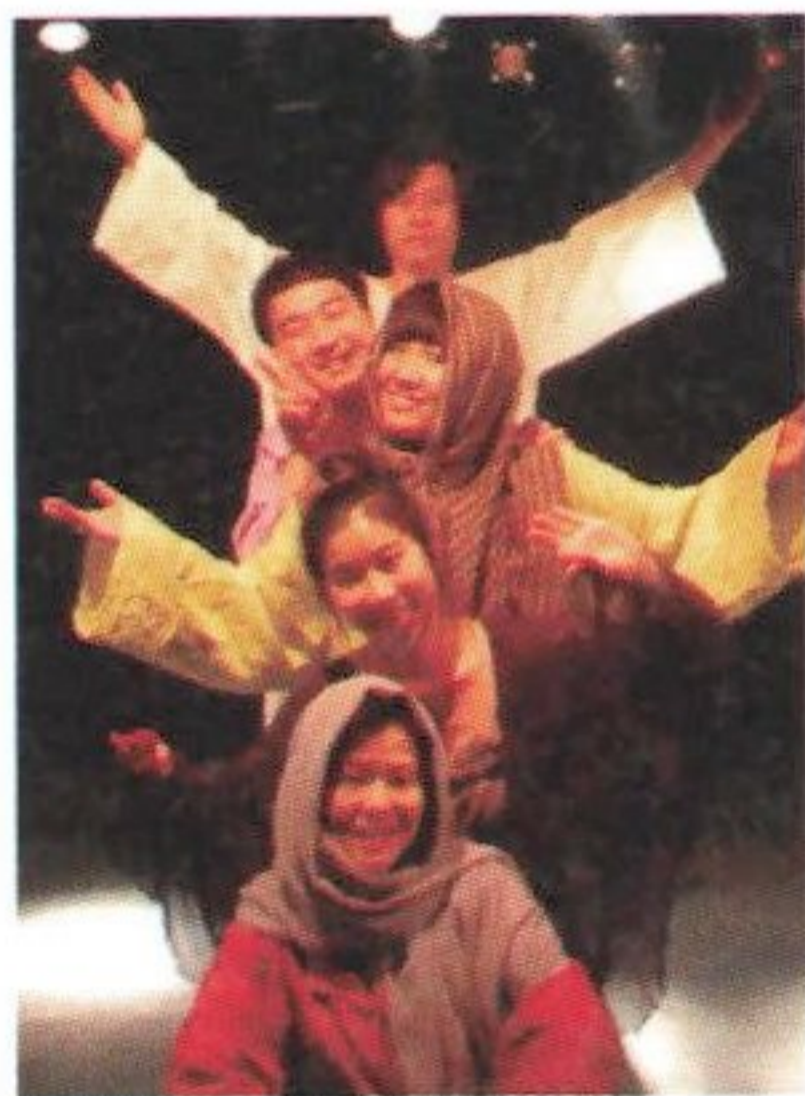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664)

부두연극단 부산예수

12월 7일(화)-23일(목)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종교와 신의 문제를 현대인의 시각으로 파고든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화 '몬트리올 예수'를 지금 여기 부산을 배경으로 새롭게 해석한 연극 '부산예수'.

· 작/이훈주

· 연출/이성규

· 출연/김대우, 김진모, 김은혜, 서정미, 박미경, 양은미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의 부두연극단(611-6616)

선물주는 산타할아버지

12월 9일(목)-12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루돌프 사슴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징글벨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롤송과 신나는 율동이 함께하는 성탄 가족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라일락향기(1661-0577)

호두까기 인형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12월 9일(목)-12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후 1:00, 3:00, 일요일 오후 12:00,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2월 15일-16일 수-목요일 오전 10:30, 11:40,

18일 토요일 오후 1:00, 3:00, 19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사랑받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춤과 노래가 있는 가족뮤지컬로 새롭게 제작한 작품.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무대가 재미를 더해준다.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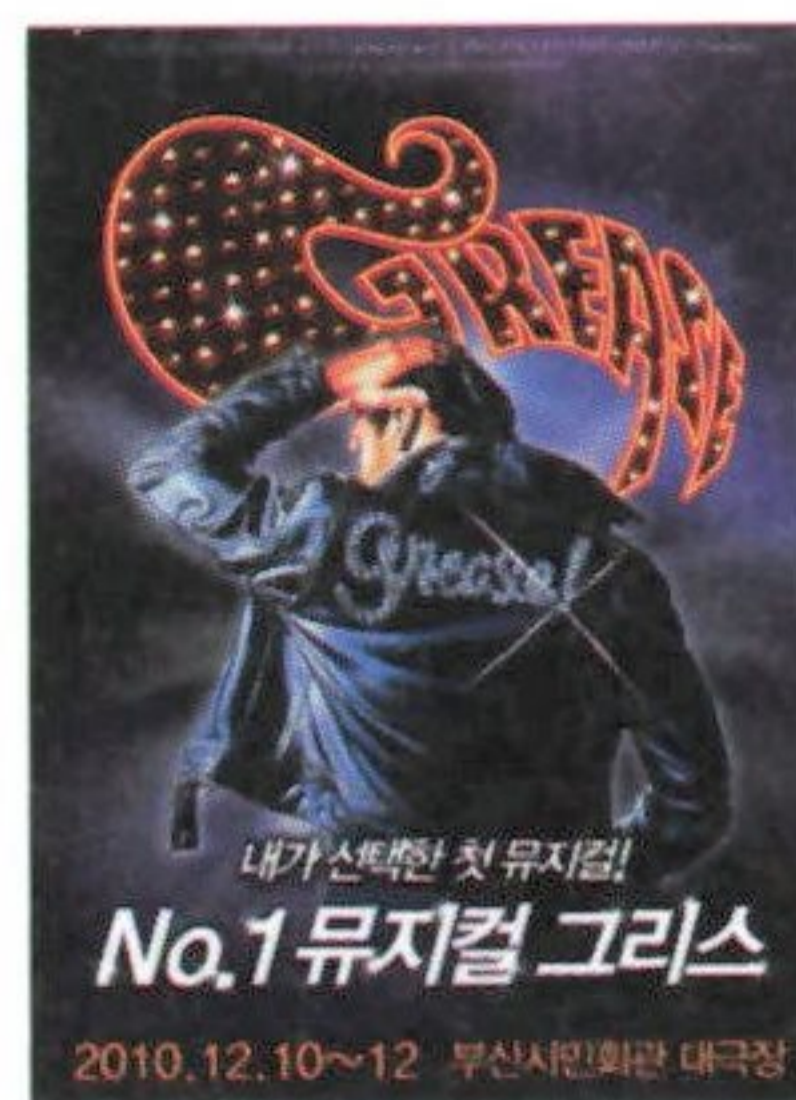
▪ 문의 라일락향기(1661-0577)

NO.1 뮤지컬 그리스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2일 일요일 오후 2:00

시민회관 대극장



1950년대 미국 10대들의 사랑과 꿈을 경쾌한 록&롤 리듬에 담아낸 브로드웨이 뮤지컬.

우리나라 중대형 뮤지컬로서는 최초로 1,600여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50,000원 · B석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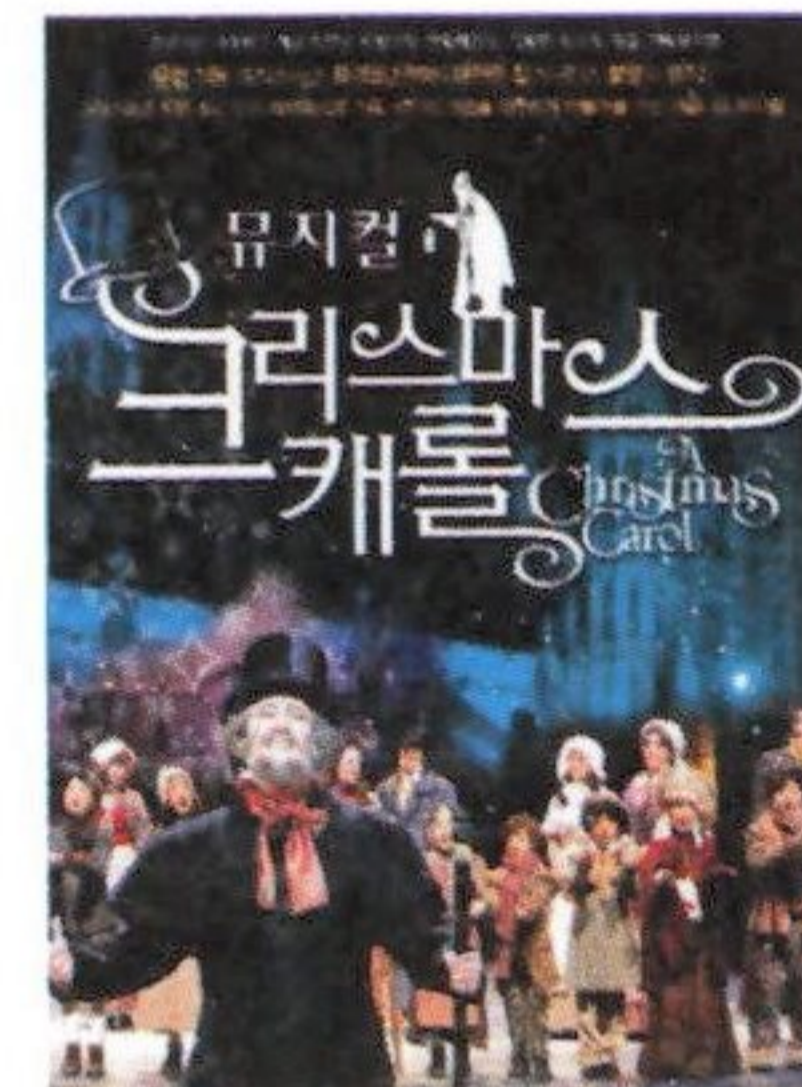
▪ 문의 (주)WSM(1600-1716)

가족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8:00, 17일 금요일 오후

4:00, 8:00, 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9

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체코 작곡가 데니악 바르탁의 서정적인 음악과 유럽 전통의 고풍스러운 크리스마스 풍경을 재현한 아름다운 무대와 의상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해주는 가족뮤지컬.

· 작/김의경, 안현정

· 재구성, 연출/이병훈

· 음악/데니악 바르탁

· 안무/박일규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산타와 빨간모자

12월 16일(목)-26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월요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소극장

인형극과 그림자극이 배우의 연기와 어우러져 재미를 더해주는 성탄 가족극.

▪ 관람료 균일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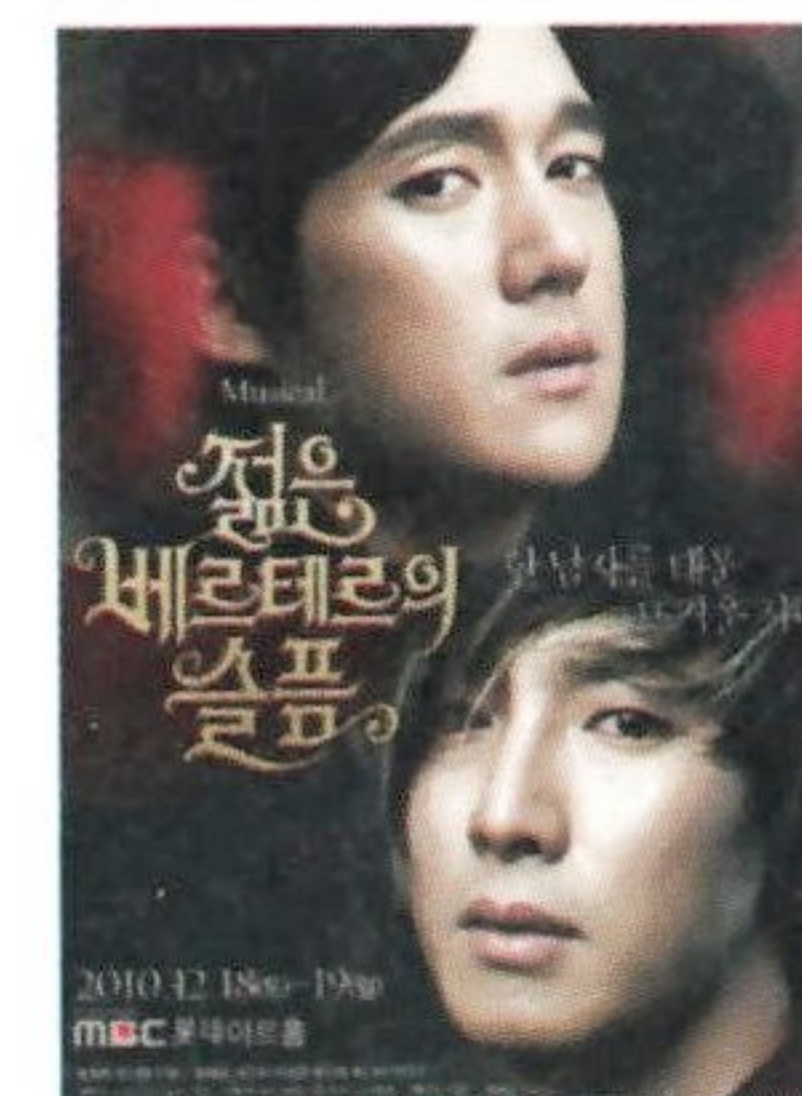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라일락향기(1661-0577)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9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을 원작으로, 약혼자가 있는 여주인공을 사랑하다 결국 자살에 이르는 주인공 베르테르의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최근 뮤지컬과 TV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는 박건형, 송창의, 민영기가 주인공 베르테르 역을 맡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아 3인 3색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뮤지컬 년센스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2월 18일(토)~31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단, 12/24일, 12/31일 오후 7:30, 10:30, 일요일 공연없음) 동아대학교 석당홀

식중독으로 숨진 동료 수녀들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명 수녀들의 좌충우돌 헤프닝이 코믹하게 펼쳐지는 뮤지컬 '년센스'.

-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11/30일까지 예매시 30% 할인)
- **문의** (주)WSM(1600-1716)

개그 선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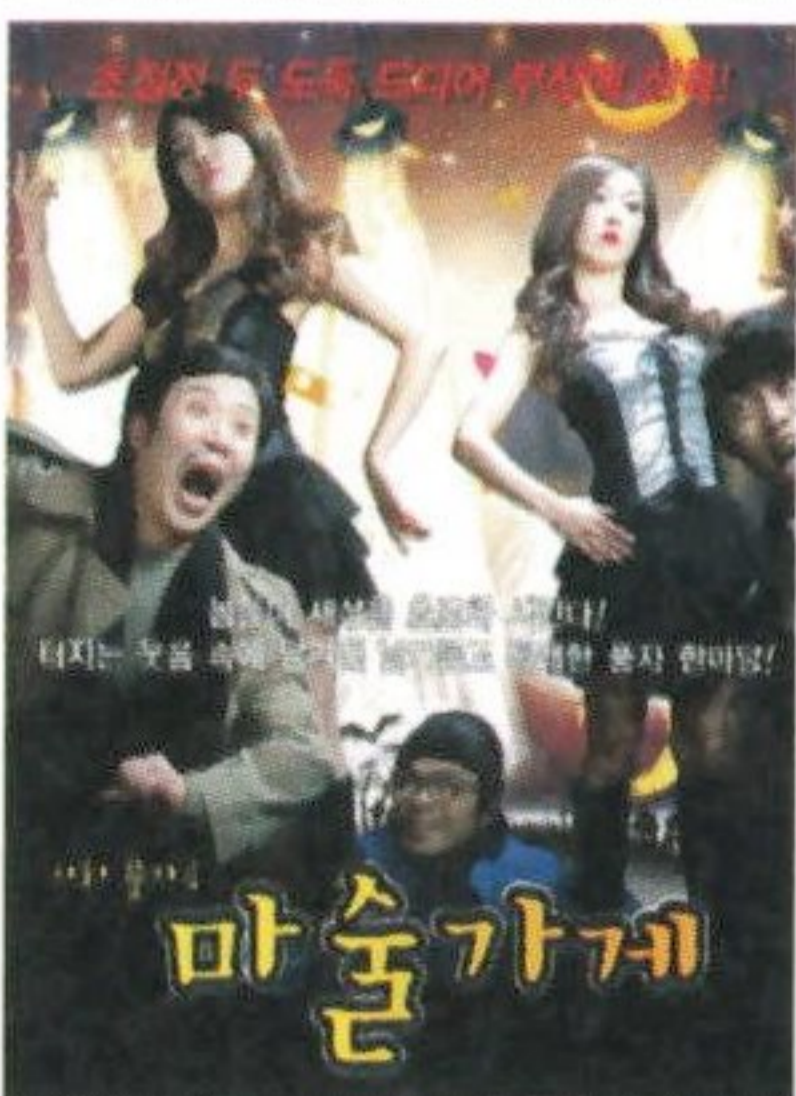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3:00, 6:30 KBS부산홀

TV로 방영되고 있는 개그프로그램의 화제의 코너들을 생생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개그버라이어티.

- **관람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신감각 풍자코믹극 마술가게

12월 21일(화)~31일(금)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6:00(단, 12/24일 오후 2:00, 5:30, 9:00, 12/30일 오후 6:00, 9:00, 12/31일 오후 5:00, 8: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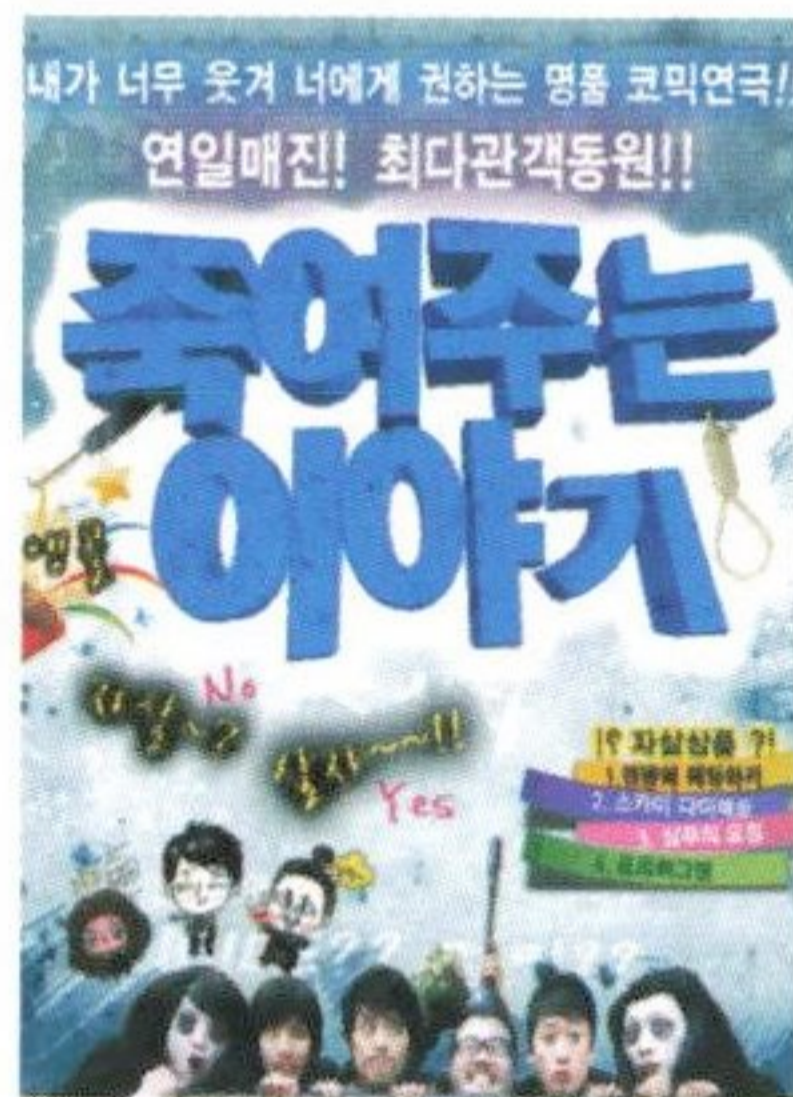
베테랑 도둑과 초짜 도둑의 이유있는 궤변으로 우리사회를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세태 풍자극.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 (1600-1602)

꼭소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0년 12월 21일(화)~2011년 1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0:50, 12/25일 오후 2:00, 5:00, 9:00, 12/31일 오후 5:00, 9: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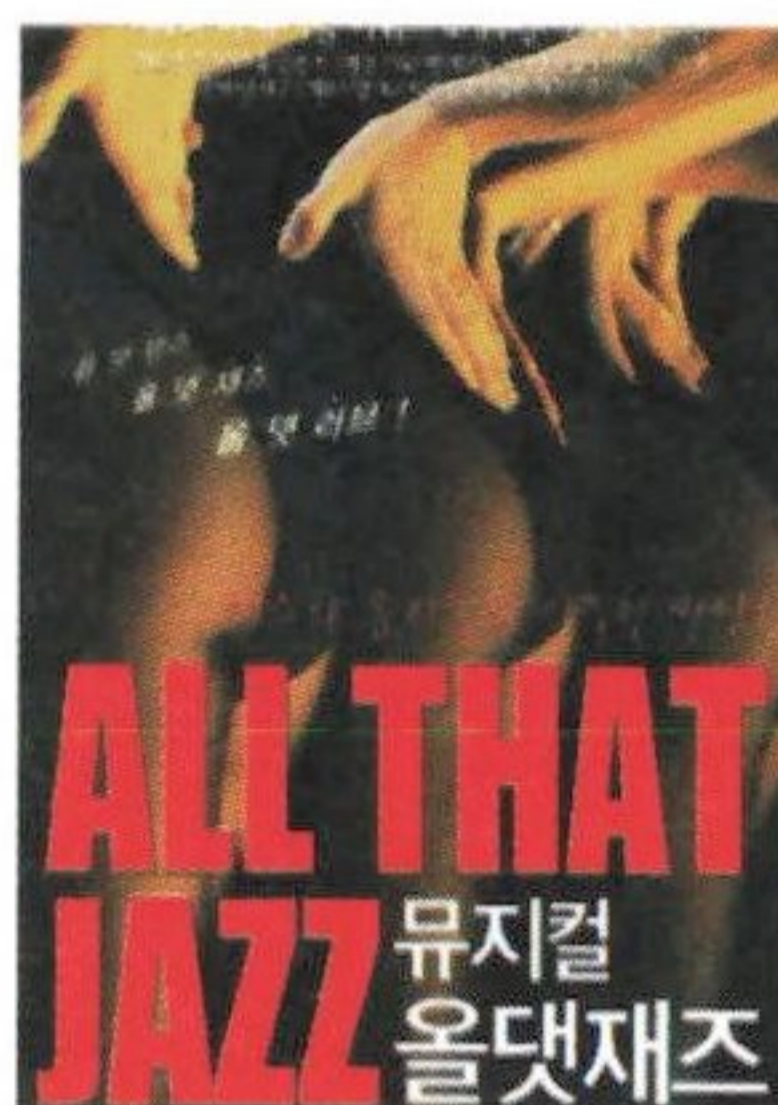
자살마저도 하나의 흥밋거리가 되는 우리 사회를 위트와 풍자로 그려낸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 작, 연출/이훈국
- 출연/이광수, 김지훈, 박상현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뮤지컬 올 댓 재즈 All that Jazz

2010년 12월 22일(수)~2011년 1월 2일(일) 평일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2:00, 6:00(12/24일, 12/31일 오후 7:00, 11:00, 1/2일 오후 2: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일상에서 꿈을 잃고 살아가는 한 여자가 옛 사랑을 만나 잃어버린 사랑과 꿈을 되찾는 내용이 귀에 익숙한 재즈 넘버와 관능적인 춤과 함께 펼쳐지는 재즈뮤지컬 '올 댓 재즈'.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뮤지컬 화랑

12월 23일(목)~31일(금) 23일, 28일~29일 오후 8:00, 24일 오후 2:00, 5:30, 9:00, 25일~26일 오후 2:00, 6:00, 30일 오후 6:00, 9:00, 31일 오후 5:00, 8:30(월요일 휴관)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시대 왕과 귀족의 자제로 구성된 청소년



심신수련 조직인 '화랑'을 소재로, 화랑이 되기 위한 주인공들의 꿈과 사랑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 대본, 작사/이오진
- 작곡/차경찬

- 연출/성천모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2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6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1980년대 미국 LA에 있는 전설적 록 클럽 '더 버본'을 배경으로, 록커를 꿈꾸는 주인공의 열정과 사랑을 폭발적인 록음악으로 풀어낸 브로드웨이 최신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

안재욱, 온유, 제이, 신성우 등 화려한 출연진과 함께 국내 최고의 락그룹 노바소닉 멤버들이 출연, 강렬한 락음악을 선사한다.

- 연출/왕용범
- 음악/이성준 · 안무/서병구
-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뮤지컬 쓰릴 미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10:00,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실제 시카고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리얼 뮤지컬 '쓰릴 미'.

치밀하고도 탄탄한 심리묘사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흡입력 있는 전개가 화려하면

서도 힘있는 피아노 선율 속에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최현우 크리스마스 매직콘서트 이상한 나라의 현우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1:00, 25일 토요일 오후 4:00, 8: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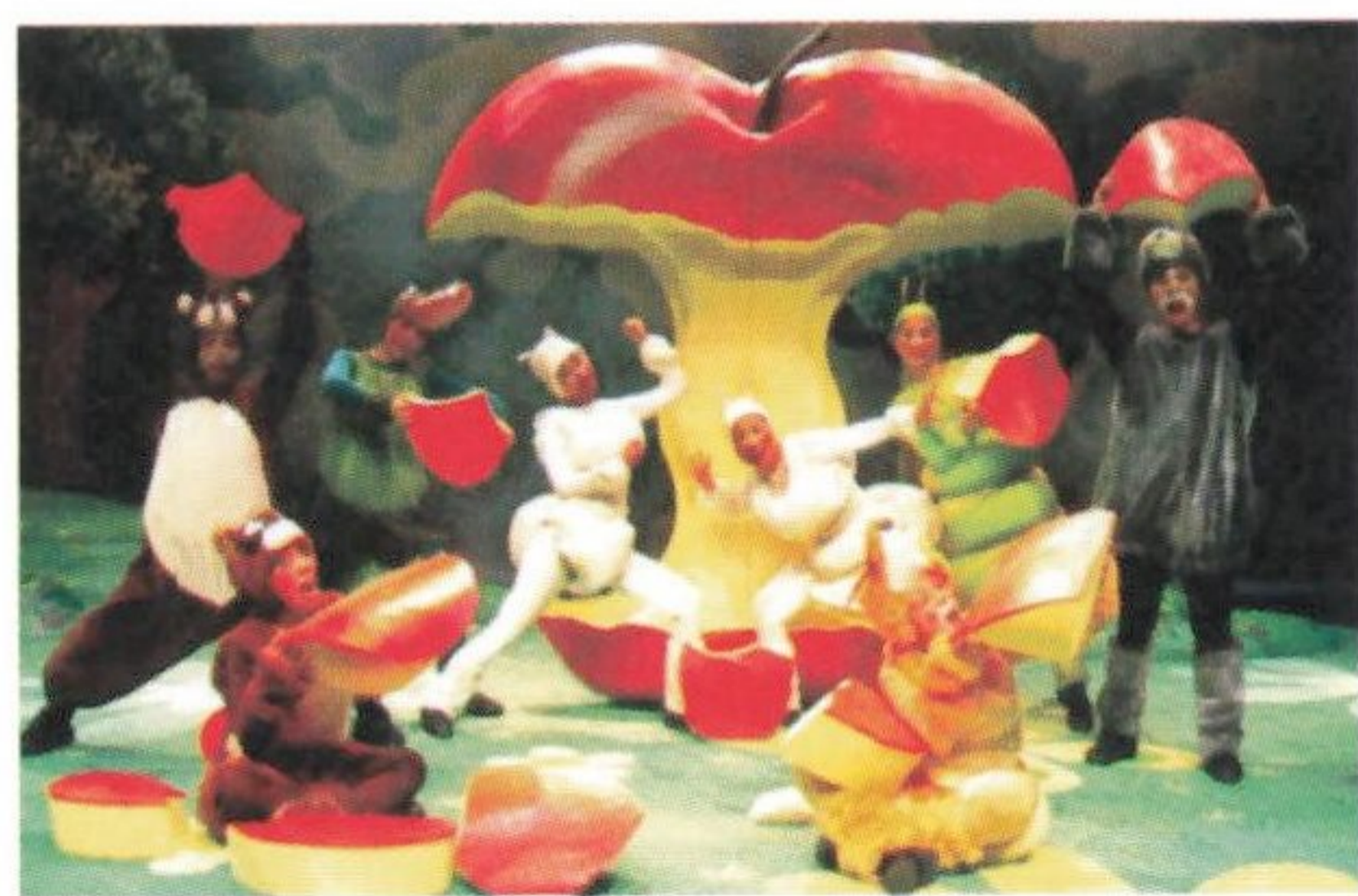


2009년 마술월드컵이라 불리는 F.I.S.M (Federation International Society Magic) 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Most Originality Award 를 수상해 화제를 모은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문의 (주)WSM(1600-1716)

어린이 뮤지컬 사과가 쿵!

12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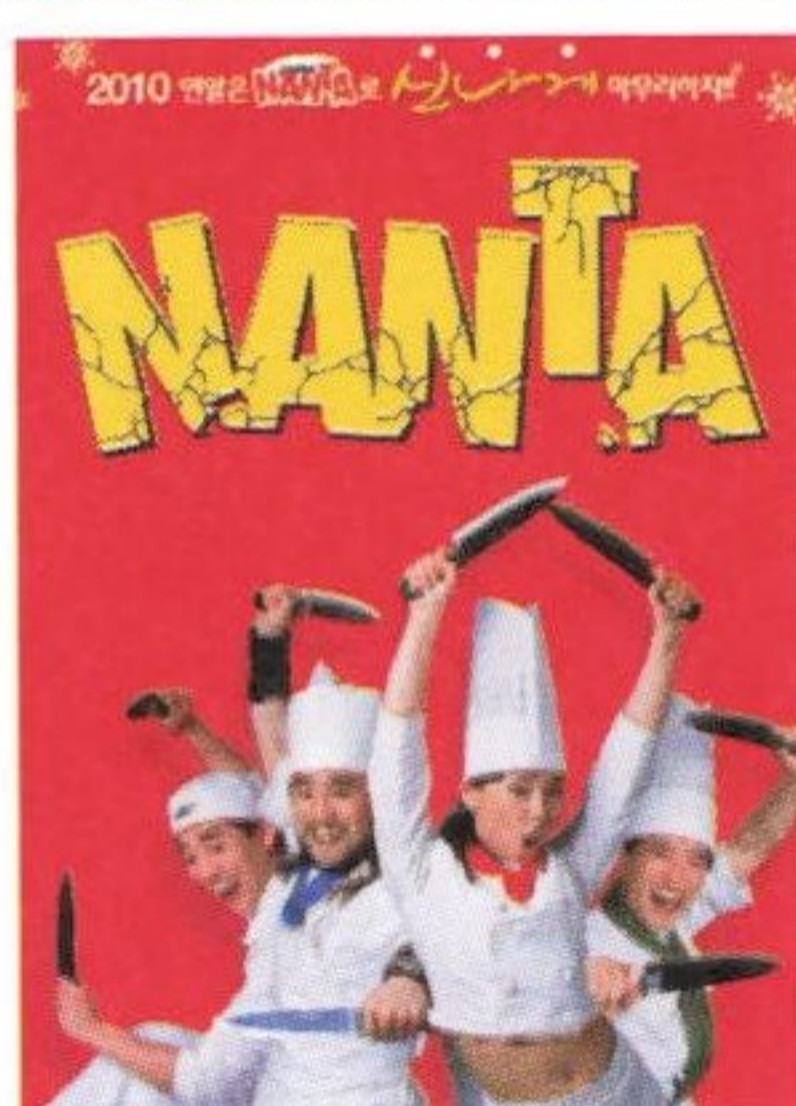


책을 넘기면 입체그림이 펼쳐지는 팝업북처럼 무대 위 대형 입체그림을 등장시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린이 뮤지컬.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5,000원
-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664)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12월 29일(수)-30일 수-목요일 오후 8:00, 31일 금요일 오후 7:00, 10:30 MBC롯데아트홀



2003년 브로드웨이 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화제를 모은 우리나라 최초의 년버벌 퍼포먼스로, 피로연을 준비하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코믹하게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DANCE

2010 김옥련발레단 창작발레 분홍신 그 '男子'

12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발레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분홍신 그 남자'.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잃어가는 저마다의 희망을 춤과 노래, 연주로 선보인다.

· 특별출연/이원국(이

원국발레단 단장 및 예술감독)

- 출연/박영진, 김옥련(주역 무용수), 이은민(테너), 박현정(소프라노), 송용창(아코디언), 고충진(클래식기타), 박미은(피아노), 김정원(첼로)

- 관람료 일반 30,000원 · 학생 20,000원 (전화예매시 30% 할인, 사랑티켓 참가자)
- 문의 김옥련발레단(626-9486)

남선희 '춤 脈잇기...려인만정 (麗人滿情)'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경남무형문화재 진주교방굿거리춤 이수자인 남선희가 스승인 故春堂 김수악 선생과 故沙雁 송화영 선생의 예술脈을 잇고자 마련한 무대.

프로그램

모란風에 피꼬리, 김수악류 살풀이춤, 장삼춤에 법고, 구음검무, 鄉妓입춤(영남굿거리춤), 태평무, 연화지무, 진주교방굿거리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남선희(010-6345-9338)

최지은의 춤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전수자, 국립부산국악원 준단원으로 활동중인 춤꾼 최지은의 전통춤 무대.

프로그램

춘앵전, 장고춤, 살풀이춤, 흥춤, 창작춤 '설화'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최지은(017-858-2315)

춤패 배김새 25주년 기념공연 환(還)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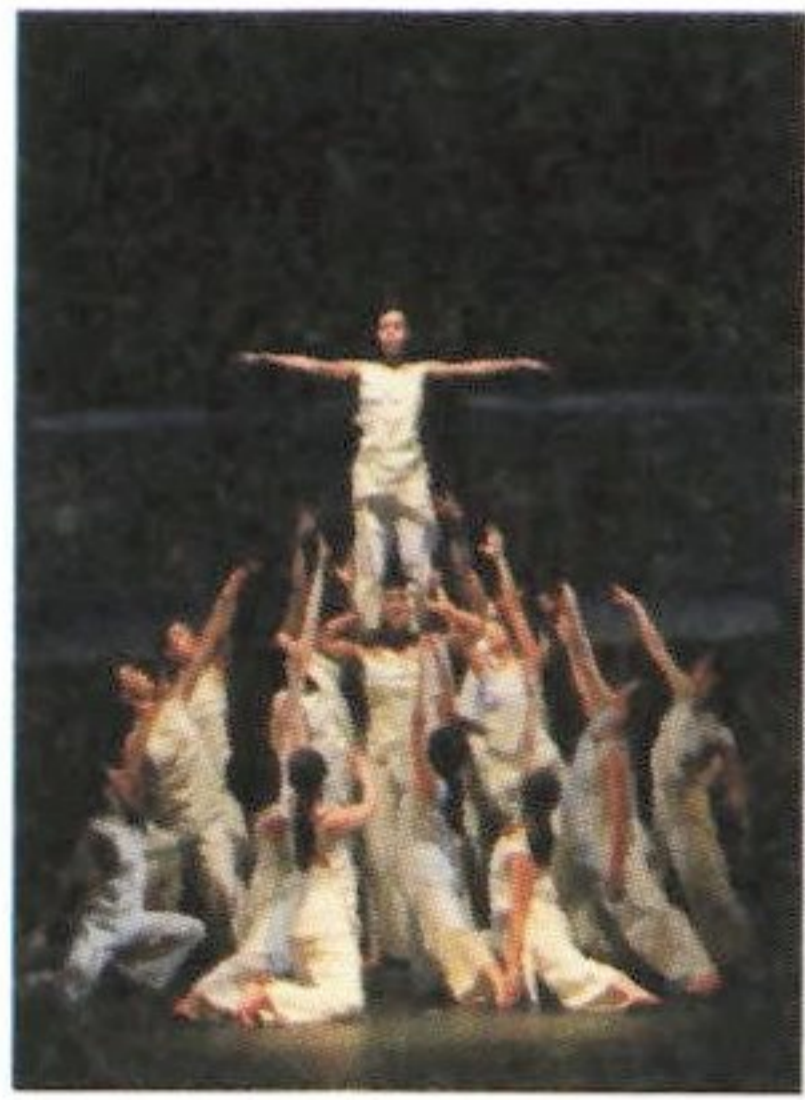
창단 25주년을 맞는 춤패 배김새가 배김새와 함께 했던 부산무용의 25년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무대.

배김새 대표이자 25년을 함께 한 하연화와 배김새의 젊은 춤꾼 안주현의 창작춤 무대를 통해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무용 >> 전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해 본다.

작품

- 1장 바다 나비
- 2장 삼도강-꿈꾸는 식물
- 3장 闊步 활보
- 연출/최은희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배김새(010-4547-4761)

CONCERT

해운대문화회관 목요미니콘서트 끌림 토크가 있는 추억여행 위일청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나윤선 2010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6)

CNBLUE 두번째 라이브콘서트 FEEL THE BLUE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2010 이문세 The Best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8:00, 25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SR석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88,000원 · A석 77,000원
B석 66,000원
- 문 의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2010 The Sou 김범수 · 바이브 · 이영현 The Great Singers

12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11:00 KBS부산홀

- 관람료 SR석 121,000원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김장훈 · 싸이 완타치 2010

12월 29일 수요일 오후 8:45, 30일 목요일 오후 8:00, 31일 금요일 오후 7:45, 11:45 KBS부산홀

- 관람료 SR석 132,000원 · R석 121,000원
S석 99,000원 · A석 77,000원
B석 66,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이승철 콘서트 화이트오케스트라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0: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SR석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88,000원 · A석 77,000원
B석 66,000원
- 문 의 SPA엔터테인먼트(1599-2535)

루시드 폴 Silent night, Nylon night 2001

1월 2일 일요일 오후 2:30, 6:30
시민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15주년 풍파티 컬투쇼

1월 2일 일요일 오후 3:00, 6:3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문 의 (주)WSM(1600-1716)

GALLERY

이명호 사진전 사진행위 프로젝트

2010년 11월 13일(토)~2011년 1월 1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MBC 트릭아트 부산 특별전

2010년 11월 26일(금)~2011년 2월 27일(일)
MBC 트릭아트 특설전시관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주)문화방송(1544-0733)

김재선갤러리 148번째 기획전 Now in Latin America

11월 26일(금)~12월 31일(금)(월요일 휴관)
김재선갤러리

정열적인 라틴아메리카의 현대미술을 만날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 문 의 김재선갤러리(731-5438)

김현숙 사진전

12월 1일(수)~12월 31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문정화 개인전

12월 7일(화)~12월 13일(월) 갤러리 예가

-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크리스마스 특별기획 김다영 개인전

12월 10일(금)~12월 23일(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타워갤러리 이전기념 송년 그림전

12월 15(수)~12월 31일(토)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백조의 호수'

'러시아 발레의 자존심'이라는 그 명성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준 뛰어난 무대. 특히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아름다운 무대 장치와 라이브로 연주되는 차이코프스키의 애절한 선율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다. 서로 다른 색깔의 오데트와 오딜을 훌륭하게 표현해낸 발레리나에게 박수를 보낸다.

- 최유진(금정구 부곡동)

제 2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프랑스의 여류소설가 사강이 좋아한 브람스의 음악을 늦은 가을저녁에 만났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평생을 독신으로 산 그의 음악은 연주 내내 잔잔히 가슴을 적셨다.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한 부산월드필의 음악과 협연자 데이비드 김의 연주가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도 사강이 묻는다. 브람스를 좋아하십니까?

- dolce20

한낮의 유U;콘서트

지상 최고의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는 말을 심감케하는 젠틀맨싱어즈의 멋진 하모니... 피아노와 첼로의 마음 적시는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윤공주의 파워풀한 가창력의 멋진 노래를 들려줘 제목 그대로 내 영혼의 울림을 전해주는 시간이었다.

- 이해영(금정구 장전동)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형사'

TV광고를 보다보면 화면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내게로 다가오는 듯한 장면을 보곤한다... 이번 공연이 바로 그 느낌이랄까... 영화 '형사' 스크린 속의 한 장면을 무대 위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이 색다르지만 흥미로웠다. 다소 무거운 느낌을 익살스럽고 흥겨운 춤사위와 귀에 익은 음악으로 표현하여 그 어느때 보다 인상 깊었던 공연이었다.

- 김정숙(남구 용호동)

연극 'The Monstre-가족이 있어'

삼면이 벽으로 되어있는 무대에는 아무런 소품도 없다. 벽이 회전하면서 문이 되고 하나 둘 등장하는 배우들. 회전문이라는 기발한 극적 장치와 함께 한 가족의 웃기는 살인청부 사업이 그 서막을 시작한다. 그 가족의 패밀리 주식회사는 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나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했다. 누군가는 우리의 영웅이거나 우리의 암적인 존재이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기회주의자일지도. 간만에 나의 상상력을 꿈틀거리게 하는 멋진 작품이었다.

- 전상수(수영구 남천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곰탕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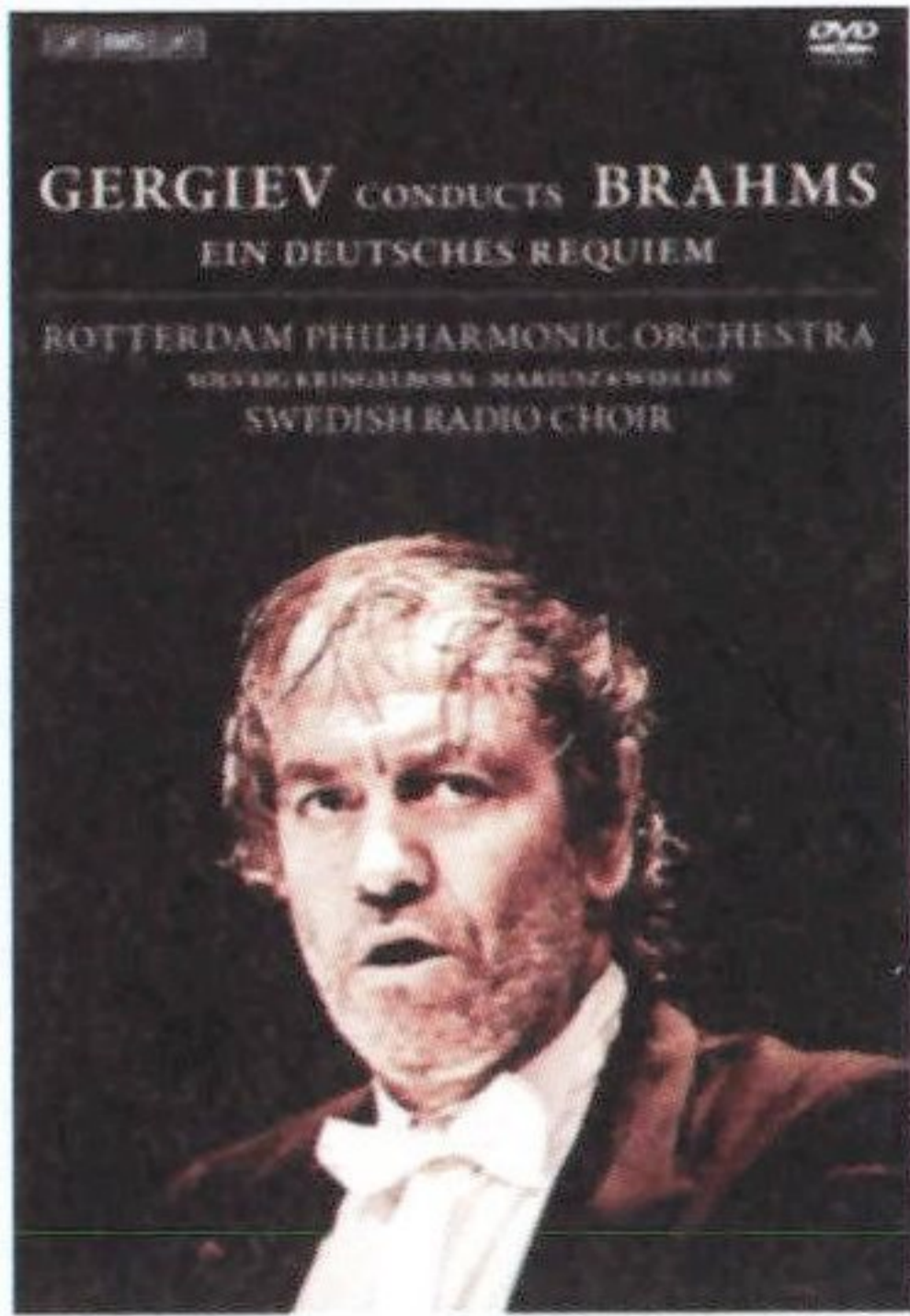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브람스 독일 레퀴엠 op.45

연주/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웨덴 라디오 합창단, 솔베이그 크링겔본(소프라노), 마리우츠 퀴에시엔(바리톤)

이 DVD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 및 음악 감독으로서 마지막 콘서트를 가졌던 2008년 5월 25일, 로테르담의 'De Doelen 콘서트홀'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이다. 21세기 러시아 악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게르기예프는 수많은 명반을 통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휘자이다. BIS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DVD가 세계적인 명장이자 국내에서도 높은 지명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르기예프의 작품이라는 점이 무척 반가운 일이며, 더욱이 오랜 세월을 몸담은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마지막 공연이었다는 점이 이 앨범을 더욱 의미 깊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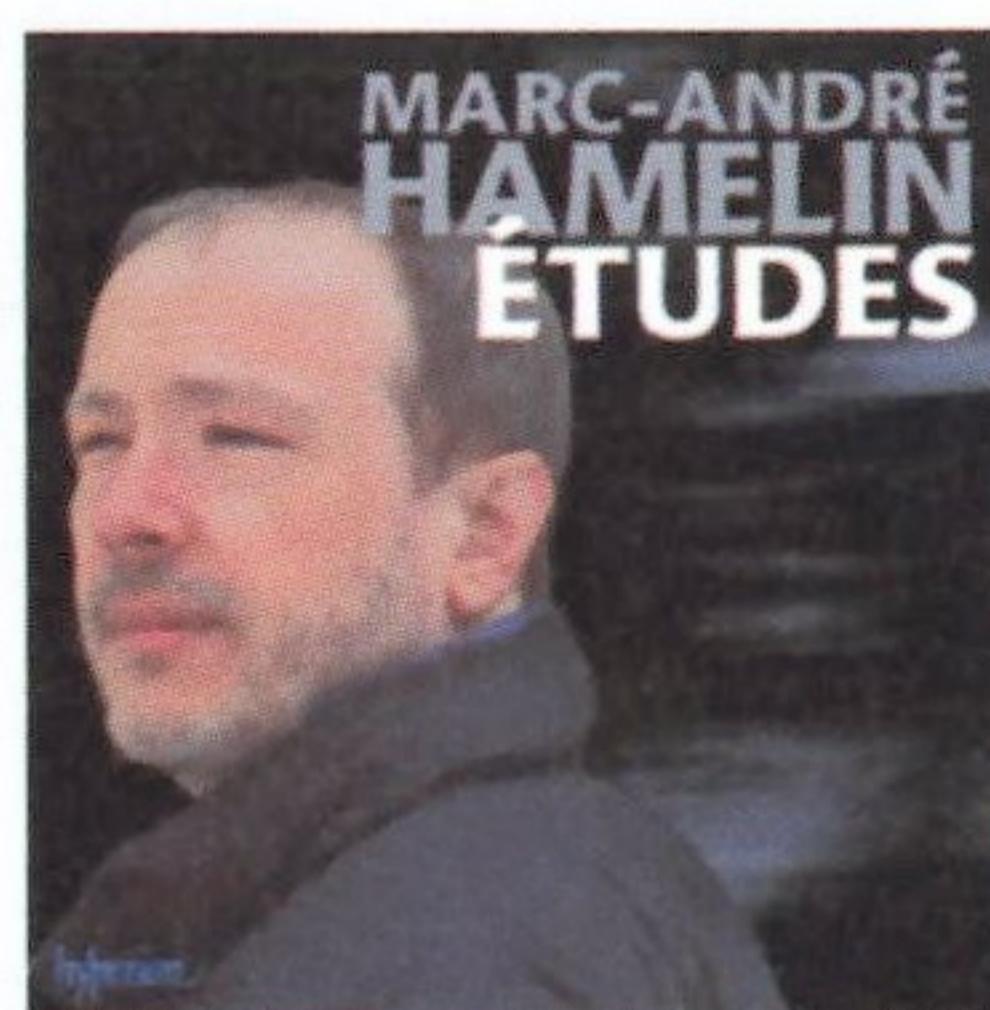


쇼팽 피아노 협주곡 1, 2번

연주/니콜라이 데미덴코(1번), 에프게니 키신(2번), 바르샤바 필하모닉(지휘/안토니 비트)

▶ 쇼팽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키신과 데미덴코의 감동적인 선물

2010년 2월 27일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작곡가의 고국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특별한 기념콘서트가 펼쳐졌다. 안토니 비트가 이끄는 바르샤바 필하모닉의 든든한 반주에 맞춰서 러시아가 배출한 최고 명성의 두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의 협주곡 1, 2번을 한 무대에서 연이어 연주한 것이다. 에프게니 키신과 니콜라이 데미덴코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했던 신동 연주자와 뒤늦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대기만성형의 연주자라는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두 연주자는 모두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반의 마에스트로들로 음악계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이 한 날 한 무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두 연주자 모두가 각자의 뚜렷한 개성과 완벽한 연주기교를 바탕으로 빛어낸 걸출한 연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상물은 쇼팽 음악 애호가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데미덴코가 앙코르로 연주한 마주르카 Op.17-4와 키신의 앙코르 곡들인 '혁명' 에튀드와 왈츠 E단조의 감동도 각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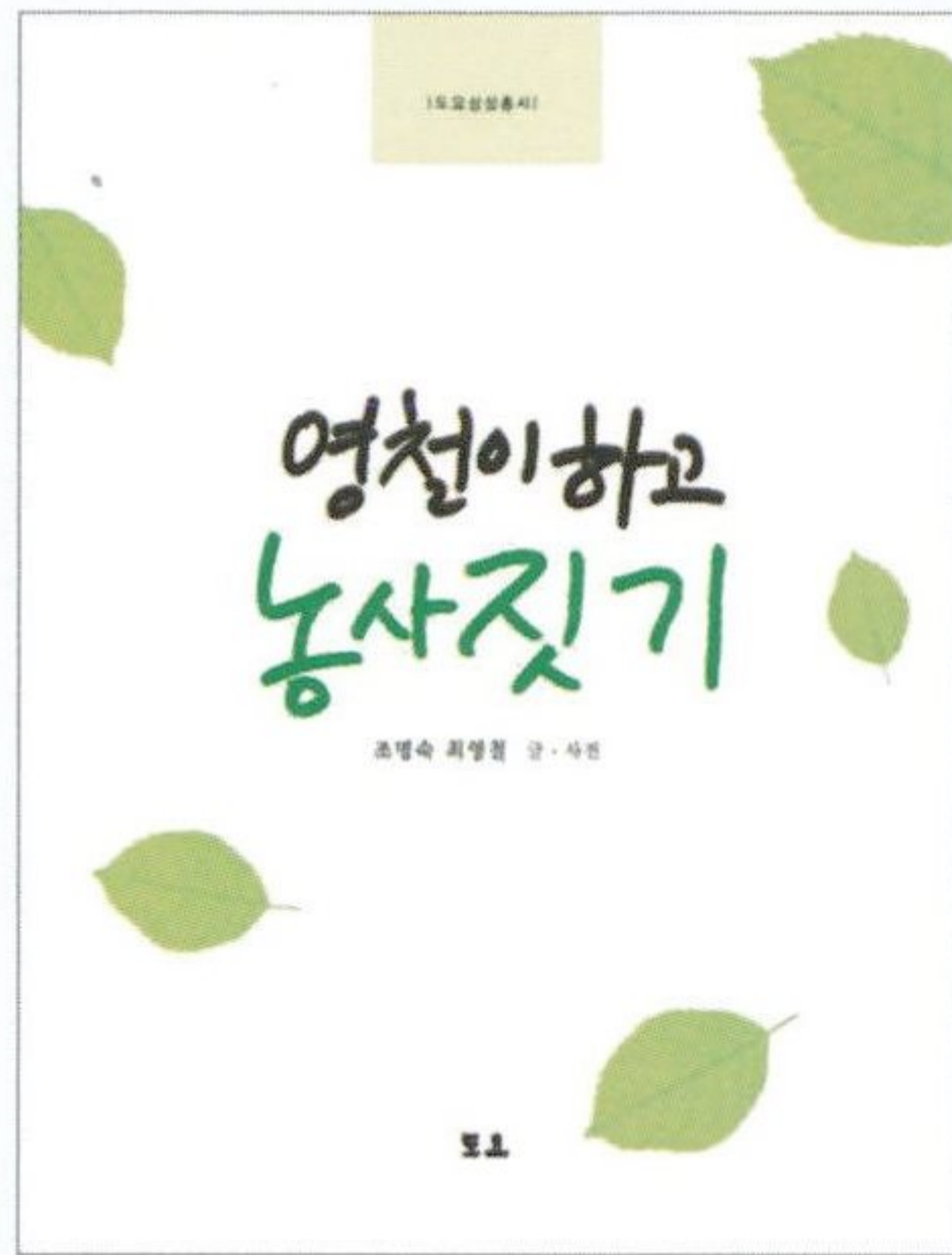
아를랭 단조에 의한 12개의 연습곡 외

연주/마크-앙드레 아를랭(1961~)

수많은 초절기교 작품으로 청중들을 놀래켜 왔던 슈퍼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 '마크-앙드레 아를랭'이 이번에 도전을 시도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이미 피아노 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었던 작곡가 아를랭의 초대 작 '단조에 의한 12개의 연습곡'의 전곡 녹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드디어 등장하였다. 구상, 작곡에 약 2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2009년에 완성된 아를랭의 이 작품은 '피아노 솔로를 위한 심포니'나 '피아노 솔로를 위한 협주곡'을 포함해 알캉의 난곡 '단조에 의한 12개의 연습곡 Op.39'를 모티브로 작곡된 작품이며, 그 난이도는 이미 다른 차원의 수준이다. 한층 더 어려운 곡으로 다시 태어난 '쇼팽의 에튀드'라 캄파넬라, 그리고 자작의 '그로테스크한 토카타'와 '전주곡과 푸가' 등 아를랭이 연주하는 아를랭의 음악은 이전 레코딩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그리고 피앙세인 캐시 풀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주제와 변주곡' 등 아를랭에 의한 아를랭의 음악을 맘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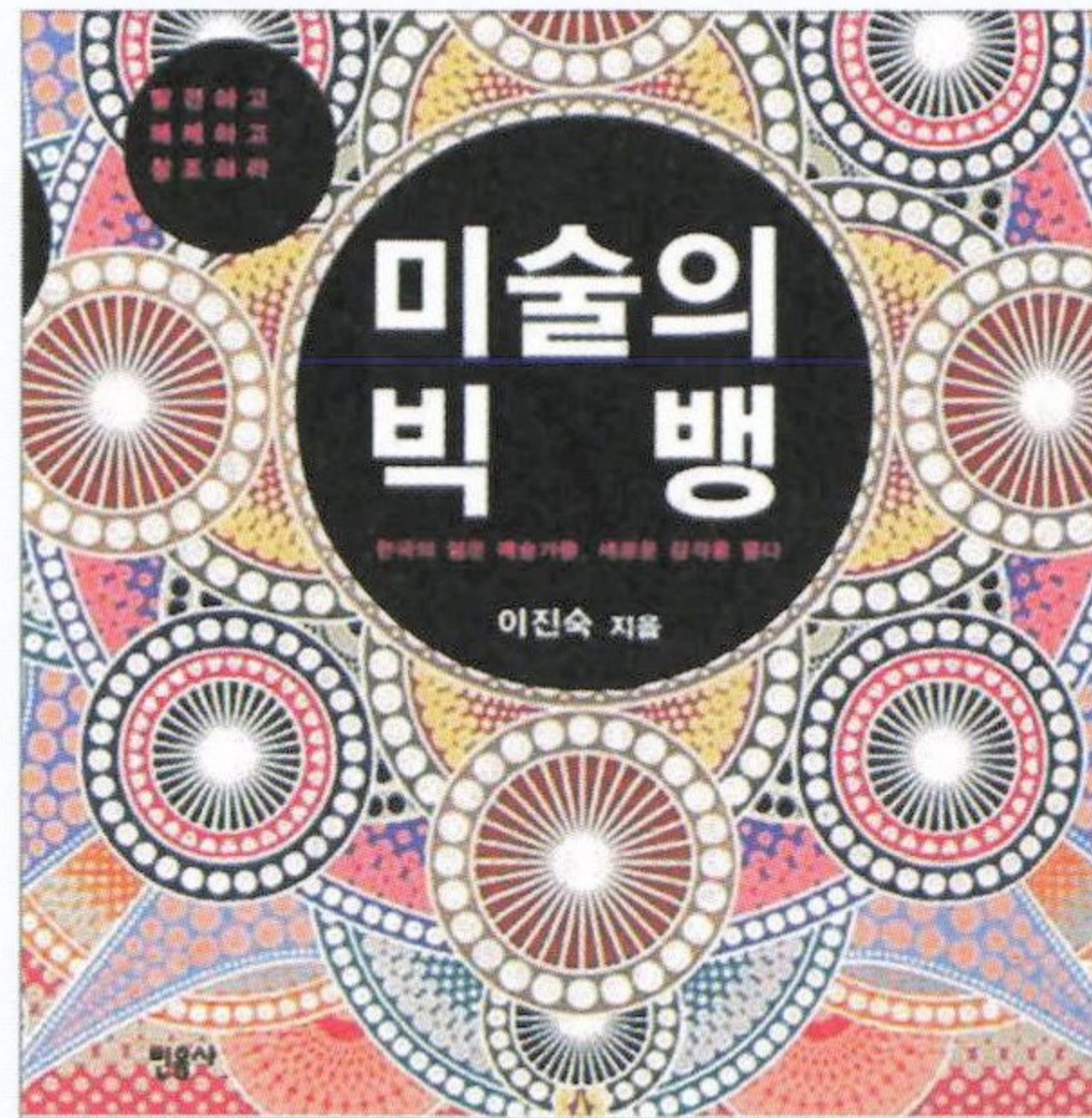
박현주 _ 북칼럼니스트



영철이와 농사짓기

조명숙 · 최영철 글, 사진
도요 / 271p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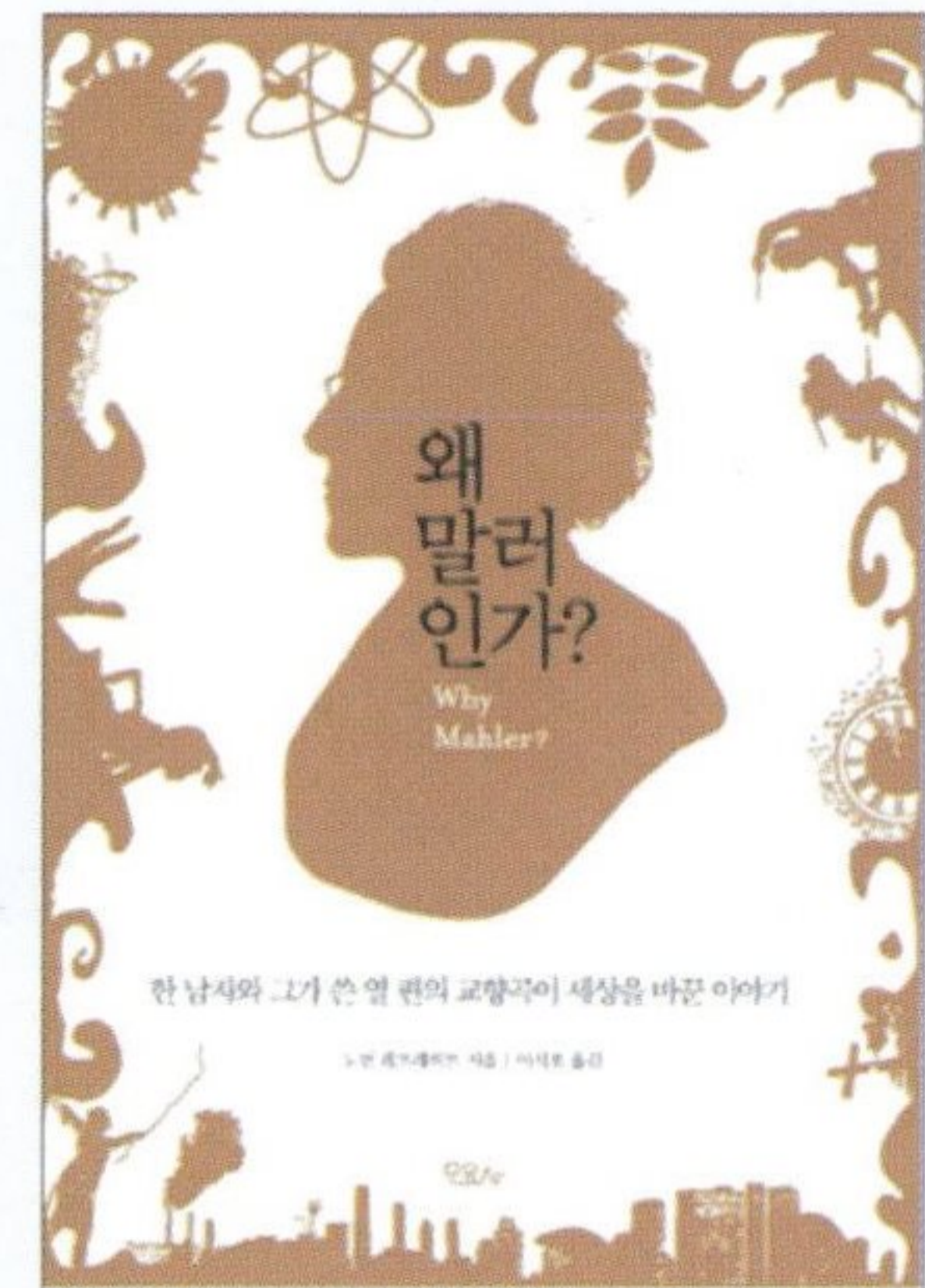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은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는 감탄과 주눅을 불러오고, 역귀농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나는 어림도 없겠구나” 겁먹게 만든다. 최영철 시인과 조명숙 소설가도 김해의 마사리에서 농사를 지었던 일을 책으로 냈는데 앞의 책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마치 휴먼 다큐프로그램 <인간극장>이라도 보는 듯하다. ‘우수, 첫삽’ ‘오미자 구기자 심다’ ‘감잎차 대작전’ ‘역새밭을 머위 밭으로’ 등의 소제목으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부산에서 마사리 까지 오고 가는 지난 4년 동안 두 사람이 겪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 책에는 우아한 전원생활이라는 식의 거짓 낭만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설부른 자랑도 없다. 날씨 살펴 당장 마사리에 가고 싶다가도 몸이 힘들면 피가 나고, 나무 이름을 몰라 이름표를 달아주면서 얼굴을 익히고, 고라니가 무청을 모조리 뜯어먹고 가도 무를 남겨준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들의 밭주인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작은 행복과 기쁨은 어떻게 수확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책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



미술의 빅뱅

이진숙 지음
민음사 / 373p / 25,000원

러시아 여행 중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서 본 작품들에 크게 감명 받아 평생의 업으로 여겨 오던 문학을 등지고 미술의 세계로 뛰어든 이진숙 씨가 새로운 감각을 보여준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한국 미술 최전방에 서 있는 작가들 가운데 16명을 모은 이 책을 펼치면 고전에 대한 탄탄한 연구 위에 오늘의 한국이 낳은 새로운 감각으로 획기적인 사고와 시각을 선보이며 로봇아트, 사진조각, 팝아트 등 기존 한국 미술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젊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독창적인 그림으로 세상의 폭력에 저항하는 이승애와 김정욱, 모든 경계를 허물며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김아타, 시적 감응력으로 구상을 추상이 되기까지 밀어붙인 김혜련과 정수진, 한국산 팝아트의 창시자 이동기, 노마디즘을 시각화한 서도호 등 열여섯 명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 무엇보다 “유행, 시장의 횡포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이룬 작가”들이다. 지은이는 이 그림들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감한다”고 말한다. 미술을 ‘공부’하게 하지 않고 ‘느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의 감상을 따라가보자.



왜 말러인가

노먼 브레히트 지음, 이석호 옮김
모요사 / 544p / 25,000원

지휘자 정명훈은 “말러 작품을 연주하기 위해 지휘자가 됐다. 연주할 때마다 더 배우고 더 깊이 파고들어갈 수 있는 ‘광활한 우주’ 같은 음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구스타프 말러(1860~1911)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지휘자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헤미아 태생인 말러는 오스트리아인들 사이에서는 보헤미아인이요, 독일인들 가운데서는 오스트리아인이며, 세계에서는 유태인으로 ‘삼중으로 고향이 없는’ 고독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속에서 절망감이나 염세관, 괴기한 해학이나 초연한 탐미,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고독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음악적으로는 근대음악 발전의 과도기에 속한 인물로 낭만파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작곡가라고도 할 수 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오케스트라 연주 레퍼토리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베토벤을 밀어내고 있는 말러는 “언젠가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자신의 예견대로 사후 백 년이 지나 교향곡의 명장으로, 가장 사랑받는 작곡가로 우뚝 섰다. 올해는 말러 탄생 150주년, 내년은 서거 100주년이다. 음악평론가 노먼 브레히트가 쓴 말러의 전기 through 통해 아직은 낯선 위대한 음악가를 만나보자.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12월 공연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12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201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은 2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시작으로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내사랑 부산공연 등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12월 2일(목) 11:00 국제신문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수험생들과 함께'	(출연/합창단)
12월 7일(화) 10:40 상리초등학교	꿈나무소망심기공연 '상리초등학교와 함께'	(출연/교향악단)
12월 8일(수) 12:00 주례 대도뷔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대남병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출연/교향악단)
12월 10일(금) 14:00 남성여고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남성여고와 함께'	(출연/교향악단)
12월 16일(목) 10:40 해남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해남학교 학생들과 함께'	(출연/무용단)
12월 17일(금) 19:30 북구문화빙상센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북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출연/국악관현악단)
12월 18일(토) 16:30 부산시립미술관	내사랑 부산공연 '미술관 음악회'	(출연/교향악단)
12월 22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합창단)
12월 29일(수) 19:30 영도문화예술회관	내사랑 부산공연 '영도주민들과 함께'	(출연/합창단)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222)

부산문화회관 셔틀버스 이용안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7번가 피자 앞) 출발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요일 19:0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222)



가족뮤지컬

나의라임 오렌지 나무

Meu Pe de Laranja Lima'



☆ 미기뉴!
널 만나서 난 가난하지 않아
너와 있으면 난 이 세상
☆ 누구보다 부자야!

원작 | J.M 바스콘셀로스 연출 | 정순지

출연 | 엄지선, 이현주, 황창기, 김주연, 김을희, 라세흠, 정행심, 이혁우, 유성주, 김두리, 이돈희, 신동훈, 이남희, 박찬영, 조아라, 김은옥, 객원출연 | 김경림, 김명정, 손유진
예술감독 | 김광보 작곡 | 이민정 안무 | 장래훈 무대디자인 | 황경호 의상디자인 | 황성원 분장디자인 | 이지원 음악감독 | 이연기 조명감독 | 곽동인 무대감독 | 최병운 조연출 | 이재은 디자인 | 김민관 기획 | 김향숙 홍보 | 김미화
예매처 | 부산문화회관 www.culture.busan.go.kr, www.ticketlink.c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균일 10,000원 관람연령 | 6세 이상 관람가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시립극단 일시 | 2010년 12월 24(금)~26(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고장 통영

때 아닌 가을 황사경보가 내려진 지난 11월 12일,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북적거렸다. 이 날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있는 날, 뿌연 황사바람도 여행을 떠나는 회원들의 설레임을 감출 수 없었다.

11월 테마여행지는 '동양의 나폴리'로 유명한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이 서려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을 비롯해 시인 김춘수, 유치환, 김상옥, 극작가 유치진, 작곡가 윤이상, 화가 전혁립 선생 등이 바로 통영 출신. 이들 예술가들의 자취를 따라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 특별한 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찬미, 이현성 씨가 동행했다.

2시간 30분여를 숨가쁘게 달려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꽃'의 시인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청마문학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망일봉 기슭에 자리한 청마문학관에는 청마의 유품 100여점과 각종 문헌자료 350여점이 전시되고 있어 선

생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문학관 바로 위쪽에는 시내 중심에 있던 생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시킨 청마생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아준 관장으로부터 청마 선생에 얽힌 재미나는 일화도 들을 수 있었다.

청마문학관을 나와 발길을 옮긴 곳은 바로 문학관 지척에 자리한 이순신공원. 공원에 들어서자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통영 앞바다를 향해 우뚝 선 이순신장군 동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높이만 17m에 달하는 이 대형 동상 앞에는 통영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데크가 자리해 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풍광에 회원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자에서 이번 여행에 동행했던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찬미, 이현성 씨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아름다운 풍광 속에 울려 퍼지는 고운 노래소리에 회원들의 박수소리도 높아만 간다.

오전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는 벽화마을로 유명한 '동피랑'. '동쪽의 벼랑'이란 뜻의 '동피랑'은 원래는 비탈을 따라 50여채



의 낡은 건물이 들어서 있던 어촌의 평범한 달동네였지만, 지난 2006년부터 예술가들이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통영의 명소가 되었다.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형형색색의 벽화 앞에서 카메라 셔트를 누르는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오전 일정을 끝내고 신선한 회와 매운탕, 맛깔스러운 반찬으로 점심식사까지 든든하게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윤이상 기념공원' 방문으로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독창적인 음악언어로 세계 현대음악계에 이름을 남긴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가 있던 도천동 일대에 조성된 윤이상 기념공원(도천테마기념관)에는 선생의 유품과 관련자료 등이 전시된 전시관과 실내공연장인 메모리홀, 야외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기념관 2층 전시관에는 독일정부로부터 받은 훈장과 괴테 메달, 생전에 연주하던 첼로, 항상 품고 다녔던 소형태극기, 사진 등 윤이상 선생이 생전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남긴 유품 412점이 전시되고 있다. 끝내 고향땅 통영을 밟지 못했던 선생이 가까이 두고 보았다는 옛 통영의 전경사진에서 통영을 향한 그의 사랑과 진한 아픔이 느껴졌다.

윤이상 기념공원을 나와 서둘러 달려간 곳은 통영의 또다른 명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미륵산과 연결된 이 케이블카는 국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곤돌라형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운행하는데만도 10여분이 소요된다. 정상 전망대에서는 한려수도의 보석같은 섬들과 통영 시내는 물론 맑은 날이면 일본의 대마도, 지리산 천왕봉까지도 볼 수 있어 아름다운 통영을 멀리, 넓게 보려는 관광객들로 하루종일 붐빈다.

한결 깨끗해진 눈으로 마지막 향한 곳은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에 묻힌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박경리 기념관. 올해 5월 2주기를 맞아 개관한 박경리 기념관에는 선생의 대표작인 소설 '토지'의 육필원고와 편지, 관련 신문기사 등이 전시되어 있는 유품전시실과 영상자료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 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통영시청 문화예술계 김순철 계장의 안내로 인근에 자리한 박경리 선생의 묘소로 향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자리한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을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어둑어둑해지는 통영 바다를 뒤로 하고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글, 사진/정복엽)



2011년 1월에는 거제도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영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12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2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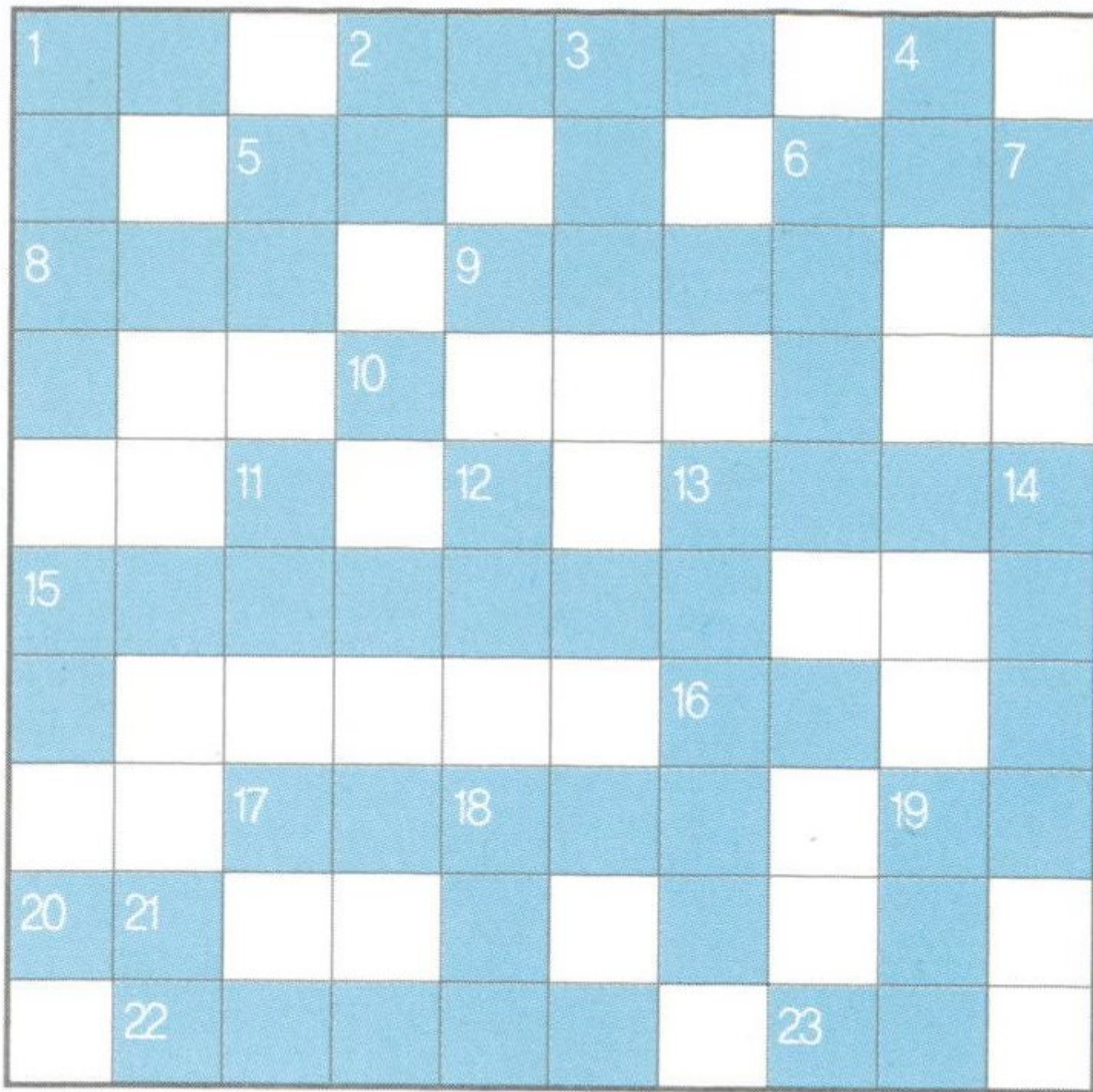
엽서당첨자

고창표(연제구 연산동)
김진희(중구 보수1가)
박정호(해운대구 반여1동)
박청숙(부산진구 초읍동)
성용호(기장군 기장읍)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송유섭(양산시 물금읍)
조영자(해운대구 좌2동)
최실봉(양산시 물금읍)
최희숙(해운대구 좌동)

신규가입자

김강희(해운대구 재송동)
김춘자(연제구 거제1동)
김효정(영도구 대평동1가)
문금선(중구 중앙동4가)
송기정(사하구 장림동)
신호국(부산진구 양정2동)
이강남(연제구 연산2동)
장춘희(사상구 모라1동)
조창래(해운대구 우1동)
하지정(사하구 다대1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12월 1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송년음악회에서 연주되는 말러 교향곡 제 2번.
- 2_동래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탈춤으로, 문둥이마당, 양반마당, 영노마당, 할미마당 등 4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 5_불교의 신앙내용을 그린 그림.
- 6_북아메리카 인디언과 구별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을 지칭하는 말. 멕시코와 과테말라 지방에서 발달한 마야(Maya)와 아스텍(Aztec) 문명은 가장 대표적인 ○○○ 고대문명이다.
- 8_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 만든 장방형의 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여섯 개의 줄이 걸쳐 있으며, 술대로 줄을 뜯어 연주한다.
- 9_영화 '트와일라잇' '블레이드' '렛미인' '박쥐'에 등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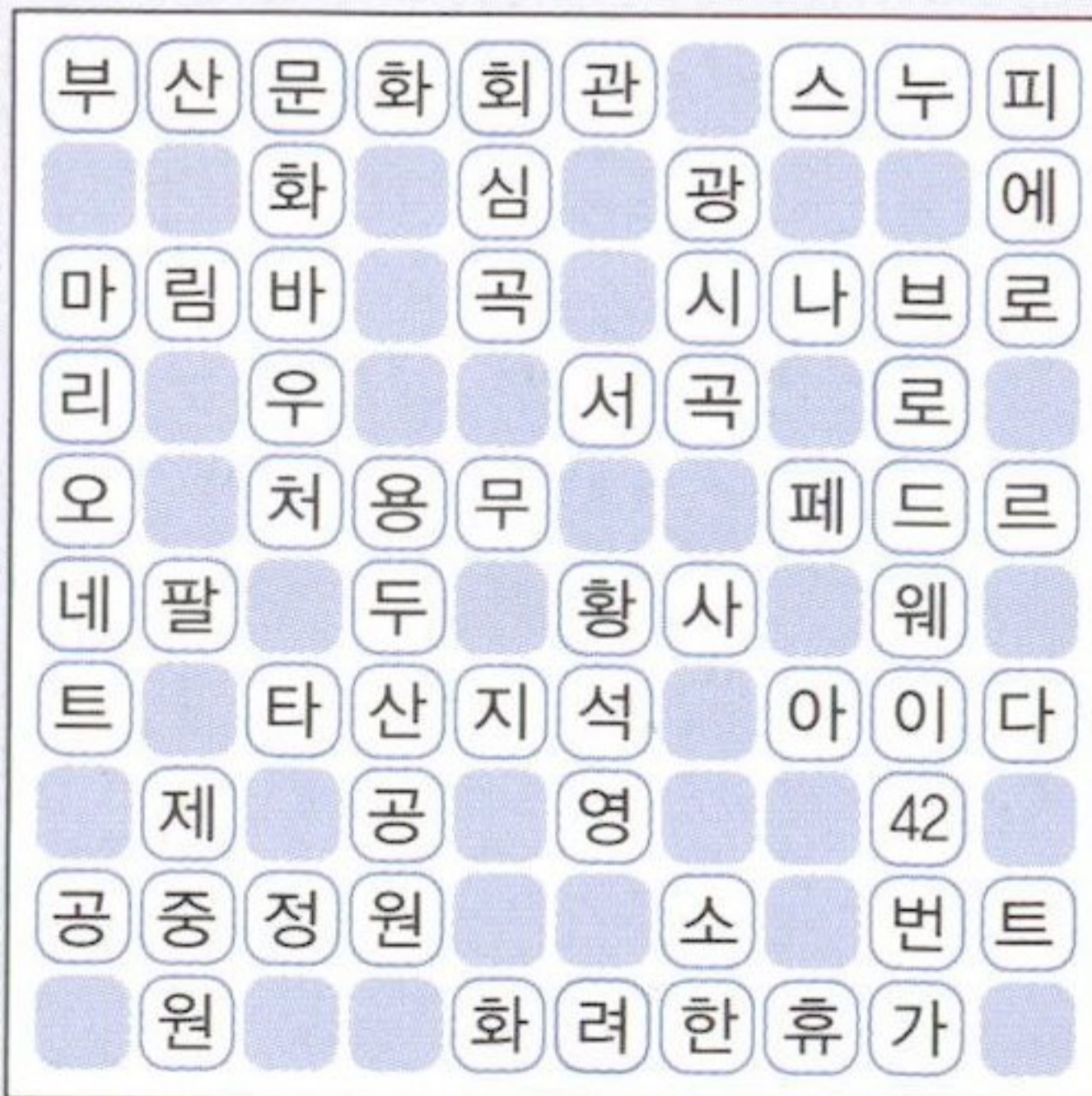
- 는 주인공의 공통점.
- 10_2010 대중상영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시나리오상 등 주요 4개 부문을 차지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 13_'구토지설' 설화에 근원을 두고 판소리 혹은 소설로 확장된 조선시대 작가·연대 미상의 한글 고대소설. '토끼전' '토생원전'.
- 15_뉴욕의 도박꾼과 구세군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브로드웨이 뮤지컬.
- 16_통일 신라시대의 승려. 당나라에 건너가 화엄(華嚴)을 공부하고 귀국 후 왕명(王命)을 좇아 부석사를 세우고 우리나라 화엄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 17_러시아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유일한 장편소설. 1965년 데이비드 린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아카데미 각본상, 오리지널작곡상,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19_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울리던 불.
- 20_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 북반구에서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 22_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화산(火山). 높이는 5,895미터.
- 23_중국 근대의 현악기. 호금(胡琴:일명 胡弓)의 일종으로 중국어로는 '얼후'라고 한다.

세로열쇠

- 1_개봉 8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류승완 감독, 황정민, 류승범, 유해진 주연의 영화.
- 2_어린이를 위해 동심을 기초로 해서 지은 이야기.
- 3_20세기 초반 모더니즘 예술에서 잠시 나타났던 미술 사조로, 강렬한 표현과 색을 선호했다. 주요 화가

- 로는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레인이 있다.
- 4_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
- 5_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이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음악. 보통 두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더블베이스, 그리고 반도네온에 의해 연주된다.
- 6_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과 지순한 사랑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 7_죽음이라는 비극적 소재를 한국적인 굿의 형식으로 풀어낸 이윤택 작, 연출의 연극.
- 11_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전형적 한국 여인상을 그린 1970년 동양방송의 일일드라마.
- 12_고려의 제 1대 왕인 '태조(太祖)'의 본명.
- 13_비정한 사회와 인간의 배신에 허덕이다 타락하고 자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최인호 원작, 이장호 감독의 1974년 데뷔작이자 출세작.
- 14_번갯불이나 부싷물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에 재빠른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5_1970년부터 1982년까지 활동했던 스웨덴의 남녀 혼성 4인조 그룹. 히트곡들을 이야기로 엮은 엮은 '맘마미아'는 뮤지컬과 영화로 제작되었다.
- 18_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 19_'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을 연출,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한 영화감독.
- 21_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자비심 많은 그와 그의 또다른 추악한 자아 '하이드'로 선악의 모순된 이중성을 이야기한다.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성훈(영도구 동삼2동)
- 신미경(사상구 패법동)
- 우정화(북구 구포2동)
- 이미애(부산진구 당감3동)
- 한정임(영도구 동삼동)

■ 공간 소극장

- 문상희(남구 대연3동)
- 박상현(부산진구 전포3동)
- 송기학(연제구 연산5동)
- 윤인숙(기장군 기장읍)
- 조덕순(해운대구 우1동)

■ 나랏소

- 강주찬(연제구 거제3동)
- 김기영(해운대구 좌동)
- 문금선(중구 중앙동4가)
- 윤숙정(남구 문현3동)
- 임윤정(남구 문현4동)

■ 큰집

- 신소영(동구 좌천4동)
- 오승희(사상구 모라1동)
- 이윤정(북구 만덕3동)
- 정희은(금정구 부곡4동)
- 한경진(영도구 동삼1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최고급 부산관광 코디네이터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풍 연문집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12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2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포스터/아름다운 꿈(Beautiful Dream)

아바/I have a Dream

카치니/아베마리아

김효근/One Summer Night

모리코네/넬라 판타지아

즐거운 캐럴/아름답게 장식하세, 성탄나무, 종의 캐럴, 징글벨

백현주(편곡)/즐거운 크리스마스 풍경

- 지휘/박광하(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출연/소프라노 홍승현, 최선희, 김나영, 이찬미, 정재연, 엘토 김미경, 안소영, 정은영, 배소영, 백지은, 서미선, 테너 박성환, 조성기, 권정은, 김웅태, 강은태, 베이스 최기호, 오승중, 이정철, 구명금, 장용균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프로그램

성주허튼춤(춤/정진희)

무당이 복을 빌며 부르는 노래인 성주풀이와 민요 '진도아리랑'에 맞춰 추는 성주허튼춤은 우리 춤의 기본에 멋과 흥을 섞어서 만든 작품이다.

사랑가(춤/박창희, 류권홍) 연인들이 나누는 정감 있는 춤사위가 마치 꽃과 나비가 만발한 봄날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창작 작품.

흥타령(춤/이현정, 오수연, 김미란) 한국 민중들의 흥과 다양한 몸짓의 이미지를 소고를 이용해 풀어낸 춤사위로 흥겨움이 가벼운 리듬과 몸짓 속에 녹아있는 민초들의 삶의 원천을 느낄 수 있다.

살풀이춤(춤/오숙례)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불리며 춤사위와 발 디딤이 섬세하고도 격조 있게 정중동의 미적 세계를 그려내는 살풀이춤은 슬픔을 바탕으로 한 비탈을 넘어 정과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킨다.

쾌지나 칭칭 나네(춤/안주희, 이현주, 이상민) 왜란으로 고통 받던 민중들이 왜적이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부른 경상도 지방의 민요인 원곡의 의미를 살려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을 춤으로 표현한 창작 작품.

한오백년(춤/황선희) 소박하고 애수어린 강원도 민요 '한오백년'을 모티브로 정인과 이별하는 이의 눈물과 함께 사랑과 인생의 가없는 슬픔을 표현한 창작 작품.

화중신선(춤/김도은, 김시현, 박민화, 조은미, 정원미) 바닷가에서 피며 꽃의 신선이라 불리는 해당화를 그린 춤으로, 새하얀 꽃송이를 들고 그려내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춤사위가 인상적인 작품.

· 구성, 안무/홍기태(수석안무자) · 해설/이현숙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박강수-소통하는 싱어 송 라이터



10년간 소극장 무대에서 작곡, 작사, 노래까지 소화해내며 관객과 소통해온 싱어송 라이터 박강수 부산공연.

주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이에서 박강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포크 음악을 통해 메마른 이 시대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이번 부산 공연은 유명 가수들의 음반 및 공연에 참여했던 실력과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1부 O Holly Night, 부족한 사랑, 바람이 분다, 마지막 편지

2부 아에이오우, 시작하기, 제발

3부 사랑아 사랑아, 다시 힘을 내어라, ABBA 메들리 등

- 기타/김기중 · 베이스/정경훈
- 피아노/정은주 · 드럼/송기정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11년 1월 14일 (금) 한려수도의 중심 거제도 겨울여행

가덕도와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완공으로 부산과 한층 더 가까워진 아름다운 섬 거제도로 떠나는 겨울여행. 영화와 드라마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거제도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거제도 도착, 옥포대첩 기념공원, 조선해양문화관
- ▷ 12:30 중식
- ▷ 14:00 거제도 포로수용소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culture.busan.go.kr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에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시립예술단공연 5~20% / 할인횟수 제한없음
- 좌석선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가입신청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탈 퇴 :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NO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비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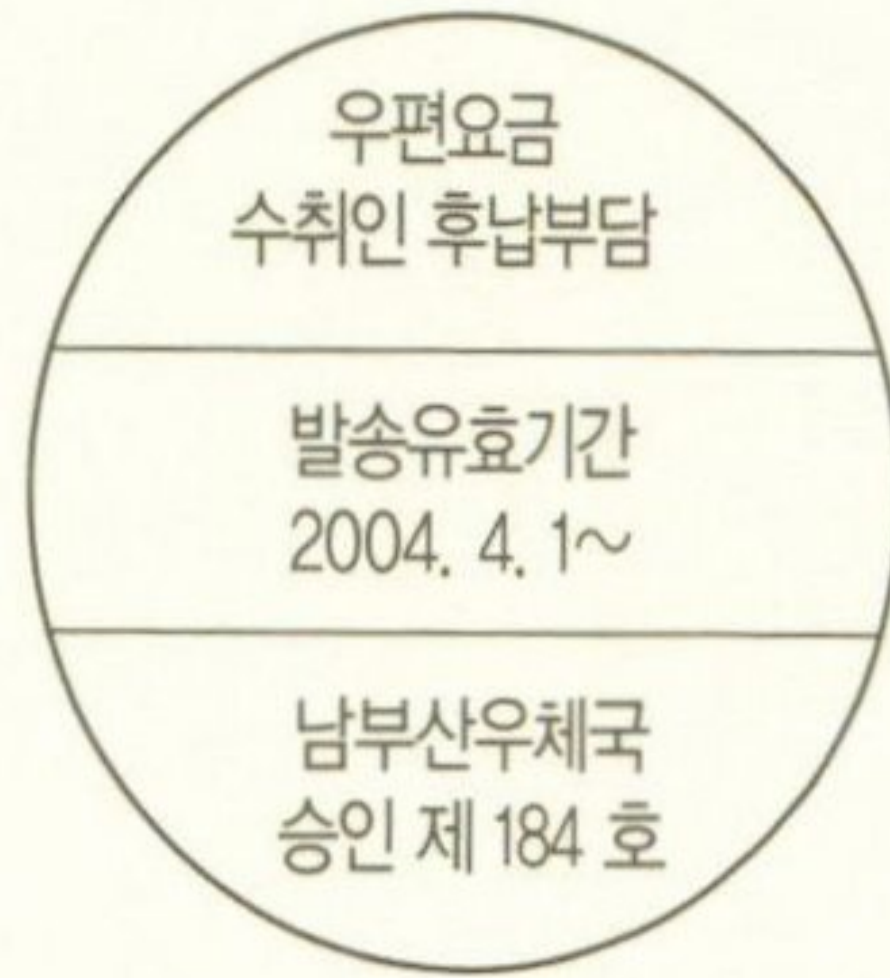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5회 정기연주회

2010 송년음악회

2010. 12.23(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지휘 김철호 협연 권원태(어름산이), 이호연(경기민요), 박종근(오카리나),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Since 1981

phil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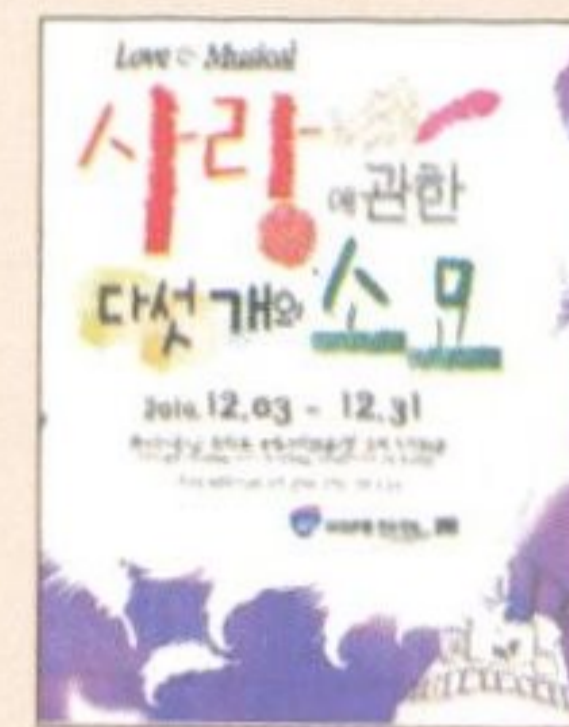
식사 WineBeer치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모 20% 할인



2010. 12. 3(금) ~ 12. 31(금)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 24, 25, 31일 공연 홈페이지 확인

▶ 입장권 : 균일 3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성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10. 1. 1(금)~12. 31(금)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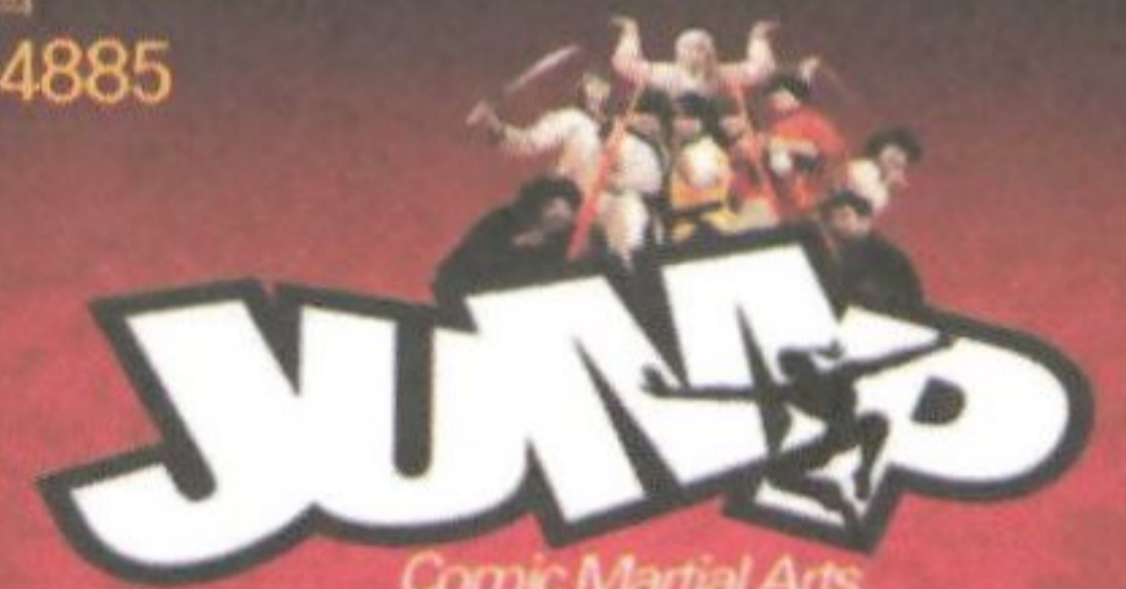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소지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1티켓 50,000원 (R석) / 40,000원 (S석)

* 우편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티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Live 비방용 옷찾사 개그쇼

드디어 부산에 상륙 옷찾사

부산 비비씨어터 옷찾사 전용관

평일(월요일 공연 없음) 19:00, 21: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토요일 16:00, 18:00, 20:00

40% 할인

일요일 14:00, 16:00, 18:00

전화예매 051)804-2256

더 멀리 더 높이 **올려라!** **행복의 트라이앵글** **동명대학교**

멘토링

인턴십

학제융합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부산 유일 1,2단계 연속) 192억원
- NEXT(대학IT교육경쟁력강화)사업 20억원
- U-PORT 대학IT연구센터사업 36억원
- 미디어융합전공과정지원사업 7억원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39억원
- IT융복합인력양성센터사업 6억원
-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사업 5억원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사업 36억원

동남경제권 산학협력 중심대학 수행사업(총 지원금 341억원)

학생중심 멘토링, 학제융합, 인턴십 트라이앵글 심포니!!

입학과 함께하는 멘토링,
 실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제융합,
 산학협력 파트너 기업 인턴십,
 동명대학교와 함께하는 행복 트라이앵글, One Stop 미래 개척!

동명대학교
201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 2010년 12월18일(토)~23일(목)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tu.ac.kr) 참조
 입시문의 : 051)629-1111

부산문화회관 재개관 기념 기획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0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지휘 이동신

바이올린 임병원

베이스 함석헌

가수 해바라기

동래초등학교 성악부

사회 이지희



2010. **12.31** 금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051)607-3111~4 (부산시향) / 051)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BUSAN PHILHARMONIC ORCHESTRA